

韓國服飾

第41號

目次



韓國服飾 제41호 | 2019.05

■ 논문

조선시대 분묘 출토 세가닥 바지 유형에 관한 연구 5
황진영

경기도 포천 소재 이현충 공과 배위 안동김씨 묘 출토 복식 고찰 29
이명은

조선시대 출토복식에 보이는 접음단치마 59
송미경

■ 한국복식 간행규정

■ 윤리규정

조선시대 분묘 출토 세가닥 바지 유형에 관한 연구

황진영*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 논문요약

상고시대부터 사용된 바지의 명칭은 다양하게 불리며 사용하였고, 조선시대 바지는 남녀 모두 착용하지만 각각의 역할이 달랐다. 남자는 겹옷의 개념으로 저고리와 함께 바지를 입었으며,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안에 속옷의 용도로 바지를 입었다.

조선시대의 바지는 출토 복식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중 세가닥 바지는 그 형태가 일반 바지와 다르게 짧은 반바지 형태를 추가로 만들어 한쪽 다리에 겹쳐 주었다. 세가닥 바지는 출토된 수량은 적지만 조선전기 바지의 특징적인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 세가닥 바지의 유형과 구성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가닥 바지는 모두 16~17세기 초에 만 출토되고 당시에 유행되었던 형태일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짧은 바지 가닥이 겹으로 배치가 되는 세가닥 바지 3점과 짧은 가닥이 속으로 들어가는 세가닥 바지 6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이중으로 구성되어 추운날씨에 방한효과와 함께 바지를 벗지 않으면서 용변이 편리하도록 제작된 실용적인 기능의 바지로 볼 수 있다. 넷째, 조선전기에는 남녀모두 속옷형태의 바지를 착용하였으며, 세가닥 바지는 남자의 바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짧은 가닥의 부리너비가 좁은 점, 사폭바지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점차 사라진 점 등으로 미뤄보아 남자용 바지로 추정할 수 있다.

주제어 : 세가닥 바지, 바지, 출토복식, 16~17세기 초

* Corresponding author : Hwang Jinyoung, E-mail : sugar09@ korea.kr

| 투고일 | 2019.03.15 | 심사개시일 | 2019.04.10 | 심사완료일 | 2019.04.30 | 게재확정일 | 2019.05.10

I. 서론

바지란 양쪽의 가랑이가 있는 아랫도리이다. 현대에는 서양복식의 흐름에 따라 바지의 형태와 양식은 남녀 차이가 없는 바지로 변화되었지만 조선시대의 바지는 남녀 모두 바지를 입었지만 각각의 역할은 달랐다. 남자는 겉옷의 개념으로 저고리와 함께 바지를 입었으며,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안에 속옷의 용도로 바지를 입었다.

상고시대부터 사용된 바지의 명칭은 고(袴), 곤(褌), 柯半(가반), 柯背(가배), 末袂(말겹), 겹고(袂袴), 단고(單袴), 말군(襪裙), 리의(裏衣)등으로 불리었다¹. 그 중 고(袴)는 상고시대부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구성방법에 따라 홀바지[單袴], 겹바지[袂袴], 솜(헛)바지[絨袴] 등으로 분류된다. 조선시대에 와서 고(袴) 대신 바지를 파지(把持)라는 명칭은 정인지(鄭麟趾, 1396~1478)가 처음 사용하였으며²,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³, 『가례도감의궤(嘉禮都監儀軌)』⁴와 『상방정례(尙方定例)』⁵, 『국혼정례(國婚定例)』⁶에서도 파지(把持)또는 파치(把赤)의 명칭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 조선후기 궁중발기⁷에서도 속곳, 봉디, 고의, 봉지, 바지, 니의등 다양한 종류의 바지가 불리며 남녀바지에 공용으로 사용한 기록도 있고, 남녀를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바지는 출토 복식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 형태는 개당고, 합당고, 세가닥 바지, 사폭바지, 단속곳, 고쟁이등 다양하다. 임진왜란 이전에는 바지통, 삼각당과 무, 허리로 구성된 밑이 트인 개당고, 밑이 막히고 허리가 트인 합당고의 속곳형 바지, 그리고 17세기 초까지 개당고와 합당고의 두 양식이 합쳐진 세가닥 바지⁸가 출토되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이후에는 남자는 사폭과 마루폭, 허리말기로 구성된 사폭바지가 입혀지고, 여자는 변화 없이 속곳형 바지를 착용하면서 현재까지 전통복식의 바지는 남자는 사폭형, 여자는 속곳형의 바지로 인식되고 있다.

1 김은정, 2001, 朝鮮時代 男女共用衣服에 관한 연구 : 衣服 名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경기, pp.15-17.

2 박춘순, 1998, 바지의 문화사, 민속원, 서울, p.247.

3 『世祖實錄』(1459), 세조 5년 3월 15일 정유, 把赤의 명칭이 처음 나옴.

4 유송옥, 1992, 조선왕조 궁중의궤복식, 수확사, 서울, 『昭顯世子嘉禮都監儀軌』(1627)부터 『純宗純明后嘉禮都監儀軌』(1882)까지 왕, 왕세자의 의대 등에서 襦把持, 單把持의 명칭을 사용함.

5 장서각, 2008, (영인본)상방정례, 한국학중앙연구원, : 왕, 왕세자의 의대에서 襦把持, 袂把持의 명칭을 사용함.

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국역)국혼정례, 국학자료원, : 왕비, 왕세자등 가례에서 白吐絁襦把持, 白鼎絁短把持, 白水絁袂把持, 白水絁單把持 등의 명칭을 사용함.

7 이명은, 2003,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경기, 참고.

8 임진왜란(壬辰倭亂, 1592-1598), 발표된 9점의 세가닥 바지 중 윤선언(1580-1628)만 몰년이 임란이후임. 세가닥 바지는 조선전기에만 착용되어지는 것으로 현재까지 볼 수 있음.

그 중 세가닥 바지는 그 형태가 일반 바지와 다르게 짧은 반바지 형태를 추가로 만들어 한쪽 다리에 겹쳐 주었다. 그 용도는 겨울용으로 용변에 편리하도록 바지를 벗지 않고 처리 하면서 트임 부분을 막아 방한효과도 함께 있는 과학적이고 기능적인 바지⁹이다. 현재까지 세가닥 바지의 용도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고 있지만 착용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남자의 묘에서 출토되었지만 형태가 여자 바지의 속곳 양식에 해당되며, 치수가 남자의 바지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의견으로 장속(葬俗)의 일종인 수례지의(綈禮之衣)로 보면서 여자의 바지로 분류한 선행연구들¹⁰이 있으며, 반대로 임진왜란 이전에는 사복바지가 발견되지 않고, 조선전기에는 남녀가 모두 속곳형의 바지를 입었을 것으로 보면서 세가닥 바지도 남자의 바지라는 의견¹¹이 있다. 그리고 남녀모두 세가닥 바지를 착용하였을 것이라는 의견¹²이 제시되고 있다. 세가닥 바지는 출토된 수량은 적지만 조선전기 바지의 특징적인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17세기 초까지 확인된 세가닥 바지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출토바지의 유형을 확인해보고, 지금까지 발표된 6점의 세가닥 바지 유물과 이번 전시를 통해 처음 발표하는 전주이씨 수도군파 5세 이현충의 세가닥 바지 1점과 미 발표 유물인 임백령묘 출토 세가닥 바지 2점까지 포함하여 총 9점의 세가닥 바지의 유형과 그 특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세가닥 바지의 사료적 가치와 옛 선조들의 지혜와 미적 감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Ⅱ. 조선시대 바지의 유형

세가닥 바지의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세가닥 바지가 확인되는 17세기까지 출토바지의 현황을 수집하여 생몰년 순으로 <표 1>에 정리하였다.

9 박성실·고부자, 1991, 高揚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月軒公派 出土遺物 小考, 한국복식 제9호, p.56.

10 김영희, 1998, 전통 내의 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경북. ; 이순자, 2002, 조선전기 여성 바지에 관한 연구-세가람이 바지를 중심으로-, 한복문화 제 5권 1호. ; 김정순, 2007,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바지 유형과 치수 분석 : 16~17세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경남. ; 조효순, 2001, 하천고운 출토 복식에 대한 소고, 한복문화 제4권 1호.

11 구남옥, 2002, 조선시대 남자 바지에 관한 연구, 복식 제 52권 7호.

12 박성실, 2006, 임진왜란 이전 남녀복식의 조형적 특징, 한국복식 제24호, pp.115~129.

표 1. 조선시대 출토 바지 현황(17세기 까지)

순번	묘 주	생몰년	성별	수량
1	이계윤(李季胤)	1431-1489	남	1
2	송효상(宋效商)	1430-1490	남	8
3	무연고(인천 석남동)	15-16세기	여	5
4	강릉김씨	1520년대 전후	여	9
5	변수(邊脩)	1447-1524	남	2
6	남양홍씨	1550년대	남	3
7	김흠조(金欽祖)	1461-1528	남	8
8	고운(高雲)	1479-1530	남	5
9	정온(鄭溫) 남원양씨(배위)	1481-1538	남	3
10	신창맹씨	1500년대 (안정나씨 일가 墓)	여	7
11	용인이씨		여	17
12	미상 부부묘(부인)		여	4
13	미상 부부묘(남편)		남	5
14	임백령(林百齡)	1498-1546	남	2
15	무연고(충남 청양 안심리 출토)	1468-1547추정	여	3
16	무연고(충남 청양 유량동 출토)	16세기 중반	여	5
17	이흠(李欽)	1522-1562	남	2
18	일선문씨	1550-60년대 초	여	4
19	파평윤씨	? - 1566	여	2
20	정응두(丁應斗)	1508-1572	남	1
21	은진송씨	1509-1580	여	
22	연안김씨(홍몽남의 배위)	? -1574 추정	여	6
23	신여관(申汝灌)	1530-1580	남	3
24	이언충(李彦忠)	1524-1582	남	6
25	동래정씨	?-1583	여	1
26	이석명(李碩明)	1513-1583	남	1
27	김첨(金瞻)	1502-1584	남	1
28	벽진이씨	? - 1585	남	2
29	진주류씨	16세기 후반	남	2
30	이언웅(李彦雄)	중종-선조대	남	3
31	청주한씨	1580년대	여	
32	한산이씨	17C초	여	5
33	충주박씨	17C초	여	3
34	안동김씨	16세기 중반	여	1
35	송희종(宋喜縱)	16C중반-16C후반	남	6
36	순흥안씨	16C 후반-17C초	여	4
37	충주박씨(忠州朴氏)	16C 후반-17C초	여	5
38	이응태(李應台)	1556-1586	남	11
39	심수륜(沈秀崙)	1534-1589	남	6
40	평산신씨	16세기 후반	여	5
41	최진(崔縝)	16세기 후반	남	5
42	최진의 부인	16세기 후반	여	4
43	안동김씨	16세기 후반	여	1
44	김위(金緯)	임란후-17세기 초	남	3
45	진주하씨	?-1652년 직후	여	17
46	순천김씨	1537-1594	여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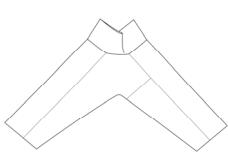
순번	묘 주	생몰년	성별	수량
47	김덕령(金德齡)	1567-1596	남	2
48	김함(金涵)	1568-1598	남	2
49	구례손씨	17세기 초	여	2
50	이헌충(李憲忠)	1505-1603	남	2
51	정휴복(鄭休復)	1529-1604	남	3
52	이기남(李箕南)	1533-1605	남	3
53	순흥암씨	1551-1609	여	2
54	장기정씨	1565-1614	여	2
55	이서용(李瑞龍)	1557 -1619	남	2
56	전주이씨	16세기후-17세기 초	여	7
57	장흥임씨	17세기 초	여	2
58	묘주미상(해남윤씨 일가 墓)	17세기 초	여	1
59	무연고(남양주 호평·평내 출토)	1600-1620초반	여	2
60	강대호(姜大虎)	1541-1624	남	2
61	양천허씨	1566-1626	여	2
62	윤선언(尹善言)	1580-1628	남	1
63	고여우(高汝雨)	1560-1630	남	16
64	단양우씨	임란전후	여	
65	고경행(高擎行)	1600년대	남	
66	심설(沈僎)	1570-1630	남	2
67	동래정씨	1567-1631	여	3
68	김확(金燾)	1572-1633	남	4
69	신경유(申景裕)	1581-1633	남	4
70	한준민(韓俊敏)	1570-1638	남	2
71	여흥민씨	17세기 전반 (한준민 일가 墓)	여	3
72	평양조씨		여	2
73	임계백	1598-1639	남	3
74	문익신(文益新)	1556-1645	남	2
75	고성남씨	17세기 중반	여	3
76	傳 박장군	17세기 초	남	2
77	진성이씨	1600년 중반	여	5
78	정양우(鄭良佑)	1574-1647	남	9
79	정태제(鄭泰齊)	1612-1669	남	2
80	여흥민씨	1586-1656	여	2
81	전주이씨	17세기 초 중반	여	1
82	해평윤씨 남아(海平尹氏男兒)	17세기중반	남	2
83	김여온(金汝溫)	1596-1665	남	2
84	이지원(李志遠)	1616-1666	남	1
85	문화유씨	1617-1685	여	
86	홍극가(洪克加)	? -1670	남	1
87	경주이씨	? -1684	여	2
88	임경백	1594-1694	남	1
89	최원립(崔元立)	1618-1690	남	3
90	홍우협(洪禹協)	1655-1691	남	4
91	심익상(沈益相)	1639-1695	남	1
92	정재후(鄭載厚)	1624-1695	남	1
93	최숙(崔櫨)	1636-1698	남	2
94	원주원씨	17세기 말	여	3
95	묘주미상(충북옥천출토복식)	17세기 이후	남	2

1. 조선시대 바지의 유형

조선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바지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는 바지통과 부리가 넓고 통자이면서 허리에 주름을 잡아 주는 속곳형의 바지이다. 속곳형의 바지는 개당고, 합당고, 세가닥 바지의 3가지로 분류된다. 개당고형의 바지는 가랑이 밑 트임이 있고 당이 각각 달려 겹쳐져서 입으면 속이 가려지는 형태이다. 당의 형태는 양쪽이 작은 삼각형 모양이거나 큰 사다리꼴 형, 사다리꼴과 삼각형이 함께 달린 세 가지가 있다. 주로 허리 뒤 중심 쪽으로 트여 있다. 합당고형은 밑 트임이 없으며 대신 허리 옆에 트임이 있어서 입고 벗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또한 바지 착용 시 흘러내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허리말기에 어깨 끈을 달아 준 바지도 확인된다. 속곳형의 바지 중 흔하지 않은 형태로 개당고형과 합당고형을 모두 포함하는 세가닥 바지가 있다. 밑이 트인 개당고형의 바지에 한쪽가랑이에 반바지 형태의 짧은 합당고형을 합친 형태이다. 두 번째 형태는 사폭바지로 사폭, 마루폭과 허리로 구성되고 허리에 주름이 없으며, 바지부리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로 트임이 없는 대신 허리를 넓게 하여 착용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속곳형과는 다르게 바지부리에 대님을 매어 입었다.

16세기 묘주의 수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바지와 동일한 형태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남자바지의 사례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¹³. 남자의 분묘에서 발견된 개당고와 합당고형 바지는 배우자의 것으로 추정해 왔으나 조선전기 남자바지도 여성의 바지와 흡사한 것으로¹⁴ 조선전기까지 남자의 바지는 여자와 그 형태가 같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도 임진왜란 이전 생존하였던 피장자의 출토 바지는 모두 속곳형의 바지만 출토 되었으며, 사폭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1431년 세종13년¹⁵에는 “본국의 바지는 넓고 크

표 2. 분묘 출토 바지의 유형

속곳형 바지			사폭형 바지
			
개당고	합당고	세가닥 바지	사폭 바지

13 박성실, 2006, 앞의 논문, p.115.

14 영주시, 1998, 판결사 김흠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 p.292.

15 『世宗實錄』(1431), 세종 13년 8월 26일 무오 5번째 기사 “本國之袴寬大, 故多費, 上國之袴三幅可縫”

기 때문에 비용이 많으나, 중국의 바지는 세 폭(幅)이면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다. 이는 사폭바지가 아닌 속곳형의 통이 넓은 바지를 조선전기에 남녀모두 착용하였음을 유물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분묘에서 출토된 고여우(1570-1640)의 바지부리가 넓은 속곳형 사폭 바지와 사폭부분이 매우 좁게 대어지고 허리중심에 맞추름이 있는 전 박 장군(16-17세기, 중요민속문화재 제117호), 장흥임씨(1590년대 추정, 중요민속자료 제112호)의 사폭바지는 속곳형에서 사폭형으로 변화되는 중간단계로 설명할 수 있으며 남자 바지의 과도기형¹⁶으로 볼 수 있다. 임진왜란 이후 조선은 혼란스러운 시기로 명나라의 영향을 받게 된다. 1798년 서유문(1762~1822)의 『무오연행록(戊午燕行錄)』¹⁷에서 “바지는 당바지[唐袴]로 통이 좁아 몸을 굽히기가 어려울 듯하다”하였고, 심재(1722~1784)의 『송천필담(松泉筆譚)』¹⁸에서는 “선조 임진왜란 후에 … 우리나라 남자는 중국에서 전래된 당고(唐袴)를 입게 되었다”고 하였다. 여기서 당바지, 당고(唐袴)는 임란이후 중국바지에서 유래된 것으로 그 형태는 좁은 바지통의 사폭과 마루폭으로 구성된 사폭 바지를 말하며, 조선으로 도입하여 입게 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시기가 올라가는 사폭바지로 추정되는 유물은 김덕령(1567-1596)장군의 묘에서 출토된 바지로 윤곽선과 허리말기등의 형태로 보아 사폭바지로 짐작¹⁹하고 있다. 임진왜란 이후 남자의 바지는 변화가 생기지만 여자 바지는 모두 속곳형의 바지로 크기나 바지부리의 형태가 변화될 뿐 속곳형의 양식은 그대로 이어진다.

Ⅲ. 조선시대 분묘 출토 세가닥 바지의 현황

세가닥 바지는 조선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일반적인 바지와는 다르게 특이한 구성을 가진 형태로 지금까지 발표된 바지는 총 9점이다. 주로 임진왜란 이전의 분묘에서만 나타나고 있다. 세가닥 바지의 명칭은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으며, 연구자들에 의해 내친고(內襯袴)²⁰, 옆트인 절충형 명주 누비바지²¹, 가랑이가 세 개인 솜바지, 소색면 솜바지²², 솜바

16 구남옥, 앞의 논문, p.53.

17 徐有聞, 1798, 『戊午燕行錄』, 卷1, 무오년 11월 22일. “바지는 당바지보다 통이 좁아 굴신(屈伸)이 어려울 듯하고”

18 沈粹, 『松泉筆譚』, 卷之4. 宣祖壬辰難後…國人始倣華人之袴制男子着之謂之 唐袴前着古長袴則與廣袴並爲婦人之着.

19 국가민속문화 제111호(총장사 소장), 박성실, 2006, 앞의 논문, p.116.

20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임진왜란 이전 전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pp.183-336.

21 김영희, 1998, 앞의 논문, p.27.

22 광주민속박물관, 2000, 하천고문출토유물, pp.67-68.

표 3. 조선시대 분묘 출토 세가닥 바지의 현황

순번	묘주	출토 수량	생물 연대	묘주	출토지	소장처
1	고운	1점	1479-1530	남	광주시 압촌동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
2	임백령	2점	1498-1546	남	경기도 고양시	석주선기념박물관
3						
4	정응두	1점	1508-1572	남	경기도 고양시	석주선기념박물관
5	남양홍씨	1점	1550년대	남	경기도 양주시	석주선기념박물관
6	벽진이씨	1점	?-1585	남	경북 칠곡군	경북대학교 박물관
7	이현충	1점	1505-1603	남	경기도 포천시	석주선기념박물관
8	강절의 배위 한산이씨	1점	1500후반 -1600초	여	대전시 대덕구	대전시립박물관
9	윤선언	1점	1580-1628	남	경기도 광주시	석주선기념박물관

표 4. 조선시대 분묘 출토 세가닥 바지의 크기

(cm)

순번	유물	묘주	구성	소재	길이	짧은가닥길이	허리둘레 (1/2)	부리	밑아래 길이	밑위 길이
					(허리말기 제외)					
1		고운	숨	면/면	88	55	45	54	47	47
2		임백령1	누비	주/주	97	67	54	43	42.5	53
3		임백령2	누비	주/주	98	70	54	45	48	51
4		정응두	누비	주/주	96	59	62.5	41	41	61
5		남양홍씨	누비	주/주	96	53.5	50.5	29.5	48	54
6		벽진이씨	누비	면/면	74	52	54	57	36	40
7		이현충	누비	주/주	86.5	63	57	65	42	44
8		한산이씨	숨	면/면	96	52	56	30.5	39	39
9		윤선언	누비	주/주	90	65	46	52	43.5	45.5

지²³, 세가랑이 바지²⁴, 세자락 바지²⁵, 세가닥 바지²⁶등으로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세가닥 바지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바지는 합당고와 개당고가 하나의 허리말기에 고정된 형태로 두벌을 함께 입는 것 보다 하나를 입으면서 두벌을 입은 효과를 얻기 위해 절충시킨 바지²⁷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출토된 세가닥 바지를 정리하면 <표 3>과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가닥 바지의 명칭은 문헌상에서 확인 되지 않고 있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명칭을 추가하여 명칭의 혼란을 주는 것 보다는 문헌상의 명칭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근래에 가장 많이 사용되며 현재 복식사전에 등록된 명칭을 선택하여 명명하고자 한다.²⁸ 또한 9점의 바지의 트임이 좌,우로 다양하게 발표되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트임의 위치를 세부 구조에 대한 이해를 위해 편의상 모두 오른쪽으로 하였다.²⁹

1. 고운(1479-1530) 세가닥 바지³⁰

1986년 9월 광주광역시 남구 압촌동에서 이장 중 출토되었다. 묘주는 고운(高雲)으로 호는 하천(霞川)이며, 1579년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좌랑(刑曹佐郎)의 벼슬을 지냈다. 출토 유물은 직령, 단령, 세가닥 바지 등 복식류 22점과 상장류를 포함 총 50점이다.

고운의 출토복식 중 바지가 5점으로 합당고형 홑바지 4점과 솜으로 구성된 세가닥 바지가 출토 되었으며, 모두 여성의 바지로 발표하였다.

세가닥 바지는 길이(허리너비제외) 88cm, 부리는 54cm로 넓어 속곳형 솜바지에 해당한다. 무명으로 만든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두텁게 넣어 만든 솜 옷으로 짧은 가닥과 긴 가닥으로 구성된 합당고형 바지를 만든 후 짧은 가닥의 겉쪽에 개당고 형식의 긴 가닥을 주름을 같이 잡아 주어 겹치도록 만들었다. 짧은 가닥은 트임이 있는 쪽 긴 가닥의 속으로 들어간 형태로, 겉과 달리 솜을 두지 않은 겹옷 상태이다. 허리 말기 선에서 아래로 44.5cm 내려와 13.5cm×13cm의 삼각형 당이 달렸다. 트임이 있는 쪽에 55cm길이의 짧은

23 권영숙 외, 2001, 진주강씨 부인 한산이씨 충주박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p.75-76.
; 조효순, 앞의 논문, pp.17-18.

24 이순자, 앞의 논문, p.6.

25 김정순, 앞의 논문, pp.15-22.

26 구남옥, 앞의 논문, pp.50-53. ; 박성실b, 앞의 논문, p.116.

27 박성실, 2006, 앞의 논문, p.116.

28 강순제 외, 2015,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pp.445-446.

29 이은주, 1998, 한국 전통복식에 투영된 좌우 개념, 복식 38호, pp.347-348. 참고.

30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00, 하천고운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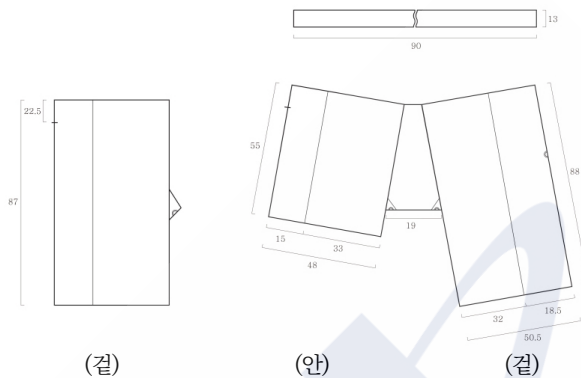


그림 1. 고운(1479-1530) 세가닥 바지 도식화

은 자락을 부착하였다. 짧은 자락의 바지부리는 48cm로 긴 자락의 부리보다 좁게 제작하였다. 짧은 자락은 솜을 두지 않고 겹으로만 구성하였다. 중심의 사다리꼴무의 양 끝에는 4cm×4cm의 삼각당을 추가로 달아주었다.

2. 임백령(1498~1546) 세가닥 바지³¹

2007년 3월 19일 선산임씨 문중의 선산인 경기도 고양시 벽제 관산리에서 임백령과 배위의 합장묘를 이장 하던 중 출토되었다. 묘주 임백령(1498~1546)의 본관은 선산(善山)이며, 자는 인순(仁順), 호는 괴마(槐馬)로 1498년에 태어나 1546년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병사하였다. 임백령의 묘에서 단령, 철릭, 액주름, 저고리, 세가닥 바지 2점 등 다량의 복식이 발견되었다.³²

임백령의 세가닥 바지 2점 모두 짧은 가락이 겹으로 드러나는 외형(外形) 세가닥바지로 길이(허리너비제외)는 97cm이다. 겹감과 안감은 명주로, 7cm 간격으로 누벼주었다. 원래는 솜 누비였으나 현재는 겹 누비 상태로 남아있다. 트임이 없는 쪽으로 67cm 길이의 짧은 자락을 합당고형으로 구성하였다. 바지 중심에는 길이 53cm, 밑너비 28cm 사다리꼴 바대를 부착하였다. 바지부리는 짧은 자락이 59cm, 긴 자락의 부리는 43cm로 무릎위로 자락이 보이면서 치마를 덧댄 것처럼 보인다. 또한 속 바지는 개당고형의 밑이 터진 바지이지만 겹의 합당고가 덮어주면서 트임이 보이지 않는다. 안쪽의 개당고는 삼각당 대신 높이

3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32 노수정, 2008, 임백령묘 출토 직금흉배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경기, p.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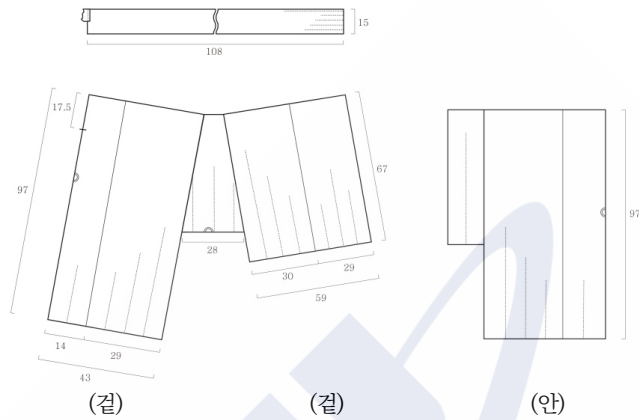


그림 2. 임백령(1498~1546) 세가닥 바지1 도식화

53cm 너비 14.5cm의 직사각형 바대로 제작하였다. 내형(內形) 세가닥 바지는 용변 시 안에 숨어있는 자락을 꺼내고 다시 집어 넣는 반면 외형(外形) 세가닥 바지는 겉에 올려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형태일 것으로 생각한다. 겉가닥과 속가닥을 겹쳐 줄 때 주름을 따로 잡아주어 허리말기를 달아주었다.

3. 임백령(1498~1546) 세가닥 바지2

세가닥 바지2의 길이(허리너비제외)는 98cm로 겉감과 안감은 명주를 사용하여 1.7~2cm 간격으로 누벼주었다. 현재 숨이 소실되어 겹 누비 상태로 남아있다. 트임이 없는 쪽으로 67cm길이의 짧은 자락을 합당고형으로 겹으로 드러나도록 구성하였다. 허리 말기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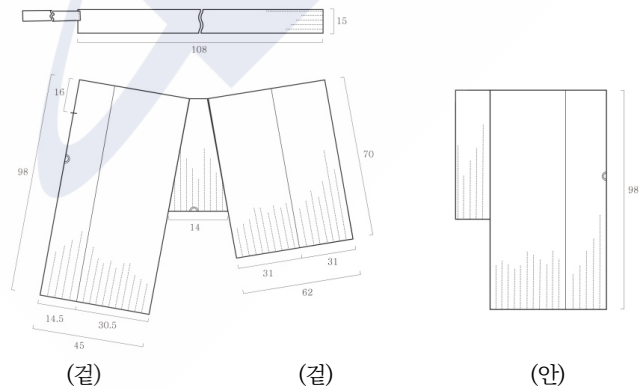


그림 3. 임백령(1498~1546) 세가닥 바지2 도식화

래로 70cm 내려와 짧은 가닥을 부착하였다. 바지부리는 짧은 자락이 61cm, 긴 자락의 부리는 45cm 이다. 안쪽의 개당고는 삼각당 대신 높이 51cm 너비 14cm의 직사각형 당으로 제작하였다.

4. 정응두(1508-1572) 세가닥 바지³³

1988년 10월 25일 경기도 고양군 지도읍 행신리(현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서 이장 중 출토되었다. 정응두의 묘에서는 공작흉배가 부착된 흑단령과 철릭, 액주름, 세가닥 바지 등 56점의 복식이 출토되었다.

정응두의 세가닥 바지도 임백령의 바지와 같이 짧은 가락이 겹으로 드러나는 외형(外形) 세가닥 바지로 구성되었다. 길이(허리너비제외)는 96cm이고 바지부리는 짧은 자락이 83cm(5폭), 긴 자락의 부리가 41cm로 2배의 너비차이로 무릎위로 자락이 보이면서 치마를 덧댄 것처럼 보인다. 부리가 좁아지는 형태로 바람막이 역할과 함께 용변이 편리한 구성이다. 겹감과 안감은 명주로 솜을 두툼게 넣어 8cm간격으로 누벼주었다. 트임이 있는 쪽으로 59cm 길이의 짧은 자락을 홀로 합당고형 바지를 구성하였다. 바지 중심에는 길이 61cm, 밑너비 17cm의 사다리꼴 바대를 부착하였다. 안쪽의 개당고는 허리 말기 아래로 57.5cm 내려와 14cm×7.5cm의 삼각형 당이 달렸다. 짧은 자락은 밑바대부터 15cm까지만 솜을 얇게 두었으며, 짧은 자락은 부리를 0.3cm 공그르기 하고, 트임은 제물단으로 바느질하였다. 학계 일부에서 옷이 뒤집혔을 것으로 추정하는 사례가 있으나, 허리말기에 달린 끈 자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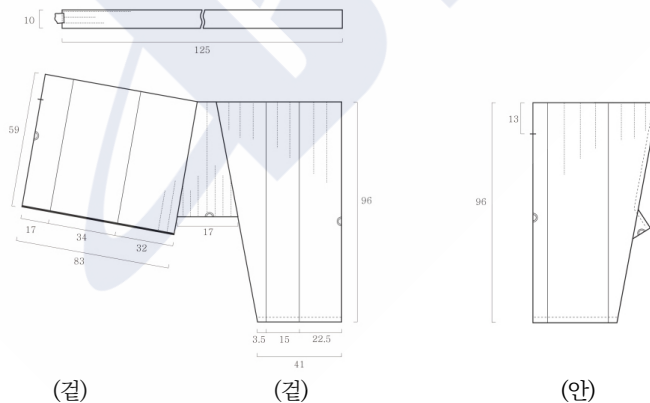


그림 4. 정응두(1508-1572) 세가닥 바지 도식화

33 박성실·고부자, 앞의 논문, pp.45-57.

이 겹으로 박음질되어 있고, 바지 부리와 밑트임의 별단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며, 부리를 0.3cm로 두 번 접어 안쪽에서 공그르기 하여 마무리 하였기 때문에 옷이 뒤집혔을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5. 남양홍씨(1550년대) 세가닥 바지³⁴

1980년 경기도 양주시 양평에서 도굴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묘주는 남양홍씨(南陽洪氏, 1550년대)와 그의 배위 원주원씨(原州元氏, 1550년대)의 합장묘이다.

이 바지의 길이(허리너비제외)는 96cm이며 부리가 29.5cm로 다른 유물에 비해 부리가 좁아 추위에 다리 아래로 바람이 들어오지 않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겹감과 안감은 명주로 솜을 두툼게 넣어 8cm간격으로 누벼주었다. 허리 말기 아래로 41cm 내려와 15.5cm×8cm의 삼각형 당이 달렸으며, 사각형을 반 접어 골선이 아래로 향하게 부착하였다. 트임이 있는 쪽으로 53.5cm길이의 짧은 자락을 안쪽에 부착하였다. 짧은 자락의 바지 부리는 52cm로 자락을 가랑이 사이로 빼기 쉽도록 넓게 제작하였다. 속으로 들어간 짧은 가닥은 한쪽가랑이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중심부는 겹 보다는 솜을 얇게 넣어 8cm간격으로 누벼주었으며 옆면은 누비지 않은 겹 상태이다. 긴 바지의 안감 부리에는 4.5cm의 무명으로 별단이 덧대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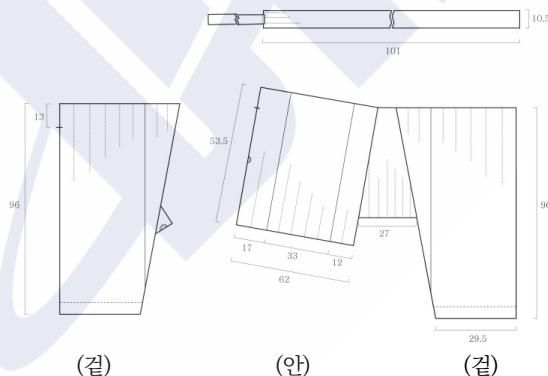


그림 5. 남양홍씨(1550년대) 세가닥 바지 도식화

3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제2회 출토복식 특별전(1982), 高揚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月軒公派 出土服飾.에서는 남양홍씨의 생몰년을 1450년대 전후로 발표 하였으나 박성실b, 앞의 논문, pp.99-131.을 통해 1550년대로 수정되었다.

6. 벽진이씨(?-1585) 세가닥 바지³⁵

1991년 5월 30일 경북 칠곡군에서 이장 중 출토되었다. 묘주의 정확한 신원이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명정과 만장의 쓰여진 내용을 근거로 문중에서 이옥형(李玉衡, ?-1585)으로 추정하였다. 지금까지 발표된 세가닥 바지 중 유일하게 허리말기에 어깨끈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바지의 길이(허리너비제외)는 74cm로 세가닥 바지 중 가장 짧으며, 길이에 비해 부리가 57cm로 넓다. 겹감과 안감은 무명으로 솜을 두텁게 넣어 0.8~1.2cm간격으로 누벼주었다. 허리 말기 아래로 21cm 내려와 17cm×12cm의 삼각형 당이 달렸으며, 옆트임과 부리는 눈썹단으로 제작하였다. 트임이 있는 쪽으로 52cm길이의 짧은 자락을 합당고형으로 안쪽에 부착하였다. 짧은 자락의 부리는 68.5cm로 솜이 없이 겹으로만 구성하였다. 중심에는 길이 38cm, 밑너비 33cm의 사다리꼴 바대를 1~2cm정도 누벼 부착하였다. 특히, 옆트임을 오른쪽으로 놓았을 때를 기준으로 바지 앞면 양쪽의 가랑이 바깥쪽으로 10cm길이의 끈이 부착되어 있지만 이 끈의 용도는 정확히 알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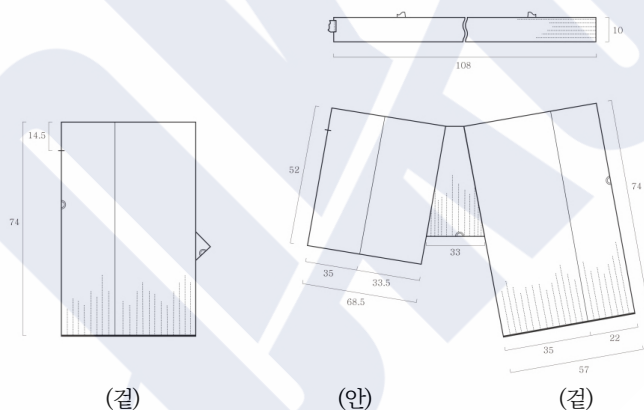


그림 6. 벽진이씨(?-1585) 세가닥 바지 도식화

7. 이헌충(1505-1603) 세가닥 바지³⁶

2009년 10월 경기도 포천시에서 부부 합장묘로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은 액주름, 답호, 접은단 치마, 세가닥 바지 등 28점이다.

³⁵ 박성실, 1992, 앞의 논문, pp.229-258.

³⁶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민속·복식 제38회 특별전(2019), 전주이씨 수도군파 5세 이헌충과 부인 안동김씨 무덤 출토복식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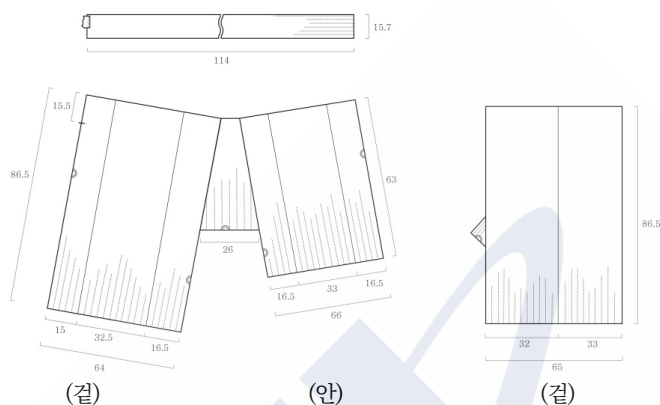


그림 7. 이현충(1505-1603) 세가닥 바지 도식화

세가닥 바지의 길이(허리너비제외)는 86.5cm이며 부리는 65cm로 가장 넓다. 겉감과 안감은 명주를 사용하여 1.6cm간격으로 누벼주었다. 현재 솜이 소실되어 겹 누비 상태로 남아있으며 0.6cm 간격의 넓은 누비 땀 상태로 보아 솜을 두텁게 두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트임이 없는 쪽으로 63cm 길이의 짧은 가닥을 합당고형으로 안쪽으로 부착하였다. 짧은 가닥의 부리는 66cm로 2.5~4cm 간격으로 누비 간격의 점점 좁아지는 형태로 누벼주었다. 겉의 개당고는 허리 말기 아래로 38.5cm 내려와 15cm×10.5cm의 삼각형 당이 달렸으며, 안쪽의 합당고의 바지 중심에는 길이 44cm, 밑너비 25cm의 사다리꼴 바대를 부착하였다. 허리 말기는 2cm 간격으로 상하, 좌우를 누벼주어 누비선이 특이하게 격자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8. 강절의 배위 한산이씨(1500후반-1600초) 세가닥 바지³⁷

1998년 3월 25일 대전시 대덕구에서 이장 중 출토되었다. 묘주는 진주강씨(晉州姜氏) 강절(姜節, 1542-미상)과 그의 배위 한산이씨의 합장묘이며, 이 바지가 출토된 묘주는 한산이씨이다. 장옷, 저고리, 세가닥 바지 등 29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5벌의 바지 중 세가닥 바지는 네 번째 착용한 수의이다.

한산이씨의 바지의 길이(허리너비제외)는 96cm, 부리가 30.5cm로 부리가 좁은 개당고 형이다. 겉감과 안감은 무명으로 솜을 두텁게 넣었으며, 부리에는 4.2cm 위로 6.5cm 간격으로 상침하여 솜을 고정하여 주었다. 허리 말기 아래로 33cm 내려와 10cm×6cm의 삼각형 당이 달렸으며, 사각형을 반접어 제작하였다. 1.2cm의 별단을 덧댄 트임이 있고, 52cm길이의 짧은

37 권영숙 외, 앞의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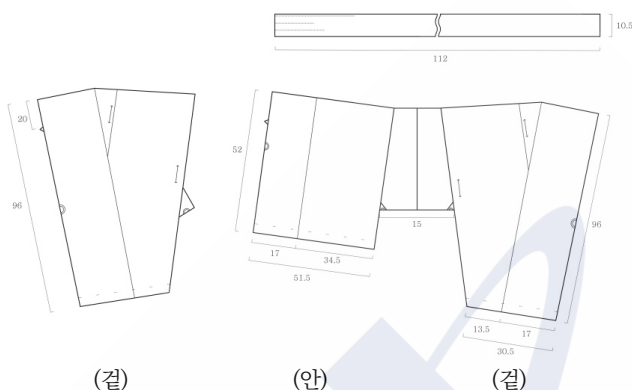


그림 8. 한산이씨(1500후반-1600초) 세가닥 바지 도식화

자락을 합당고형으로 안쪽에 부착하였다. 짧은 가닥의 바지부리는 51.5cm로 겹으로 제작하여 가랑이 사이로 빼기 쉽도록 하였다. 안쪽의 합당고의 바지 중심에는 길이 39cm, 밑너비 15(12+13)cm의 사다리꼴무와 양 끝에는 2.5cm×2.5cm의 삼각당을 추가로 달아주었다.

9. 윤선언(1580-1628) 세가닥 바지³⁸

2007년 10월 경기도 광주시 해남윤씨 굴정공파일가의 묘를 이장 중 출토되었다. 묘주 윤선언(1580-1628)의 자(字)는 근이(近而)이다. 관직에는 오르지 못하였으나 정2품 의 윤 안흥배가 달린 단령을 수의로 입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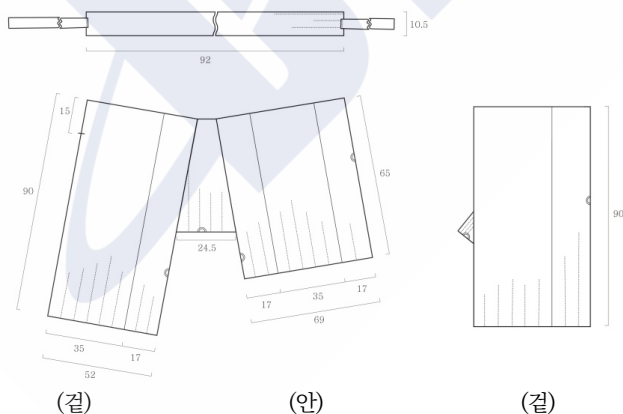


그림 9. 윤선언 (1580-1628) 세가닥 바지 도식화

38 석주선기념박물관, 2009. 해남윤씨 굴정공파 광주출토 유물, 단국대학교 출판부.

윤선언의 세가닥 바지는 수의로 가장 속에 입었던 내의(內衣)이다. 바지의 길이(허리너비 제외)는 90cm, 부리가 52cm의 개당고가 겹으로 구성되어있다. 겹감과 안감은 명주로 만들어 7cm간격으로 누벼주었다. 허리 말기 아래로 37.5cm 내려와 12cm×12cm의 삼각형 당이 달렸다. 트임이 없는 쪽으로 65cm길이의 짧은 자락을 합당고형으로 안쪽에 부착하였다. 짧은 자락의 부리는 69cm로 누벼주지 않고 겹 옷 상태로 구성하였다. 중심에는 길이 45.5cm, 밑너비 24.5cm의 사다리꼴 바대를 누벼 부착하였다.

Ⅵ. 조선시대 분묘 출토 세가닥 바지의 특징

1. 16~17세기 초에만 나타나는 바지의 유형

9점의 세가닥 바지는 모두 16~17세기 초에만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출토지와 신분 또한 어느 특정한 곳에 몰려있지 않고 다양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세가닥 바지는 한 지역에서만 착용하는 바지의 특징은 아니며, 당시에 유행되었던 형태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는 사폭바지의 구성법이 한산이씨, 정응두, 남양홍씨의 세가닥 바지의 구성과 일부분이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사폭바지가 정착되기 전 변화되는 과도기에 세가닥 바지의 구성법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임진왜란 이후를 기점으로 나라의 혼란과 물자부족 등으로 인해 옷감사용을 간소화하고 효율적인 구성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서 남자는 사폭바지를 착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점에서 세가닥 바지가 조선시대 큰 변화없이 속곳형 바지형이 유지된 여자 바지라면 세가닥 바지도 17세기 이후에도 계속 나타나야하는데, 사폭바지가 등장하는 시점에 세가닥 바지가 사라졌다는 것은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많이 착용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2. 착용자³⁹⁾

묘주가 여자인 세가닥 바지는 한산이씨 1점으로 5벌의 수의바지 중 4번째로 착용하고 있

39) 세가닥 바지의 크기 때문에 여자 바지로 보는 견해가 있어 조선전기 묘주의 신분이 확실하고 남자옷의 연대를 추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중요민속문화재 제243호 이언충묘 출토바지(6점)과 중요민속문화재 제242호 김홍조 부부묘 출토바지(8점)를 비교자료로 사용하였다.

었다. 나머지 8점은 남자의 분묘에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여자의 바지로 발표한 선행연구들⁴⁰을 보면 남자 분묘에서 확인된 세가닥 바지는 모두 수례지의(綈禮之衣)로 보는 의견이 있다. 『상례비요(常例備要)』⁴¹에서 당시에 남자에게 여성의 옷을 사용하거나 반대로 여자에게 남자의 옷을 사용하여 금지하려는 경우가 있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본 연구자의 의견은 여자 분묘에서 확인되는 바지가 적게 나타나 오히려 여자 분묘의 세가닥 바지를 수례지의(綈禮之衣)로 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가닥 바지를 모두 여자용 바지로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9점의 세가닥 바지의 길이는 허리말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90~97cm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운과 이현충의 바지는 86.5cm와 88cm로 다른 바지에 비해 약간 짧은 편이다. 벽진이씨는 74cm로 20cm이상 차이가 나는데, 여자가 착용한 바지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분묘 출토 여자바지의 평균길이는 89cm이며, 이언충 바지의 평균길이는 83.6cm, 김흠조 바지는 95.6cm로 남녀 구분 없이 길이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허리둘레에서도 세가닥 바지는 45~62.5cm, 이언충 바지의 평균 허리

표 5. 세가닥 바지의 길이(허리말기 제외)와 허리둘레 (cm)

묘주	고운	임백령1	임백령2	정응두	남양홍씨	벽진이씨	이현충	한산이씨	윤선언
바지길이	88	97	98	96	96	74	86.5	96	90
허리둘레(1/2)	45	54	54	62.5	50.5	54	57	56	46

표 6. 김흠조와 이언충 묘 출토 바지 (cm)

순번	유물		형태	구성	소재	길이 (허리말기 제외)	허리둘레 (1/2)	부리
1	김흠조 (1461~1528) 바지	33	개당고	숨	주/삼베	98	54	70
2		34	개당고	겹	주/삼베	100	57.5	58
3		40	개당고	홀	면	97	51.5	64.25
4		35	합당고	홀	면	95.5	50	67.5
5		36	합당고	홀	면	94	53	78
6		37	합당고	홀	면	94	54.5	67.2
7		38	합당고	홀	면	92	52	65
8		39	합당고	홀	면	95	53.5	72
9	이언충 (1524~1582) 바지	6-4	개당고	겹	면/면	84	50	51
10		6-5	개당고	겹	주/주	84	47.5	50
11		6-6	개당고	누비	면/면	82.5	47.5	51
12		6-1	합당고	홀	면	82	47.5	70
13		6-2	합당고	홀	면	84.5	45	69
14		6-3	합당고	홀	삼베	84.5	51	69.5

40 이순자, 앞의 논문. ; 김정순, 앞의 논문.

41 申義慶, 1648, 『喪禮備要』, 女喪男服不襲.

둘레는 48cm, 김흥조 바지는 53cm이며, 여자바지의 평균 허리둘레는 45cm으로 신체적 구조에 따라 여자의 허리둘레가 평균적으로 적지만 치수로 세가닥 바지의 착용자를 구분하기에는 아직은 부족하며 묘주의 신체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생각 된다⁴².

또한 복원품을 제작하여 착용해 보았을 때, 용변을 볼 때는 밑을 열어주어야 하는데, 솜옷의 특성상 옷이 두꺼워져 트임이 매우 불편한 상태가 된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이 착용하기에는 기능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옷이다. 따라서 옷의 크기, 기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세가닥 바지는 남성이 입었던 방한용 바지로 추정된다. 남성의 바지일 경우 겹옷으로 주로 착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유는 세가닥 바지의 구성 자체가 두 개의 바지를 연결시켜 편리함을 위한 실용성을 목적으로 만든 바지이기 때문에 다시 세가닥 바지위에 겹 바지를 또 덧입을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적은 유물의 수량으로 인해 정확한 판단과 남녀용의 구분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어 남녀 공용의 가능성, 남성의 속옷 착용도 배제할 수 없다.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3. 구성적 특징

(1) 짧은 가닥

1) 속으로 들어간 짧은 가닥

짧은 가닥이 속으로 들어가 겹에서 보았을 때 일반적인 개당고형인 것처럼 보이는 세가닥 바지이다.

밑이 막히고 부리통이 넓은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밑이 트이고 부리가 좁은 바지를 입게 되는데 가랑이 사이로 안쪽 바지의 부리를 꺼내어 용변을 보기 때문에 틈사이로 올리기 번거로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용변을 보기위해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같은 시기의 합당고의 부리너비(1/2)의 평균은 70cm로 짧은 가닥의 폭이 좁은 편이다. 그 이유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걷어 올리는 부분이 적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자락을 트임 사이로 뺄 때 벌어지는 너비가 고운과 한산이씨의 부리가 많이 좁아 여자바지로 생각할

표 7. 짧은 가닥의 부리너비(1/2)

(cm)

묘주	고운	남양홍씨	벽진이씨	이현충	한산이씨	윤선언
짧은 가닥	48	62	68.5	66	51.5	69

42 이언충의 철릭과 김흥조의 철릭의 뒷길에서도 10~20cm이상 차이가 난다.

수 있으나 짧은 가닥을 밑 트임에서 꺼내어 용변을 볼 때 벌어지는 폭이 좁아 여자 보다 남자가 사용하기 편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겹으로 드러난 짧은 가닥

임백령(1498~1546)의 바지 2점과 정응두(1508-1572)의 바지 1점은 짧은 가닥이 겹으로 배치가 되어 치맛자락이 덧입혀진 것처럼 보이는 형태이다.

학계에서는 정응두의 겹으로 드러난 바지가 뒤집혀진 상태의 의견 이라는 이론을 제시하였으며, 장속(葬俗)의 일종으로 보고 바지를 뒤집어 넣었다는 추정을 하기도 한다.⁴³ 그러나 허리말기에 달린 끈 자국이 겹으로 박음질되어 있고, 바지 부리와 밑트임의 별단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며, 부리를 0.3cm로 두 번 접어 안쪽에서 공그르기 하여 마무리 하였기 때문에 옷이 뒤집혔을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짧은 가닥의 길이는 바지 길이와 상관없이 다양하게 제작하였다. 가장 길게 제작한 것은 임백령2의 70cm이고 전체 바지 길이와 밑 아랫길어도 가장 길게 만들었다. 가장 짧게 제작된 것은 고운과 정응두의 바지로 밑아래 길이가 7cm로 속안으로 넣거나 겹으로 드러난다고 해서 길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짧은 가닥이 속으로 들어간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사용하기에는 겹으로 드러나는 것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바지의 형태라고 생각된다.

표 8. 세가닥 바지의 짧은 가닥 치수

(cm)

묘주	고운	임백령1	임백령2	정응두	남양홍씨	벽진이씨	이현충	한산이씨	윤선언
구성	겹	누비	누비	홀	누비	겹	누비	겹	겹
바지길이	55	67	70	59	53.5	52	63	52	65
밑아래길이	7	12	19	7	11	11.5	26	13	21
부리너비	48	59	62	83	62	68.5	66	51.5	69

(2) 바대

합당고형의 바지에 부착된 바대는 모두 사다리꼴형태로 정응두, 윤선언, 이현충은 밑 부분을 골로 만들어 긴 육각형을 반 접어 사용하였다. 길이는 38~61cm, 윗너비는 4~12cm, 밑 너비는 14~33cm로 너비와 길이의 비율이 상관없이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였다. 한편 고운과 한산이씨 바대에는 밑 부분 양끝 쪽으로 삼각형의 당을 덧대어 주었다.

개당고형의 밑트임에 부착된 당(襠)은 임백령의 바지 2점을 제외하고 옆면은 10~17cm, 밑면은 6~17cm로 모두 작은 삼각형으로 부착하였다. 임백령의 바지 2점은 너비 14~

43 이순자, 앞의 논문, p.6.

표 9. 세가닥 바지의 바대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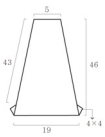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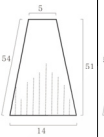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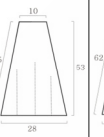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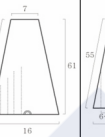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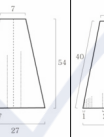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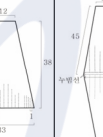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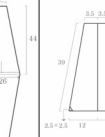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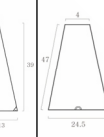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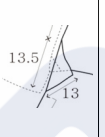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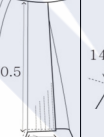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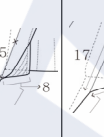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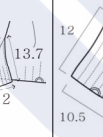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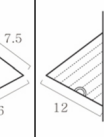
묘주	고운	임백령1	임백령2	정응두	남양홍씨	벽진이씨	이헌충	한산이씨	윤선언
바대길이	48	53	51	61(62)	54	38	44	39	45.5
윗너비	5	10	5	7	7	12	4.5	7	4
밑너비	19	28	14	16(17)	27	33	26	15	24.5
삼각당	4×4							2.5×2.5	
형태									

표 10. 세가닥 바지의 당(檔)

(cm)

묘주	고운	임백령1	임백령2	정응두	남양홍씨	벽진이씨	이헌충	한산이씨	윤선언
구성	삼각	직사각	직사각	삼각	삼각	삼각	삼각	삼각	삼각
밑면	13	14.5	14	7.5	8	12	10.5	6	12
옆면	13.5	53	50.5	14	15.5	17	15	10	12
형태									

14.5cm, 길이 50.5~53cm의 직사각형 당이 부착되었다. 안으로 들어가는 개당고형의 바지 중 정응두는 삼각형 당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짧은 가닥의 위치에 따라 당의 형태가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3) 주름

세가닥 바지의 허리 주름은 겹 가닥과 속 가닥이 2중으로 겹쳐진 상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름이 둔탁하게 만들어졌으며 구성 방식도 다소 달라서 겹 가닥과 속 가닥을 겹쳐 주름을 함께 잡아준 것과, 주름을 각각 잡아준 후 합친 것으로 대별된다.

주름을 함께 잡아준 유물은 고운, 남양홍씨, 벽진이씨, 정응두, 한산이씨, 이헌충 의 세가닥 바지이며, 겹 가닥과 속 가닥을 별도로 주름 잡은 후에 서로 겹쳐진 것은 임백령의 2점과 윤선언의 세가닥 바지이다.

(4) 솜과 누비

세가닥 바지는 모두 솜과 누비로 구성되어있으며 누비가 7점으로 많이 나타났다. 내의

(內衣)의 개념으로 직물은 모두 주와 면으로 제작하여 착용하였다. 짧은 가닥은 솜을 빼거나 홀으로 부착하여 한쪽만 두꺼워지지 않고 활동성이 불편하지 않도록 제작하였다.

16세기 중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출토된 접은단 치마의 경우 단순히 길이를 줄이기 위한 기능적인 용도 보단 자체의 장식적인 기능일 것⁴⁴을 보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비슷한 시기 사라진 세가닥 바지는 장식적인 기능 보다는 이중으로 구성되어 추운날씨에 방한효과와 함께 바지를 벗지 않으면서 용변에 편리하도록 실용적인 기능의 바지로 볼 수 있다.

V. 결론

현재까지 조선시대 분묘에서 출토된 9점의 세가닥 바지의 유형과 특징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가닥 바지는 모두 16~17세기 초에 만 출토되고 당시에 유행되었던 형태일 것으로 생각 된다.

둘째, 짧은 바지 가닥이 겹으로 배치가 되는 세가닥 바지 3점과 짧은 자락이 속으로 들어가는 세가닥 바지 6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이중으로 구성되어 추운날씨에 방한효과와 함께 바지를 벗지 않으면서 용변에 편리하도록 실용적인 기능의 바지로 볼 수 있다. 밀이 막히고 부리너비가 넓은 바지 위에 밀이 트이고 부리가 좁은 바지를 입었을 때 가랑이 사이로 안쪽 바지의 부리를 꺼내어 용변을 보기 때문에 틈사이로 올리기 번거로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용변을 볼 수 있도록 절충하여 만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 조선전기에는 남녀모두 속곳형태의 바지를 착용하였으며, 세가닥 바지는 남자의 바지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짧은 가닥의 부리너비가 좁은 점, 사쪽바지가 등장하는 시점부터 점차 사라진 점 등으로 미뤄보아 남자용 바지로 추정할 수 있다.

이상으로 연구된 결과는 적은 유물의 수량으로 인해 정확한 판단과 남녀용의 구분을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자도 사용했을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시의 조형적인 감각과 실용적인 의생활을 확인 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인 것에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추후 새로운 세가닥 바지가 발표되어 더 자세한 연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44 허정애, 2013, 조선시대 묘에서 출토된 치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pp.88-90.

참고문헌

『戊午燕行錄』(1798)

『喪禮備要』(1648)

『松泉筆譚』

『朝鮮王朝實錄』

강순제 외, 2015, 한국복식사전, 민속원.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00, 하천고운출토유물.

구남옥, 2002, 조선시대 남자 바지에 관한 연구, 복식 제 52권 7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7, (국역)국혼정례, 국학자료원.

권영숙 외, 2001, 진주강씨 부인 한산이씨 충주박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김동옥, 1979,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김영희, 1998, 전통 내의 문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경북.

김은정, 2001, 朝鮮時代 男女共用衣服에 관한 연구 : 衣服 名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경기.

김정순, 2007, 조선시대 출토복식을 통해서 본 바지 유형과 치수 분석 : 16~17세기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경남.

노수정, 2008, 임백령묘 출토 직금흉배 보존처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경기.

영주시, 1998, 판결사 김흠조선생 합장묘 발굴조사 보고서.

유송옥, 1992, 조선왕조 궁중의궤복식, 수학사.

이명은, 2003, 궁중발기에 나타난 행사 및 복식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경기.

이순자, 2002, 조선전기 여성 바지에 관한 연구-세가람이 바지를 중심으로-, 한복문화 제 5권 1호.

이은주, 1998, 한국 전통복식에 투영된 좌우 개념, 복식 38호.

박성실·고부자, 1991, 高揚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月軒公派 出土遺物 小考, 한국복식 제9호.

박성실, 1992, 조선전기 출토복식연구-임진왜란 이전 전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서울.

박성실, 2006, 임진왜란 이전 남녀복식의 조형적 특징, 한국복식 제24호.

박춘순, 1998, 바지의 문화사, 민속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9, 해남윤씨 굴정공파 광주출토 유물, 단국대학교 출판부.

장서각, 2008, (영인본)상방정례, 한국학중앙연구원.

조효순, 2001, 하천고운 출토 복식에 대한 소고, 한복문화 제4권 1호.

허정애, 2013, 조선시대 묘에서 출토된 치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

A Study on the Type of Three legged pants Excavated from the Tombs of the Joseon Dynasty

Hwang Jinyoung

Department of Conservation Science, National Museum of Korea

■ Abstract

The names of the pants used from the Ancient Times were variously used, and the pants of the Joseon Dynasty were worn by both men and women, but their roles were different. The man wore pants with the jacket(Jeogori) in the sense of a coat, and the woman wore pants for underwear in the jacket(Jeogori) and skirt(Chima). The pants of the Joseon Dynasty are conveyed in various forms through excavated costumes. Among them, the Three legged pants made the shorts form differently from the general pants and overlapped on one leg. Three legged pants are valuable data to confirm the characteristic type of the pants in the early Joseon Dynasty, although the excavated quantity is small.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ypes and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of Three legged pants in the Joseon Dynas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ll Three legged pants were excavated only in the early 16th and 17th centuries and were thought to be popular at the time. Second, there are three pants with short pants on the outside and there are six pants with short pants inside. Third, it is composed of double and can be seen as practical pants for convenient use without taking off pants with cold weather. Fourth, in the first half of Chosun Dynasty, both men and women wore the same type of pants, and Three legged pants seem to be used as men's pants.

Keywords : Three legged pants, Pants, Excavated clothing, 16th~Early 17th century.

경기도 포천 소재 이헌충 공과 배위 안동김씨 묘 출토 복식 고찰

이명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논문요약

2009년 10월 7일,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전주이씨 수도군파(守道君派) 문중 선산에서 조선 2대 임금 정종(定宗) 의 7남(男)인 수도군(守道君) 5세 이헌충(李憲忠 : 1505~1603)과 부인 안동김씨(安東金氏 : 1505년 생)의 쌍 분묘 이전 작업이 진행되던 중 관 속에서 복식 관련 유물 28점이 출토되었다. 이헌충 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명정 1점, 답호 2점, 철릭 4점, 액주름 1점, 바지 2점, 조대 2점, 이불 1점, 구의 1점, 관내의 조각, 떡목 1점, 소매(겹) 1쌍, 소매(홀) 1쌍, 옷감 조각 2점 등 20점이며, 부인 안동김씨 묘에서는 장저고리 2점, 저고리 1점, 적삼 1점, 치마 2점, 치마조각 2점 등 총 8점이다.

이 연구는 이헌충 공과 안동김씨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구성을 분석하여 종류별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복식사의 관점에서 특별한 사항을 논하고자하였다.

이헌충 공과 안동김씨는 100수(壽)를 누린 것으로 추정되며, 출토된 복식의 구성 분석을 통해 사망한 시기 보다 이전 시기의 유물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면, 마 제품이 모두 퇴화되고 견직물만 수습되어 겹옷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많다.

이헌충 공의 복식 중 답호와 철릭의 부분 모양 중에서 겹깃의 모양은 끝이 잘린 이중 칼깃 형태이며, 겨드랑 밑의 옆선 길이가 14~20cm의 범위로 매우 길다. 또한 철릭은 허리선을 기준하여 윗 부분과 아랫부분의 비율이 1.14~1.22 : 1의 비율로 의가 상 보다 매우 긴 편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현재 출토사례 중에서 16세기 전반기 유물에서 보이는 특징이다.

안동김씨의 저고리는 모두 목판깃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장저고리 중 1점은 깃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태이고 옆에 주름을 잡아준 형태로서 현재 16세기 전반기 유물에서만 확인되는 구성 요소이다. 이외에 세가닥바지는 겨울의 방한용 옷으로 남녀 공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안동김씨의 거들접음단 치마는 현재까지 단 2건이 소개되었으며 본 유물은 대중에게 공개되는 최초의 자료이다.

주제어 : 끝 잘린 이중 칼깃, 세가닥 바지, 장저고리, 거들접음단 치마, 접음단 치마

* Corresponding author : Lee, Myung-Eun, E-mail : joohee320@dankook.ac.kr

| 투고일 | 2019.04.05 | 심사개시일 | 2019.04.10 | 심사완료일 | 2019.05.03 | 게재확정일 | 2019.05.10

I. 서론

2009년 10월 7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 89번지에 있는 전주이씨 수도군파(守道君派) 문중 선산에서 조선 2대 임금 정종(定宗)의 7남(男)인 수도군(守道君)의 고손자(高孫子), 이헌충(李憲忠 : 1505~1603)과 부인 안동김씨(安東金氏 : 1505년 생)의 분묘 이전 작업이 진행되던 중 관 속에서 복식 관련 유물이 발견되었다.¹ 유물은 복식 전문가의 참여 없이 이장 작업자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유물은 면, 마 직물이 퇴화되어 견직물만 수습되어 겹 옷 상태로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석주선기념박물관에서 보존처리를 담당하여 완형을 갖춘 유물은 총 28점이다. 이헌충 묘에서는 명정 1점, 답호 2점, 철릭 4점, 액주름 1점, 바지 2점, 조대 2점, 이불 1점, 구의 1점, 관내의 조각, 떡목 1점, 소매(겹) 1쌍, 소매(홀) 1쌍, 옷감 조각 2점 등 20점이 수습되었으며, 부인 안동김씨 묘에서는 장저고리 2점, 저고리 1점, 적삼 1점, 치마 2점, 치마조각 2점 등 총 8점이 수습되었다.

이 글은 이헌충 공파 안동김씨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의 구성을 분석하여 종류별 특성을 알아보는데 초점을 맞추어 1차적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복식사에서 사료적 가치를 논할 수 있는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복식 구성과 바느질법에 대한 부분 명칭은 연구자의 판단으로 학계에 소개된 명칭 중 가장 보편적인 것을 선택하였으며 일부는 연구자가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II. 유물 출토 경위

2009년 10월 7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 89번지에 있는 전주이씨(全州李氏) 수도군파(守道君派) 문중 선산에서 이헌충(李憲忠 : 1505~1603) 공파 부인 안동김씨(安東金氏) 분묘 이전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장 작업은 문중 관계자와 인부들이 참석하였으며 작업 과정에 대한 어떠한 기록물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당시 책임자였던 후손 이병창² 선생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술하였다.

1 난사(蘭斯) 석주선(石宙善 : 1911~1996) 박사가 1981년에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을 개관한 이래로 한국 복식의 선두역할을 하고 있는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은 개관부터 현재까지 매년 한국 복식 관련 특별전을 개최하여 제38회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전주이씨 수도군파 5세 이헌충과 부인 안동김씨 무덤 출토 복식'전으로, 이 글은 특별전의 결과물을 학술대회를 통해 소개하는 연구이다.

2 전주이씨 수도군파 19세, 유물 기증자

수도군은 조선 2대 임금 정종(定宗 : 재위 1398~1400) 의 7남(男)이며, 묘주 이헌충 공은 수도군의 5세손이다. 왕족들은 4세손 이후 출사를 하게 되어 수도군의 종손인 이헌충 공도 중종(中宗) 17년(1522) 임오(壬午) 식년시(式年試) [진사]에 급제하여 금오랑(金五郎)으로 출사하게 되었으며 전의현감(全義縣監) 호조좌랑(戶曹佐郎) 사복시 주부(司僕寺 主簿) 공조좌랑(工曹佐郎)을 역임하였다³. 공의 배위는 안동김씨 보(堡)의 따님으로,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는데 장녀는 황면(黃冕)에게 출가하고 차녀는 우덕규(禹德珪)에게 출가하였다.

이헌충 공이 선조(宣祖) 계묘(癸卯)년 3월 30일에 98세로 돌아가시자 수도군의 묘 아래 쪽 우측에 모셨으며 이후에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되는 부인 안동김씨도 그 옆자리에 쌍분으로 모셔져 있었다. 최근에 후손들이 보기에 묘 터 자리가 그늘져 불리하여 수도군 묘소 두 단계 아래쪽의 햇빛이 드는 곳으로 이장하기로 하여 작업이 시작되었다.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헌충 공의 묘부터 작업을 하던 중에 일반적으로 지석이 놓이는 위치의 묘 앞쪽 자리에서 태항아리로 추정되는 도자기 1점과 뚜껑으로 추정되는 접시 1점이 발견되어 수습하였으며 이는 현재 문중에서 소장 중이다.

파묘를 하였더니 회곽이 관처럼 각이져 관을 둘러싸고 있었으며 관이 드러나니 주위에 물이 가득하였다. 관 뚜껑 위에는 명정이 놓여있었고 옷감(후에 구의로 밝혀짐)도 있었다. 관 뚜껑을 열었더니 물이 가득 차 있었으며 관 안의 내용물은 바닥에 내려앉은 상태였다. 옷을 낚으로 자르고 시신을 보니 육탈이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상투까지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부인 안동김씨의 묘는 이헌충 공의 묘 조성에 비교하여 관을 싸고 있는 회곽도 얇고 곤도 부실하여 전체적으로 소략한 편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문중에서는 이헌충 공보다 몇 년을 더 생존하여 백수를 누렸다고 보고 있으나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장 작업이 완료되어 시신은 선조인 수도군 묘의 아래 쪽에 위치한 새 묘터로 옮기고 안동김씨의 묘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이장하였다. 관에서 나온 옷들은 눈에 뜨는 것만 수습하여 관 뚜껑 위에 보관해 두었다. 후손 이병창 선생은 다음날인 8일에 이견식 교수(현,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⁴를 통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관계자에게 유물 출토 상황을 알리고 기증 의사를 밝혔다. 박물관에서는 이명은·채정민 학예사의 책임 아래 학생들이⁵ 오후 2시에 포천 출토지에 도착하였다. 도착 당시의 묘 터 상황은 관 뚜껑 위에 옷들이 널려 있었으며 이헌충 공과 안동김씨의 옷은 분리하여 보관되어 있었다. 유물은 물과 흙이 뒤섞인 채로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흙이 옷 전체에 묻어 있는 상태였다. 석주선기

3 全州李氏 守道君派譜編輯委員會, 2013. 全州李氏 守道君派譜, (株)家乘미디어. 참조

4 전주이씨 덕천군파 후손, 당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5 2009년 10월 8일 유물 수습 참여자 : 김지혜, 김진영, 남예지, 안전혜, 차서연, 최경희(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2009년 유물보수 수업 수강자)

넬박물관은 유물 이관 2주 후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재학생들이 참여하여 유물 상태 파악과 거품 작업을 실시하였다.⁶ 거품이 완료된 유물들은 다시 상자에 넣어 훈증 소독 완료 후 수장고에 보관하였다. 2009년 10월~12월 사이에 박물관 연구원들이 간헐적으로 세척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다시 수장고에 보관하였다. 전시 준비를 위해 2017년 후반부터 유물을 재정리하였는데, 유물은 땅속에서 이미 훼손 되었거나, 비전문가 작업자들이 이장 작업시 낚으로 찢어서 수습하였기 때문에 유물 형태는 매우 불량하였다. 이에 대한 보수 작업을 1년 가까이 실시하여 전시를 앞두고 완료하였다. 유물 보수 작업은 한광순(석주선기념박물관 연구원), 박영애(국가무형문화재 제89호 침선장 전수조교)가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보존처리가 완료되어 총 28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⁷(표 1), (표 2) 참조) 유물은 이장 작업자에 의해 작업 중 눈에 띄는 대로 수습하였고, 면·마 직물이 퇴화되고 견직물만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아 원래는 더 많은 다양한 복식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Ⅲ. 이헌충 묘 출토 유물

이헌충(李憲忠 : 1505~1603) 공의 묘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20점이다. 종류는 명정 1점, 답호 2점, 철릭 4점, 액주름 1점, 바지 2점, 조대 2점, 이불 1점, 구의 1점, 관내의 조각, 먹목 1점, 소매(겹) 1쌍, 소매(홀) 1쌍, 옷감 조각 2점이다. 이 가운데 복식류는 모두 12점이며 나머지는 염습에 사용된 제구들과 짝을 알 수 없는 옷감 조각들이다.(표 1) 참조)

표 1. 이헌충 묘 출토 유물 목록

(단위 : cm)

순번	유물 번호	유물 명칭	유물	구성	소재 (겹, 안감 동일)	총길이	화장 /기타	뒷품 /기타	진동	수구
1	B11470	명정		홀	초(綃)	길이 201	너비 62			
2	B11471	답호		겹	주(紬)	앞136 뒤144.5	50	68	52.5	51

6 2009년 10월 14일 거품 작업 참여자 : 김지혜, 김진영, 남예지, 안전혜, 최경희

7 이헌충 공의 후손 이병창 선생은 후학들을 위하여 28점의 유물을 단국대학교에 기증하였다. 석주선기념박물관은 2019년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민속·복식 분야 제38회 특별전 “전주이씨 수도군파 5세 이헌충과 부인 안동김씨 묘 출토복식”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유물을 공개하였다.

순번	유물 번호	유물 명칭	유물	구성	소재 (겉, 안감 동일)	총길이	화장 /기타	뒷품 /기타	진동	수구
3	B11472	답호		겹	주(紬)	141.5	50.5	68	48	47.5
4	B11473	철릭		겹	주(紬)	125 (66.5+58.5)	123.5	67	46	34.5
5	B11474	철릭		겹	주(紬)	128.5 (70+57.5)	123.5	66.5	47.5	37.5
6	B11475	철릭		겹	주(紬)	123 (67+56)	124	67	43.5	35
7	B11476	철릭		겹	주(紬)	125 (69+56)	123	67	45.5	34.5
8	B11477	액주름		누비	주(紬)	120.5	118	69	41.5	34.7
9	B11478	세가닥바지		누비	주(紬)	102.5	허리둘레 114	부리 60		
10	B11479	바지		겹	주(紬)	113	허리둘레 117	부리 61		
11	B11480	조대		끈목	견사	780(추정)	두께 0.3			
12	B11481	조대		끈목	견사	720(추정)				
13	B11482	이불		겹	주(紬)	212	너비 220			
14	B11483	구의		홀	주(紬)	가로 65	세로 427			
15	B11484	관내의 조각		홀	주(紬)	가로 42	세로 163			
16	B11485	먹목		겹	주(紬)	가로 34	세로 33			

순번	유물 번호	유물 명칭	유물	구성	소재 (겉, 안감 동일)	총길이	화장 /기타	뒷품 /기타	진동	수구
17	B11486	소매1쌍		겹	주(紬)	길이 85	너비 45			
18	B11487	소매1쌍		홀	주(紬)	길이 63	너비 33.5			
19	B11488	옷감조각		홀	주(紬)	길이 99	너비 34			
20	B11489	옷감조각		홀	주(紬)	길이 102	33.5			

1. 답호

1600년대 전반까지 관리들이 단령이나 직령을 입을 때 받침옷으로 입거나, 일상에서 겹 옷 위에 덧입던 반소매형 옷이다. 직령이 단령과 대비되어 깃 모양만 칼깃이라면, 답호는 직령과 모양이 같고 소매만 짧은 옷이다. 이현충 공의 묘에서 출토된 답호는 2점이며 모두 주(紬)로 겹 옷이다.

(1) [B11471] 답호

주(紬)를 겹으로 하여 만들었다. 끝 잘린 이중 칼깃 모양의 짧은 소매에 전단후장(前短後長) 형이 특징이다. 크기는 뒷길이 144.5cm, 앞길이 136cm, 화장 50cm, 뒷품 68cm이다.

깃 모양은 끝 잘린 이중 칼깃⁸ 형태로서 깃너비 15.5cm를 6.7cm와 8.7cm로 접어주어 안쪽에서 꼬집어⁹ 박아 겹에서 볼 때 이중 깃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겹깃의 끝을 3cm 정도를 직선이 되도록 하여 칼깃의 끝이 잘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안깃은 3.5cm 정도 들어 달아준 목판깃 형태이다. 고름은 2쌍 고름의 흔적만 남아있으며 동정도 소실된 상태이다.

겉섶은 옷감을 1폭 반을 이어 붙인 이중섶 형태를 나타낸다. 소매는 어깨에서 시작하는 길이가 16cm 정도로 매우 짧다.

무는 상부를 안팎주름형¹⁰으로 접어주고 아래쪽은 접지 않고 자연스럽게 펼쳐진 형태이

8 이은주, 2010, 8, 출토복식을 통한 정담(丁淡, 1476~?)의 물년 추정, 한복문화 제13권 2호, 한복문화학회, pp.169~170. 이은주는 이중 칼깃에서 끝이 잘린 형태로 파악하여 이현충공의 답호와 같은 겹깃 모양을 “끝 잘린 이중 칼깃”이라 명칭하였다.

9 이주영, 2009, 여산송씨일가묘 출토 남자 포의조형 및 구성 특성, 옷섬 사이로 비치는 조선, 대전선사박물관, p.170. 이주영은 이중칼깃을 표현하기 위하여 반접어 끝끝이 박아준 바느질법 묘사를 “꼬집어 박아주었다”고 표현하였다.



그림 1. [B11471] 답호의 앞-펼침-뒤.



그림 2. 끝 잘린 이중 칼깃과 2쌍 고름 흔적.



그림 3. 안주름 상태.

다. 옆선을 기준하여, 길 안쪽으로 접어준 5.5cm 너비 안주름과 옆선에서 바깥으로 이어져 접어준 20cm 너비의 바깥무로 구성되어있다. 무를 펼치면 51cm가 된다. 무의 상부는 길에서 평행이 되도록 홈질한 후 하향(下向) 삼각 형태로 안쪽으로 접어주었다. 무 시작점에 부착하여준 무 바대는 겹으로 드러나 곱게 박음질하였다.

형태를 완성한 후 수구와 도련은 6cm 들어가서 3cm 간격으로 2쌍 상침하여 주었다.

(2) [B11472] 답호

소매가 매우 짧고 앞과 뒤의 길이가 같은 답호이다. 길감과 안감을 주(紬)로 만든 겹 옷으로 유물 수습 당시 등쪽에 조대[B11480]가 둘러진 모양으로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아 수의로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이다. 크기는 뒷길이 141.5cm, 화장 50.5cm 뒷폭 68cm이다.

깃 모양은 끝 잘린 이중 칼깃 형태이다. 너비 15cm의 깃을 6.5cm와 8.5cm가 되도록 길이로 접어주고 꼬집어 박아주어 이중 칼깃 모양을 만든 후 깃 끝을 2.5cm 정도 직선이 되도록 깃 모양을 만들었다. 안깃은 목판깃 형태로, 4.5cm 들어 달아 곱게 박음질하였다. 어깨에서 시작하는 소매 길이가 16.5cm 정도로 매우 짧다. 길섶은 옷감 폭 반을 이어 붙

10 이은주·김미경, 2019, 선조대(宣祖代) 공신초상(功臣肖像)의 복식 고찰, 文化財 Vol 52, No.1, 국립문화재연구소, p.124. 이은주는 안쪽으로 접어 넣은 작은 주름과 밖으로 내놓은 큰 주름으로 구성된 모양을 '안팎주름 무'라고 명칭하였다.



그림 4. [B11472] 답호의 앞-펼침-뒤.



그림 5. 무 펼친 모습.



그림 6. 겹면에 부착된 무 바대 모습.

인 이중썬 형태를 나타낸다.

무는 안팎주름형으로, 진동점에서 14cm 내려와서 부착되었다. 모양이 상부가 하향 삼각 형태이고 옆선을 기준하여 길 안쪽으로 접힌 너비 4.5cm의 안주름과 옆선에서 바깥으로 이어져 접힌 너비 19cm의 바깥무로 구성되어있다.

전체적으로 [No.11471] 답호와 비교했을 때 옷길이 형태만 다르고 같은 양식을 보인다.

2. 철릭[帖裏]

철릭은 1500년대 묘에서 많이 출토되는 남자 복식 중의 하나이다. 칼깃형의 상의[衣]와 치마형태의 하의[裳]가 허리에서 연결된 옷으로 평상복으로 착용하기도 하고 철릭 위에 답호를 겹쳐 관복 받침옷이나 용복(戎服)으로도 입었다. 이현충 묘에서 출토된 철릭은 4점으로 모두 겹 옷 상태이며, 그 가운데 탈착식 소매로 구성된 철릭 2점이 있다.

(1) [B11473] 철릭

주(紬)를 겹으로 하여 만들었다. 끝 잘린 이중 칼깃 모양을 한 의(衣)와 허리춤에 잔주름¹¹을 준 상(裳)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가 상 보다 길다. 크기는 뒷길이 125cm(衣 : 66.5



그림 7. [B11473] 철릭의 앞-펼침-뒤.



그림 8. 겹주름 모습.



그림 9. 안주름 모습.

裳 : 58.5), 화장 123.5cm 뒷폭 67cm이다.

깃 모양은 끝 잘린 이중 칼깃 형태이다. 깃 너비 14.8cm를 너비 반 정도[6.5+8.3cm] 안에서 꼬집어 박아서 겉에서 보았을 때 이중깃 형태로 나타나며, 깃을 만들 때 겉 깃 끝이 2.5cm 정도 직선에서 끝을 잘라준 듯한 모양을 하고 있다. 깃달이를 할 때 속에 솜을 얇게 두었으며 완성 후 너비 5.7cm의 동정을 달아주었다. 겉깃 아래와 오른쪽 옆선 뒤편에는 너비가 각각 다른 직접 부착형 고름 2쌍이 달렸던 흔적이 남아있다. 4.5cm의 넓은 고름은 아래에, 2cm 너비의 좁은 고름은 위쪽에 박음질로 부착한 흔적이다. 안고름은 소실되어 없다.

소매는 통수형으로, 옷길리와 화장이 같으며 팔을 내렸을 때 땅 끝에 닿을 정도로 길다. 겨드랑 아래에서 하의 주름선까지는 16cm로 옆선 길이가 긴 편이다.

상은 겉감 너비 34cm 옷감을 13폭 이어 붙여 치마처럼 0.2cm 정도 정교하게 잔주름을 잡았고 안감은 0.6~0.8cm 정도로 겉감 보다는 넓게 주름 잡았다. 그리고 안섵 쪽의 상은 섵선에서 24.5cm 정도까지 주름 주지 않고 나머지 14cm 정도만 주름을 잡아주었다. 겉길과 여밈하였을 때 주름으로 인해 지나치게 풍성해지는 것을 배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옷을 완성한 후 깃, 수구, 도련의 가장자리를 2뿔 상침으로 마무리 하였다.

11 이주영, 2009, 앞의 책, p.171.

이주영은 철릭과 액주름의 주름 양식에 대해 주름 나비가 0.1~0.2cm 정도를 “잔주름”, 주름 너비 2~3cm 정도를 “큰주름”이라 명칭하였다.

(2) [B11474] 철릭

활을 쓰기에 편리하도록 양쪽 소매가 탈착식으로 구성된 겹 철릭이다. 겹감과 안감을 주(紬)로 만들고 연화문단 고름 바대를 부착하였다. 끝 잘린 이중 칼깃 모양을 한 의와 허리춤에 잔주름을 준 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기는 뒷길이 128.5cm(衣 : 70 裳 : 57.5), 화장 123.5cm 뒷폭 66.5cm이다.

깃 모양은 끝 잘린 이중 칼깃 형태이다. 깃 너비 15cm를 너비 반 정도[6.7+8.2cm] 안에서 꼬집어 박아서 겹에서 보았을 때 이중깃 형태로 나타나며 칼깃형태의 겹 깃 끝 2cm 정도가 직선으로 구성되어 끝이 잘린 듯한 모양이다. 안깃은 옆선에서 1.5cm 정도 들어달렸다. 깃에는 너비 5.5cm의 동정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겹깃 아래와 오른쪽 옆선 뒤쪽에 직접 부착형 고름[너비 2.2cm] 2쌍이 연화문단이 사용된 직사각형의 고름 바대 위에 박음질되었던 흔적이 남아있으며 속고름은 왼쪽에 한 개만 남아있다.

소매는 몸통에 부착된 짧은 소매와 별도의 긴 소매가 단추를 이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었다. 몸통쪽 화장은 45cm, 긴소매는 85cm의 길이로써 몸통쪽에 암단추, 긴소매 쪽에 수단추가 앞 3쌍, 뒤 3쌍, 상하 1쌍씩 모두 8쌍을 달았다. 단추는 쌍밀이 형식이다. 소매 연결 부분에는 5.5cm 너비 안단을 덧대어 주었다.

진동점에서 옆선으로 20cm 정도 내려와서 허리선에서 잔주름 잡힌 상을 달아 주었다. 겹감은 35cm 너비 15폭을 이어 만들어 0.2cm 정도로 잔주름을 잡았고 안감은 0.8~1.2cm 정도로 겹감 보다는 주름이 넓은 편이다. 이때 안섶 쪽의 32cm 까지는 주름을 잡지 않았다.



그림 10. [B11474] 철릭의 앞-펼침-뒤.



그림 11. 소매 여밈 단추.

그림 12. 고름 바대.

허리선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가 1.21 : 1의 비율로 의가 매우 긴 편이다.

겉섶은 1.5cm 너비로 선단으로 마무리하였으며 도련은 가장자리 안쪽으로 4cm 들어가서 5cm 간격으로 2땀 상침으로 마무리 하였다.

(3) [B11475] 철릭

겉감과 안감을 주(紬)를 사용하여 만든 겹 철릭이다. 끝 잘린 이중 칼깃 모양을 한 의와 허리춤에 잔주름을 준 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겨드랑이 아래 사각접은 삼각무가 달렸다. 크기는 뒷길이 123cm(衣 : 67 裳 : 56), 화장 124cm 뒷폭 67cm이다.

겉깃 모양이 끝 잘린 이중 칼깃 형태이다. 소매는 길이가 길고 통수형이며 겨드랑 아래 옆선에 5.8×5.8cm 크기의 사각접은 삼각무가 달려 있다. 겉깃 아래와 오른쪽 옆선 뒤쪽에는 너비 2cm와 6cm의 직접 부착형 고름 2쌍이 부착되었던 흔적이 있으며 너비 1.8cm 속고름 흔적도 남아있다. 겨드랑 밑 길이는 14cm 이다.

의와 허리춤에 잔주름을 준 상으로 구성되어 의가 상보다 1.19 : 1의 비율로 다소 긴 편이다. 상은 14폭을 이어 만들어 0.2cm 잔주름을 잡았고 안감은 1cm 내외로 넓게 주름 잡았다. 의에 상을 부착할 때 안섶 쪽의 25.5cm 정도까지는 주름이 없다.

옷을 완성한 후 깃, 수구, 섶, 도련의 가장자리는 끝에서 0.8cm 들어가서 곱게 홈질로 둘러주었다. 철릭의 경우 솜 옷의 가장자리에 표현되어있는 바느질 기법으로, 이 유물은 현재는 솜이 퇴화되어 없으나 옷을 제작하였을 당시에는 솜 철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13. [B11475] 철릭의 앞-펼침-사각접은 삼각무.

(4) [B11476] 철릭

겉감과 안감을 주(紬)로 만든 겹옷이다. 활을 쏘기에 편리하도록 양쪽 소매가 탈착식으로 구성되어 끈으로 소매를 여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크기는 뒷길이 125cm(衣 : 69 裳 : 56), 화장 123cm 뒷폭 67cm이다.

깃 모양은 이중선이면서 끝이 잘린 칼깃 형태이며 6cm 너비의 동정이 달렸던 흔적이 남아있다. 깃 끝에는 두쌍 고름과 고름 바대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림 14. [B11476] 철릭의 앞-펼침-뒤.



그림 15. 속고름 모습.



그림 16. 소매 여밌 끈.

소매는 몸통에 부착된 짧은 소매와 별도의 긴 소매로 구성되어 너비 0.5cm, 길이 14.7cm의 끈을 이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몸통쪽 화장은 44cm, 긴소매는 89cm의 길이로서 여밌하였을 때 약 8.5cm가 겹쳐진다. 끈은 앞 3쌍, 뒤 3쌍, 상하 1쌍씩 모두 8쌍을 달아 주었으며 현재 끈 2개가 남아있다.

진동점에서 18cm 정도 옆선을 내려와서 허리춤에 잔주름을 준 상을 부착하였다. 상은 36.5cm 너비 13폭에 15cm를 더하여 이어 만들고 0.2cm 잔주름을 잡았고 안감은 0.3~0.6cm 내외로 불규칙하게 주름 잡았다. 의에 상을 부착할 때 안설희쪽의 30cm 정도까지는 주름이 없으며, 허리선을 기준으로 하여 의와 상의 길이는 1.22 : 1의 비율로 의가 길다.

옷 형태를 만든 후 도련의 가장자리 3.5cm 들어가서 4cm 간격으로 3땀 상침하였으며, 탈착식 소매의 연결 부분도 가장자리에서 3cm 들어가서 5cm 간격으로 3땀 상침하여 주었다.

3. [B11477] 액주름[腋注音]

임란 직후까지 남자들이 입은 일상복의 하나로, 신분 낮은 자들이 외출복으로도 입었다. 겨드랑이 아래에 주름이 잡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물은 겹감과 안감을 주(紬)로 하고 사이에 솜을 두어 2cm 내외 간격으로 줄줄이 누벼



그림 17. 액주름[B11477]의 앞-펼침-뒤.



그림 18. 액주름의 겹주름과 속주름 모습

준 누비 옷이다. 현재는 솜이 퇴화되어 겹 상태로 남아있다. 크기는 뒷길이 120.5cm, 화장 118cm 뒷폭 69cm이다.

깃 모양은 끝 잘린 이중 칼깃 형태이며, 너비 14cm 깃에 5.5cm 너비 동정을 달아주었다. 진동점에서 주름선까지의 옆선 길이가 20cm 정도로 긴 편이며 주름 기준하여 상부 길이 61.5cm, 하부 61.5cm로 상하 비율이 같다. 겨드랑 아래에는 작은 사다리꼴무가 달렸다. 허리선 아래 옆선에는 무를 달아 위쪽을 잔주름 잡아주었는데 무는 사다리꼴+직사각형-사다리꼴로 구성되었다. 겹깃과 오른쪽 옆선에는 넓은 고름과 좁은 고름의 2쌍 고름을 달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도련은 눈썹단으로 마무리하였다.

4. 바지류

출토된 바지는 2점이다. 1점은 바지 가닥이 3개로 구성된 바지이며, 나머지는 삼각당이 달린 개당고형이다.

(1) [B11478] 세가닥 바지

조선시대 복식 중에는 바지의 가랑이가 3가닥으로 구성된 특이한 형태의 바지가 있다. 대부분 1600년대 초반까지 사대부 집안의 무덤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주로 솜옷이나 솜누

비옷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학계에서 ‘세가닥 바지¹²⁾’ 또는 ‘세가람이 바지¹³⁾’라 칭하고 있다. 그 모양은 밑이 막힌 바지인 합당고(合襠袴)와 밑이 트인 바지인 개당고(開襠袴)가 혼합된 형태이면서 바지 한 쪽은 가람이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이 겹쳐져 2중으로 되어있다. 또한 짧은 가람이가 겹으로 드러난 것과 속으로 들어가 있는 2가지 형태가 있다. 연구자는 편의상 이 바지를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세가닥 바지로 명명하였다.

이현충 묘에서 출토된 세가닥 바지는 겹감과 안감을 주(紬)로 만들고 1.6cm 간격으로 줄줄이 누벼준 누비바지이다. 누비 땀은 0.6cm 간격으로 성글게 누벼준 것으로 보아 원래는 숨을 두텁게 두어 누빈 숨누비로 추정된다. 크기는 총길이 102.5cm, 겹가닥 길이 89cm, 겹가닥 부리 65cm, 속가닥 길이 65.5cm, 속가닥 부리 65cm, 허리둘레 57cm, 말기 너비 15.7cm이다.

짧은 가닥과 긴 가닥으로 구성된 단속곳 형태의 합당고(合襠袴 : 밑 막힌 바지)를 만든 후 짧은 가닥의 겹면 쪽에 개당고(開襠袴 : 밑트인 바지) 형식의 긴 바지 가닥이 겹치도록 만들었다. 완성 후 바지 한 쪽은 길이가 긴 것과 짧은 바지 가닥이 겹쳐져 2중으로 완성된다.

합당고형은 밑변 25cm, 윗변 5cm, 길이 44cm 크기의 사다리꼴 당을 부착하여 긴가닥과 짧은 가닥을 붙여 주었으며 짧은 가닥의 경우 너비 4cm 넓게 누벼주었다. 완성 후 짧은 가닥의 밑아래 길이는 26cm가 된다. 개당고형 긴 바지는 허리선 중심에서 아래로 38.5cm 내려와서 사각접은 삼각형 당을 부착하여 밑이 트이도록 하였다. 이때 삼각형 당은 1.2cm 간격으로 누벼주었다.

완성된 가닥을 2중으로 겹친 후 허리 주름을 잡아줄 때 긴가닥과 짧은 가닥을 겹쳐 한꺼번에 주름을 잡아주었다. 주름은 5.5~6cm 크기로 넓게 좌측 3개, 우측 4개의 외주름을 잡아주었으며 옆트임을 향하고 있다. 주름을 완성한 후 허리말기를 부착하였는데, 허리 말기는 2.5cm 너비로 가로 세로 모두 누벼주어 마치 바둑판 형식으로 누빔이 되어있다. 말기 옆에서 15.5cm 크기로 옆트임을 주어 착장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옆트임 시작 부분에



그림 19. 세가닥 바지[B11478]의 앞-세가닥 펼침-무 상태.

12 구남옥, 2002, 조선시대 남자 바지에 관한 연구, 복식 제 52권 7호, 한국복식학회, pp.50~53.

13 이순자, 2002, 조선전기 여성 바지에 관한 연구-세가람이 바지를 중심으로-, 한복문화 제 5권 1호, 한복문화학회, p.6.

1.2cm 정도 사뜨기를 하여 주었다. 옆트임과 바지 부리는 1cm 들어가서 0.5cm 간격으로 성글게 흠질 상침하여 주었다.

완성된 옷을 겹에서 볼 때, 겹면은 좌우 길이와 누비 간격이 동일한 긴 가닥 2개이며, 안은 누비 간격이 넓은 짧은 가닥이 겹쳐져 있는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2) [B11479] 바지

겉감과 안감을 주(紬)를 사용하여 만든 개당고(開襠袴)형 솜바지이다. 허리 트임은 뒤 부분에 있으며 밑이 트인 바지 가랑이 좌우에 사각접은 삼각 형태의 당(襠)이 달린 것이 특징이다. 총길이 113cm, 허리둘레 117×14cm, 바지부리 61cm의 크기이다.

옷감 2폭 반을 이용하여 바지통을 각각 만들고 허리선 중심에서 아래로 41cm 내려와서 사각접은 삼각 형태의 당을 좌우로 달아 주었다. 바지 상부를 주름 잡은 후 좌우 측의 상부가 15cm 정도 겹치도록 하여 허리말기를 달았다. 허리끈은 소실되어 너비 6cm의 흔적이 남아있다. 바지 부리의 가장자리에서 4cm 올라간 지점에 드문 드문 두 땀 상침을 둘러주었다. 밑위 길이 41cm, 밑 아래 길이 34cm이다.



그림 20. 바지[B11479]의 앞-뒤-무상태.

5. 조대(條帶)

조대[B11480]는 원형으로 둥글게 연결된 끈목에 술 1개가 걸려 있는 구조로, 이현충 공이 입고 있던 답호[No.11472]의 허리에 둘러져 있었다. 크기는 길이 780cm(추정), 굵기 0.3cm, 술 길이 3.5cm이다.

속심으로 넣어준 면사(綿絲)가 소실되어 겉면만 남아 있다. 16사(絲) 원다회(圓多繪)를 둥근 형태로 만들어 양끝을 연결한 후, 망을 떠서 연결 부위를 감추어 원형이 되도록 하였으며 방울술[方兀蘇兀]¹⁴을 만들어 끈에 걸어 술을 완성하였다. 방울술은 한지와 면사실로 속을 만들고 위쪽에는 망과 망수를, 아래쪽에는 술을 꼬아 돌렸다.



그림 21. 원형상태의 조대[B11480].



그림 22. 방울술

이와 같은 유물은 이미 출토 사례가 있어,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 전주이씨 문양군 이계윤의 세조대, 개인 소장의 미발표 유물 노수함의 세조대, 대전시립박물관 소장 송희종의 세조대, 경기도 박물관 소장 청주양씨(16세기 중후반 추정) 묘 출토 세조대¹⁵ 등과 동일한 구조이다. 이 들 유물은 길이 400~450cm 내외의 크기이다. 이를 기본으로 한다면 본 유물은 면실이 소실되어 견사가 늘어진 상태로서 원래 길이는 현재 보다는 짧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방울술은 속에 고정된 실이 늘어진 상태로 보관되어있으며, 망 속에는 원래 금전지를 씌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조대[B11481]는 일부분만 남아있어 완형은 알 수 없다. 현재는 16사(絲)로 엮은 납작한 상태로 남아있으나 면사로 만든 속심이 소실되었기 때문이며, 원래는 원다회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6. 기타

위의 복식 이외에 염의와 치관을 꾸몄던 유물로 명정 1점, 이불 1점, 구의 1점, 관내의 조각 1점, 떡목 1점, 소매 2쌍, 옷감 조각 2점 등이 있다.〔표 1〕 참조

명정은 장사를 지낼 때 죽은 사람의 성명을 적어 신분을 밝혀 놓은 명기(銘旗)이다. 하관(下棺)을 마치면 축(軸)을 제거하고 명정을 관 위에 씌워서 묻어준다. 유물은 이현충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품계-관직-본관 성씨의 순서로 ‘通訓大夫 行 工曹正郎 李公之柩’를 얹은 평견직물에 묵서하였다. 이현충은 정3품 동반 문관의 당하관 최상의 품계로, 실제 임무는 그 보다 낮은 공조좌랑을 역임하였으나 사망 후 정5품 관직인 공조정랑 직을 추증 받았다.

14 박진영, 2009, 조선시대 공신화상 유소(流蘇)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문화재대학원, 경기도, p.38.
유물과 같은 모양을 한자어 “方兀蘇兀(『(正祖)國葬都監儀軌』 卷3)”, 한자어 “방울술”이라 명칭한다.

15 경기도 박물관, 2015, 청주양씨 기증 유물전, pp.255~269.

이불은 속에 들어있는 이물질 찌꺼기가 많아 솜 이불로 추정되나 현재는 겹 이불 상태로 있다. 겹감과 안감을 주(紬)로 만들었으며, 겹감은 33cm 너비 6폭에 20cm를 이어 만들었다. 동정 13.5cm, 깃 33cm, 길 165.5cm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는 수습 작업의 미숙으로 완형을 갖추지 못한 유물들이다.

IV. 안동김씨 묘 출토 유물

이현충 공의 부인 안동김씨(1505년 生의) 무덤에서 출토된 유물은 총 8점이다. 유물 종류는 장저고리 2점, 저고리 1점, 적삼 1점, 치마 2점, 치마 조각 2점이다. 이장 작업 당시

표 2. 안동김씨 묘 출토 유물 목록

(단위 : cm)

순번	유물 번호	명칭	유물	구성	소재 (겹, 안감 동일)	총길이	화장 /기타	뒷폭 /기타	진동	수구
1	B11490	장저고리		겹	주(紬)	80	90	65.5	35.5	27.5
2	B11491	장저고리		겹	주(紬)	81.5	91	72	34	29.5
3	B11492	저고리		겹	주(紬)	52.5	69.5	67.2	27.5	24
4	B11493	적삼		겹	주(紬)	58	61	61	31	29
5	B11494	치마		겹	주(紬)	98	허리둘레 105	폭 484		
6	B11495	치마		겹	주(紬)	90	허리둘레 77	폭 450		
7	B11496	치마조각		누비	주(紬)	길이 90	폭 180			
8	B11497	치마조각		겹	주(紬)	길이 92	폭 125			

확인된 바로는 부인의 모는 이현충 공의 무덤보다 소박하게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문중에서는 이현충 공 보다 몇 년을 더 생존하여 백수를 누렸다고 보고 있으나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출토된 복식의 시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복식의 특징을 살필 때 주목하고자 한다.

1. 저고리류

저고리류는 모두 4점이 출토되었다. 2점은 장저고리¹⁶이며, 1점은 그 보다 짧은 길이다. 나머지 한점은 겹 적삼이다.

(1) [B11490] 장저고리

짧은 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덧입는, 길이가 긴 여성용 저고리이다. 유물은 겹감과 안감을 주(紬)로 사용한 겹옷으로, 깃의 길이가 좌우가 같은 맞깃형이고 쉼머리에 주름이 잡힌 것이 특징이다. 옆선에는 ㄱ자형 한쪽무를 달아주어 도련 너비가 품보다 넓고 풍성하며 옆선이 트여있다. 크기는 뒷길이 80cm, 화장 90cm, 뒤편 65.5cm이다.

깃은 너비 10.5cm 넓이이며, 겹깃과 안깃은 41cm로 길이가 동일하며 모두 쉼선 안으로 들여달린 목판깃¹⁷의 맞깃 형태이다. 깃에는 너비 5cm 정도의 동정을 달았던 실 땀 흔적이 남아있다. 깃 아래 달린 쉼을 주름 잡아주었는데, 겹쉼에는 겹주름 1cm 너비, 속주름 1.8cm 너비로 주름이 잡혀 있으며, 안쉼은 1~1.5cm 너비로 겹주름과 1.5cm 너비 속주름을 잡아주어 쉼이 입체적으로 완성되었다. 겹깃 끝과 안깃 6.5cm 들어간 지점에 약 1.7cm 너비의 자주색 고름 흔적이 남아있으며 안고름은 제작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소매는 진동에서 줄어들면서 수구로 이어지는 완만한 일자형이며 화장이 90cm로 매우 길다. 겨드랑이 아래 옆선에 ㄱ자형 한쪽무를 달아주고 옆에 31cm 정도 트임을 주었다. 옷을 완성한 후에 수구는 4.5cm 간격으로 2땀 상침하여 주었으며, 쉼, 옆트임, 도련의 가

16 박성실, 1992, 朝鮮前記 出土服飾 研究-임진왜란 이전시기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참조. 장고리에 대해서는 인목왕후(仁穆王后) 『빈전혼전도감의궤(仁穆王后殯殿魂殿都監儀軌)』(1632년)에 소렴(小簾)의 내비(內備)로 초록필단장저고리(草綠匹段長赤古里)을 마련한 기록으로 있으나 저고리 길이의 정도는 알 수가 없다. 현대에서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1500년대 출토 복식 중에서 80cm 전후의 길이를 가진 여성의 저고리를 장저고리라 부르고 있다.

17 겹깃 명칭은 현대에서 복식학자들이 겹깃의 모양을 본 따 만들었거나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명칭이다. 모양의 변천은 16세기의 목판깃-17세기의 목판당코깃-19세기 후반의 당코깃-20세기의 둥그레 깃의 순이다.



그림 23. [B11490] 장저고리의 앞-펼침-뒤.



그림 24. 겹섶의 주름 잡은 모습



그림 25. 안섶의 주름 잡은 모습

장자리는 안 쪽으로 0.6cm 정도 들어가 흠질로 곱게 상침으로 돌려주었다.

이 옷은 옆선에 달린 무로 인하여 도련으로 갈수록 곡선으로 넓어져 사선으로 보여 옷 품 보다 넓고 풍성하다. 그리고 옆을 터 주어 치마를 갖추어 입었을 때 치마의 풍성함을 유지 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맞깃 형태로 구성되었으나 옷을 여밈하여 고름을 매었을 경우 약 5cm 정도 깃이 겹치게 된다. 현재 동정이 소실되었으나 남은 흔적으로 동정을 달렸을 경우 동정의 모습이 좌우 대칭이 되는 구조이다.

(2) [B11491] 장저고리

겉감과 안감에 주(紬)를 사용하여 만든 겹 옷이다. 움직일 때 안가닥이 보이는 것을 염두 해 두고, 안감의 깃, 섶, 무 부위는 안감 보다 곱게 짠 겉감을 사용하였다. 옆선에는 한쪽 무가 달려있어 도련이 넓고 풍성하며 옆선이 트여있다. 크기는 뒷길이 81.5cm, 화장 91cm, 뒤편 72cm이다.

깃은 너비 13cm 넓이이며, 겉깃과 안깃 모두 섶선 밖으로 내어달린 목판깃 형태이다. 깃에는 너비 5cm 정도의 동정을 달았던 실 땀 흔적이 남아있다. 겉깃 끝에는 약 1.8cm 너비의 고름 흔적이 남아있으며 안고름은 제작 당시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소매는 진동에서 줄어들면서 수구로 이어지는 완만한 일자형이며 화장이 91cm로 매우 길다.

저드랑이는 무를 달아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옆선에 ㄱ자형 한쪽무를 달아주고 옆에 34cm 정도 트임을 주었다. 옷을 완성한 후에는 목선과 닿는 깃 가장자리를 0.7cm 안으로



그림 26. [B11491] 장저고리의 앞-펼침-뒤.



그림 27. 겹감



그림 28. 안감



그림 29. 안감의 셔

들어가서 곱게 흠질 상침하였으며 수구, 옆트임, 도련의 가장자리는 안 쪽으로 들어가 4cm 간격으로 2땀 상침하여 마무리하였다.

이 옷은 옆선에 달린 무로 인하여 도련으로 갈수록 곡선으로 넓어져 사선을 보이며, 도련 너비가 94cm로 옷 품 보다 넓고 풍성하다. 그리고 활동에 편리하도록 옆을 터 주어, 치마를 갖추어 입었을 때 치마의 풍성함이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3) [B11492] 저고리

치마와 함께 입는 여자의 기본 옷옷이다. 몸판은 주(紬)로 만들고 겹감의 깃, 끝동, 사다리꼴무는 운보문단이며 겨드랑 아래 사각접은 삼각무, 겹셔, 안셔는 연화문단을 사용하였다. 옆선에 사각접은 삼각무와 사다리꼴무의 2쪽무를 달아 도련이 옷 품보다 넓고 풍성하다. 뒷길이 52.5cm, 화장 69.5cm, 뒷품 67.2cm이다.

깃은 너비 11.5cm의 목판깃 형태로, 길이 41cm의 겹깃은 내어달린 목판 깃이며 길이 39.5cm의 안깃은 4cm 정도만 내어 달렸다. 깃에 달렸던 동정은 탈락되어 없는 상태이다. 안깃의 셔에 부착된 부분은 끝끝이 곱게 흠질해주었다. 깃 끝에는 너비 2.2cm의 고름이 달렸던 흔적이 남아있다.

소매는 진동에서 줄어들면서 수구로 이어지는 완만한 일자형으로 소매 끝에는 12.7cm 너비의 운보문단 끝동이 달려있다. 겨드랑 아래 옆선에는 연화문단을 사용한 사각접은 삼각무(6×6cm)와 운보문단 사다리꼴무 형태의 두 쪽무가 달려 있으며 트임은 없다. 두 쪽무는 운문단 옷감을 사용하였다.



그림 30. [B11491] 장저고리의 앞-펼침-뒤.



그림 31. 끝동의 운보문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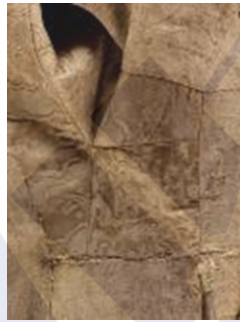
그림 32. 사각접은 삼각무의
연화문단.

그림 33. 앞섶의 연화문단

이 옷은 뒷 도련 너비 77cm로 옷 품 보다 도련이 넓고, 옷 품이 화장과 비슷한 비율로 넓고 풍성하다. 장저고리 보다는 짧은 길이지만 입었을 때 허리가 가려지는 길이이다.

(4) [B11493] 적삼

여름용 저고리 또는 속저고리로 입는 옷이다. 유물은 겹감과 안감을 주(紬)로 만든 겹 옷으로 가장 자리를 홈질 상침으로 둘러주었다. 옷길 58cm, 뒤품 61cm, 화장 61cm의 크기이다.

깃은 깃너비 11.2cm이며 좌우 모두 들어 달린 목판깃 형태로 길깃 길이 37cm, 안깃길이 42cm이다. 깃에는 동정이 달렸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길깃 끝에는 1.2cm 너비의 고름 흔적이 남아있다. 소매는 진동(31cm)에서 수구(29cm)까지 완만한 일자형이며 일반 저고리 보다 소매가 짧은 편이다. 진동 아래에는 8.5×8.5cm 크기의 사각접은 삼각무를 달아주고 일자형으로 내려온 옆선에는 8cm 크기로 트임을 주었다. 겹 옷을 완성한 후 수구, 섶, 옆트



그림 34. 적삼의 앞-펼침-뒤.

임, 도련의 가장자리를 0.3cm 들어가서 0.3cm 간격으로 흠질 상침하여 주었다.

2. 치마[赤𪎏]

치마는 모두 2점이 출토되었다. 1점은 상부는 걷어주고 하부는 접어주었으며, 1점은 하부를 일정 부분 접어준 형식의 치마이다. 직사각형태에 허리를 주름잡아 만든 일반적인 치마와는 대별된다. 이 글에서는 연구자가 치마의 형태를 묘사하여 명칭을 부여한 거들 접음단 치마와, 현재 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접음단 치마로 분류하였다.

(1) [B11494] 거들 접음단 치마

겉감과 안감을 주(紬)로 만든 겹치마로, 상부 중심은 걷어주고 하부는 접어주어 만든 특별한 옷이다. 치마 상부는 너비 152cm, 깊이 4.5cm를 걷어주고 아래 부분은 5cm 단을 접어 접음단으로 돌려주었다. 허리 주름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측 방향으로 다르게 잡혀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허리 말기는 소실된 상태로, 치마의 크기는 총길이 98cm(허리말기 주름부터의 길이), 치마 중심길이 85cm, 허리둘레 105cm(추정)¹⁸ 치마폭 484cm이다.

1폭 너비 32cm의 겉감 옷감 16폭을 이어 붙여 치마폭을 만들고, 안감을 겹쳐 좌우를 흠



그림 35. 거들 접음단 치마의 앞-뒤-거들단.



그림 36. 거들단과 좌우 방향이 다른 주름의 모습.



그림 37. 치마를 반 접었을 때의 옷

18 허리 말기가 소실되어 펼쳐진 주름의 흔적을 찾아 유물 보수 작업을 통해 주름을 잡아준 상태이다.

질로 바느질하고 밑도련은 겉면 0.2cm 안쪽면 0.7cm 의 눈썹단으로 마무리하였다. 직사각 형태로 만든 치마를 주름선에서 18cm 내려와 너비 152cm 정도를 깊이 4cm 정도 걷어주었다. 거들단 위치는 좌측은 5폭에서 18.5cm 더한 지점이며, 우측은 4폭에서 14.5cm를 더한 지점에서 시침하듯이 성글게 바느질하여 거들단을 잡아주었다. 그리고 하부에는 접음단을 만들어주었는데, 밑도련에서 위쪽으로 23cm 올라온 지점에서 접음단 분량 10cm를 반 접어 성글고 넓게 시침하여 5cm 너비 접음단을 완성하였다.

허리말기가 소실되어 주름이 부분적으로 펼쳐진 상태이나 중심부의 주름은 남아있으며 좌우에 주름 자국도 남아있다. 현재는 이를 주름 잡아 보수한 상태이다. 주름 방향은 허리 중심부 11.5cm를 맞주름 잡은 후, 좌측은 왼쪽 방향, 우측은 오른쪽 방향으로 주름 방향을 달리한 특이한 구조이다. 주름 폭은 2~3cm로 불규칙하게 잡아주었다.

(2) [B11495] 접음단 치마

겉감과 안감을 주(紬)로 만든 치마로, 현재는 겹 옷 상태로 있다. 치마 아래 부분에 9.8cm 단을 접어 접음단으로 돌려주고, 도련 시접을 눈썹단으로 처리하였다. 크기는 총길이 90cm, 허리둘레 77cm 치마폭 450cm이며 접음단을 폼을 때의 치마 길이는 121cm이다.

1폭 너비 30.5cm의 겉감 옷감 15폭을 이어 붙여 치마폭을 만들고, 안감과 겹쳐 좌우를 흠질로 바느질하고 밑도련은 겉면 0.3cm 안쪽면 2.4cm의 눈썹단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때 눈썹단은 겉감을 안감쪽으로 넘겨 만든 형식이기 때문에 안감쪽 선단은 겉감과 같은 폭이 음선이 있다. 직사각 형태로 만든 치마를 밑도련에서 위쪽으로 23cm 올라온 지점에서 접음단 분량 19.6cm를 반 접어 성글고 넓게 시침하여 9.8cm 너비 접음단을 완성하였다. 접음단을 접었을 때 치마 길이는 왼쪽과 오른쪽 치마 길이가 동일하다.

완성된 치마폭 상부를 2.5~4cm 너비로 주름 잡았는데 허리 중심부는 4cm 내외이며,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는 2.5~2.8cm 내외로 주름 잡아주었다. 주름은 왼쪽을 향하고 있다. 오른쪽 8cm 정도 주름이 없는 것으로 보아 치마를 오른쪽으로 여밈한 것을 알 수 있다. 주



그림 38. 중심부의 넓은 주름과 좌우 작은 주름 모습.



그림 39. 접음단을 위쪽으로 올린 모습.

를 잡은 허리에는 둘레 77cm 너비 4.5cm 크기의 말기를 부착하였다. 말기 끝 좌우에는 4cm 너비 고름 흔적이 남아있다. 고름은 겹에서 눌러 박음질하였으며 눈썹단을 완성한 후 겹감의 끝단이 밀리지 않도록 끝을 한 번 더 시침하여 주었다.

3. 기타

위의 복식 이외에 안동김씨 무덤에서는 치마 조각으로 추정되는 2점[B11496~7]이 있다. 모두 주(紬)로 만든 것이며 1점은 누비이고 나머지 1점은 겹 옷 상태이다.〔표 2〕 참조

V. 결론

이상과 같이 2009년 10월 7일,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산 89번지에서 출토된 이현충(李憲忠 : 1505~1603)과 부인 안동김씨(安東金氏 : 1505년 생)의 분묘에서 출토된 총 28점의 유물에 대하여 각 유물의 구성적 특성을 면밀히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서 밝혀진 유물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출토된 복식은 1500년 대 전반기에서 중후반기까지 분포되어 있다.

앞 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현충 공은 98세까지 장수하였고 부인 안동김씨 또한 장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다. 조선시대는 유행이 변화된다하여 현시대 처럼 때마다 옷을 만들어 입을 여건은 되지 않았을 것이며 한 번 마련한 옷은 오랜기간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노년층은 유행을 따르지 않는 경향이 있어 장수한 사람일수록 개별 복식의 제작 시기가 광범위할 가능성이 많다. 이번 유물에서도 사망 시점에 비하여 시기가 월등이 앞서거나 하나의 묘에서도 시기가 차이나는 유물들이 발견되었다.

출토 복식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구성적 특징을 통해 묘주의 생몰 연대를 판별한 연구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한 연구¹⁹⁾에서는 16세기 철릭에 대해 철릭의 길이와 상하비례, 깃양식, 소매 너비와 소매 유형, 고름과 고름바대, 요선의 유무 등을 제시한 바 있다. 다른 연

19 이은주, 1999, 16세기 전기 철릭의 구성법 이례 : 金欽祖(1461~1528) 분묘 출토의 철릭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7(2), pp.242~256.

구²⁰에서는 이중 칼깃과 칼깃, 소매 형태와 탈착식 특성, 고름의 종류와 개수, 고름 바대의 유무, 겨드랑이 삼각의 유무, 주름의 종류, 상의 하상의 비율, 옆선의 비율로 시대 구분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연구²¹에서는 철릭의 상하 길이 비례, 철릭과 답호의 깃 양식, 옆선길이, 소매 양식, 고름 바대와 고름, 답호의 무의 양식, 전단후장의 특징 유무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묘주의 몰년을 추정하였다.

이현충 묘 출토 유물 중 답호 2점과 철릭 4점은 선행 연구를 통해²² 복식의 연대가 1500년대 전반기에 해당한다. 답호의 경우, 전단후장형 유물이며, 겹깃의 모양이 끝 잘린 이중 칼깃 형태에 두쌍 고름의 흔적이 남아있다. 무는 안주름과 바깥무로 구성되어 상부가 하향 삼각형태이며 하부는 주름잡지 않고 펼친 상태이다. 진동점에서 무 부착점까지의 겨드랑 밑 길이가 14~16cm 길이로 긴 편이다. 철릭은 겹깃의 모양이 이중깃의 끝 잘린 칼깃 형태이며, 소매 길이는 옷길이나 비슷하여 팔을 내렸을 때 땅에 닿을 정도의 길이이다. 겨드랑 밑 길이가 14~20cm의 범위로 길어 상의와 하상의 비율이 1.14~1.22 : 1의 비율로 의가 상 보다 매우 긴 편이다. 고름은 2쌍 고름이고 철릭[B11474]과 철릭[B11476]같이 고름 바대가 부착된 것도 있다. 이와 같은 구성은 변수(1447~1524), 김흠조(1477~1543), 고운(1479~1530), 정담(1476~16세기 전반 추정) 묘 출토 답호와 철릭에서 끝 잘린 이중 칼깃 형태가 확인되며, 겨드랑 밑 길이 또한 비슷하다. 이현충의 답호의 깃이 모두 끝 잘린 이중 칼깃 형태임에 반하여 정온(1481~1538)묘 출토 답호는 끝 잘린 이중 칼깃과 일반 칼깃이 함께 출토되었으며 1500년대 후반기에 해당하는 정응두(1508~1572)의 철릭 22점은 끝 잘린 이중 칼깃은 1점에 불과하고 나머지 21점은 일반적인 칼깃이다. 이러한 사례를 살펴볼 때 이현충 묘 출토 유물 중 답호와 철릭은 공의 몰년 보다는 앞선 1500년대 전반기의 양식으로 추정된다.

안동 김씨의 장저고리 2점의 시대가 대별되는 유물로 쏘에 주름 잡힌 장저고리[B11490]는 1500년대 전반기에 해당하며, 다른 1점의 [B11491] 장저고리는 1500년대 중후반기에 해당한다. [B11490]는 깃이 들어달린 목판깃 형태의 맞깃이고 쏘 아래 주름이 잡혀있다. 이러한 유물은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강릉김씨의 맞깃쏘위접힘저고리 3점²³과 인천석남동 출토 여성묘에서 출토된 대금형 상의²⁴와 동일한 구조이다. 강릉김씨는 생몰년은 불확실하나 남편(1479~1552)의 생몰년도와 족보에 따른 38세 사망 시기를 유추하여 1520년 전

20 송미경, 2009, 조선시대 전기 철릭을 통해 본 진주류씨 출토 복식 연대 추정, 韓服文化 12(2), pp.139~158.

21 이은주, 2010, 출토복식을 통한 정담(丁謨, 1476~?)의 몰년 추정, 韓服문화 제13권 2호, pp.165~183.

22 이은주, 2010, 앞의 논문, pp.172~176.

2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7, 韓國服飾 25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pp.46~49.

24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5,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인천, pp.167~168.

후의 인물로 보고 있다. 인천 석남동 출토 대금형 상의는 강릉김씨 저고리와 같이 목판깃 맞깃 형태이며, 섶에 주름이 잡혀있다. 묘주의 생몰년도는 알수 없으나 함께 출토된 철릭과 답호의 조형성을 통해 1500년대 초반으로 추정되었다. 이와 함께 강릉김씨와 인천석남동 출토 저고리 유물 중에는 내어달린 목판깃 형태에 길이가 길고 옆선에 트임을 준 장저고리도 함께 있는데 이와 같이 일반적인 목판깃 장저고리는 1500년대 중반기 이후에도 보이는 유물로 1500년대 말까지 장기간 유행하였다.

2. 식물성 섬유는 퇴화로, 겹 옷 상태로 남아 있는 유물의 경우도 솜옷이나 솜누비옷의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발표된 유물은 견직물만 있으며, 모든 유물이 겹 옷 또는 겹누비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이는 토양과 자연현상으로 장기간 땅속에서 식물성 섬유가 서서히 퇴화되어 견직물만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해평윤씨(1660~1701) 묘 출토 저고리의 안감과 충전제의 퇴화물로 추정되는 시료에 대한 조사 결과 섬유의 단면과 측면의 형태로 면섬유로 밝혀진바 있다.²⁵ 따라서 초기에는 솜옷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옷들이 있는데, 특별히 구성 분석을 통해 솜옷이거나 솜 누비 옷의 가능성이 있는 유물이 존재한다.

[B11475] 철릭은 옷을 완성한 후 깃, 수구, 섶, 도련의 가장자리는 끝에서 0.8cm 들어가 곱게 흠질로 둘러주었다. 철릭의 경우 솜 옷의 가장자리에 표현되어있는 바느질 기법으로, 이 유물은 현재는 솜이 퇴화되어 없으나 옷을 제작하였을 당시에는 솜 철릭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현충 묘에서 출토된 세가닥 바지는 겹감과 안감을 주(紬)로 만들고 1.6cm 간격으로 줄줄이 누벼준 누비바지인데 현재 겹 누비 상태로 남아있는 유물이다. 그러나 누비 땀을 0.6cm 간격으로 성글게 누벼준 것으로 보아 원래는 솜을 두텁게 두어 누빔한 솜누비 옷으로 추정된다.

[B11490] 장저고리는 옷의 섶, 옆트임, 도련의 가장자리를 선 안 쪽으로 0.6cm 정도 들어가 곱질로 곱게 상침으로 둘러주었다. 철릭과 같은 경우로 솜 옷의 가능성이 있는 유물이다.

25 채옥자 외, 2013, 해평윤씨(1660~1701)묘 출토 퇴화직물에 관한 고찰, 한국복식 28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참조.

3. 구성적으로 특별한 세가닥 바지와 거들접음단 치마가 출토 되었다.

세가닥 바지는 바지 가닥이 3개로 구성된 특이한 형태의 바지로 현재 발표된 사례와 미 발표 사례를 포함하면 총 9점에 불과하여 귀중한 자료²⁶이다. 이현충 묘 세가닥 바지 [B11478]는 짧은 가닥과 긴 가닥으로 구성된 단속곳 형태의 합당고를 만든 후 짧은 가닥의 겹면 쪽에 개당고 형식의 긴 바지 가닥이 겹치도록 만들었으며 긴가닥은 1.6cm 간격, 짧은 가닥은 4cm 간격으로 누벼주었으며 허리 말기는 2.5cm 너비로 가로 세로 누빔하여 바둑판 형식으로 누벼주었다. 성글게 누벼준 누비 땀으로 보아 솜누비로 추정되는 옷이다. 이를 보아 이현충공의 세가닥 바지는 겨울에 용변보기 쉽도록 기능성을 더하여 남성의 방한용 바지이다. 다만, 대전시립박물관의 한산이씨(1600년대 초) 세가닥 바지²⁷와 같이 여성이 수의로 입고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남녀 공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거들 접음단 [B11494] 치마는 상부 중심은 걷어주고 하부는 접어주어 만든 독특한 옷이다. 허리 주름이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측 방향으로 다르게 잡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치마 중심부의 상부를 접어준 것을 현대에서 거들치마로 부르고 있으며, 치마 하부를 둘러서 접어준 것을 접음단 치마로 부르고 있다. [B11494] 유물은 이를 하나로 합쳐 만든 구성이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한 건이 발표된 바 있으며²⁸, 이번이 두 번째 사례이다. 거들치마의 경우 중심을 걷어주어 앞이 짧고 좌우 길이가 긴 형태여서 의례용 치마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접음단 치마는 아래 둘레를 단처럼 접어주었기 때문에 길이가 매우 짧아서 의례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 유물은 대별되는 특징이 하나의 복식에 적용된 특이한 사례이나 현재 까지 출토 사례가 2건에 지나지 않아 용도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므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26 이현충 묘 출토 세가닥 바지 외에도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정응두(1508~1572) 묘 출토 바지 1점, 남양홍씨(1500년대 중반) 묘 출토 바지 1점, 윤선언(1580~1628) 묘 출토 바지 1점 있으며, 경북대학교 박물관의 벽진이씨(1585년 졸) 묘 출토 바지 1점, 광주광역시립민속박물관의 고운(1479~1530) 묘 출토 바지 1점, 대전시립박물관의 한산이씨(1600년대 초) 묘 출토 바지 1점이 있다.

27 한국전통복식연구소, 2001. 진주 강씨 부인 한산 이씨, 충주 박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p.75

28 최연우 외, 2017, 가평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5, pp.840~857.

참고문헌

- 경기도 박물관, 2015, 청주양씨 기증 유물전.
- 구남옥, 2002, 조선시대 남자 바지에 관한 연구, 복식 제 52권 7호, 한국복식학회.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7, 韓國服飾 제25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박진영, 2009, 조선시대 공신화상 유소(流蘇) 연구,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문화재대학원. 경기도.
- 송미경, 2009, 조선시대 전기 철릭을 통해 본 진주류씨 출토 복식 연대 추정. 韓服文化 12(2).
- 이순자, 2002, 조선전기 여성 바지에 관한 연구-세가람이 바지를 중심으로-, 한복문화 제 5권 1호, 한복문화학회.
- 이은주, 1999, 16세기 전기 철릭의 구성법 사례 : 金欽祖(1461~1528) 분묘 출토의 철릭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7(2).
- 이은주, 2010. 8, 출토복식을 통한 정담(丁聃, 1476~?)의 몰년 추정. 한복문화 제13권 2호, 한복문화학회.
- 이은주·김미경, 2019, 선조대(宣祖代) 공신초상(功臣肖像)의 복식 고찰. 文化財 Vol 52. No.1,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주영, 2009, 여산송씨일가묘 출토 남자 포의조형 및 구성 특성. 옷섬 사이로 비치는 조선, 대전선사박물관.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편, 2005, 인천 석남동 회곽묘 출토복식. 인천광역시립박물관, 인천광역시.
- 全州李氏 守道君派譜編輯委員會, 2013, 全州李氏 守道君派譜, (株)家乘미디어.
- 채옥자 외, 2013, 해평윤씨(1660~1701)묘 출토 퇴화직물에 관한 고찰. 한국복식 28호,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최연우 외, 2017, 가평 전주이씨묘 출토복식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Vol 41, No.5.
- 한국전통복식연구소, 2001. 진주 강씨 부인 한산 이씨, 충주 박씨 묘 출토복식 조사 보고서.

A Study of Clothing Relics Found in the Graves of Lee Heon-Chung and His Wife, Ms. Kim in Pocheon, Gyeonggi-do

Lee, Myung-Eun

Seok Ju-Seon Memorial Museum, Dankook University

■ Abstract

During the process of moving the graves of Lee Heon-Chung (1505~1603, family origin : Jeonju) and his wife Ms. Kim (family origin : Andong, born in 1505) in Pocheon, Gyeonggi-do on October 7, 2009, 23 pieces of clothing-related relics were found. Cotton and linen products were all degenerated and only silk products were recovered. Relics found in the grave of Lee Heon-chung were 20 pieces including one funeral banner (Myeongjeong), two pieces of man's coat with half sleeves (Dapho), four pieces of man's coat with pleats (Cheolrik), a cotton coat with underarm pleats (Aekjureum), two pieces of pants (Baji), two waist strips (Jodae), a bedding (Ibul), a piece of coffin cotton wrapper (Gueui), a piece of cloth in the coffin, a face cover for the dead (Myeokmok), a pair of sleeves (dual), a pair of sleeves (single), and two pieces of cloth. A total of 8 pieces of clothing relics were found in the grave of his wife, Ms. Kim (family origin : Andong) including two outer tops (Jangjeogori), a top (Jeogori) and two pieces of skirt cloth.

This study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by kin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relics found in the graves of Lee Heon-Chung and his wife Ms. Kim and discussed the historical characteristics of clothing.

It was suspected that both Lee Heon-Chung and Ms. Kim lived a long full life. It was analyzed and confirmed that the relics were those of the period before the burial year.

Dapho and Cheolrik of Lee Heon-Chung had the artistry such as double knife-shape collars with cut end and two double ties (Goreum) and the long underarm length of 14~20cm. Especially for Cheolrik, the upper part above the waistline was quite longer

than the lower part, of which ratio was 1.14~1.22 : 1. Such elements of Dapho and Cheolrik are the traits that can be shown in the relics of the early part of the 16th century. All Jeogoris found in the wife Ms. Kim's had a square collar (Mokpangit). In particular, a piece of Jangjeogori had two collars of the same length called Matgit with pleats on the placket (Seop). They also are the traits shown in the relics of the early part of the 16th century. On top of that, three-legged pants with an open crotch (Segadak Baji) and unbalanced layered skirt presented a modern sense of beauty with special artistry.

Keywords : Kkeutjallin ijung kalgis(Double knife-shape collars with cut), Segadag baji(Pants with three pant legs), Jang-jeogori(Long Jacket), Geodeul-jeob-eumdan chima(unbalanced layered skirt), Jeob-eumdan chima(layered skirt)

조선시대 출토복식에 보이는 접음단치마

송미경*

서울여자대학교 패션산업학과

■ 논문요약

본 연구는 조선시대 출토복식 가운데, 여자치마의 일종인 ‘접음단치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접음단치마는 도련에서 15~20cm의 높이에서 너비 5~15cm 정도를 접어 치마를 2벌 꺾입은 듯한 치마이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시대 출토치마 가운데 접음단치마의 출현시기, 출현지역, 비중, 구성, 용도, 사용된 옷감 등의 분석을 통해 접음단치마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있는 원인 등을 추정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생활사의 일부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음단치마는 나신걸(1461~1524)의 부인인 신창맹씨 묘에서부터, 예안이씨(1584~1655)의 묘에서까지 16세기부터 17세기까지 치마의 한 종류로서 전국적으로 입혀졌다.

둘째, 접음단치마가 수습된 묘는 29건으로 그 묘에서는 다양한 치마 121점이 수습되었다. 그 가운데 접음단치마는 48점으로 39.6%를 차지한다.

셋째, 접음단치마의 염습의(斂襲衣)의 용도이다. 접음단치마는 14건 14점이 습의(襲衣)로 사용되었다. 습에 사용된 접음단치마는 홀 1점, 겹 4점, 솜3점, 솜누비 6점으로 솜이나 누비와 같은 부피가 있는 옷이 64.3%이다.

넷째, 접음단치마의 50%가 솜옷이나 누비옷이다. 접음단치마의 용도는 예복이 아닌, 평상용 겹옷으로 또는 치마를 부풀리게 하는 속옷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추측할 수 있다. 이는 17세기 이후 여성복식의 실루엣의 변화 즉, 치마와 저고리 길이가 길어지고 옷이 얇아지는 추세에 따라, 접음단 치마는 17세기 중기 이후 점차 사라지는 것이다.

다섯째, 접음단치마 48점에 사용된 직물은 면포이 11점, 주(紬)가 17점, 화문단류가 14점, 기타 주(紬)로 추정되는 직물이 4점이다. 임진란 이후에는 면포가 많이 사용되어, 어려워진 경제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주제어 : 조선시대, 출토복식, 여성복식, 접음단치마, 염습용, 16~17세기.

* Corresponding author : Song Mi-Kyung, E-mail : mksong@swu.ac.kr

| 투고일 | 2019.04.19

| 심사개시일 | 2019.04.27

| 심사완료일 | 2019.05.07

| 게재확정일 | 2019.05.10

I. 머리말

‘접음단치마’란 긴치마를 치마 도련에서 10~20cm 높이에서 다양한 너비로 가로방향으로 접어 마치 치마를 2벌 꺾입은 것처럼 보이는 형태이다. 조선시대 출토복식 가운데, 여자 치마의 종류는 다양하다. 허정애는 “치마 길이와 장식요소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면 스란치마, 전단후장형치마, 장치마, 접음단치마, 일반치마가 있다. 첫 번째, 스란치마는 치마 무릎부분이나 하단에 가로방향으로 스란단이 갖추어진 치마이다. 두 번째, 전단후장형 치마는 치마의 정명 윗부분을 접어 고정하거나, 치마의 앞면을 짧게 재단하여 치마의 앞길이가 뒷 길이보다 짧은 치마이다. 세 번째, 장치마는 치마 길이가 일반치마보다 10cm이상 긴 치마이다. 네 번째, 접음단치마는 치마 하단에 가로방향으로 단을 접은 치마이다. 다섯 번째, 일반치마는 장식이 없는 형태의 치마이다.”¹로 분류하였다. 치마를 만드는 구성법으로 분류하면 홀치마, 겹치마, 솜치마, 누비치마가 있다. 치마의 유형 가운데, 치마의 명칭은 연구자에 따라 다르게 명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허정애는 ‘전단후장형치마’라고 하였지만, 이 연구에 인용된 보고서에는 ‘거들치마’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과 내용은 선행연구^{2 3 4 5}와 출토복식 보고서와 논문 등을 바탕으로 문헌 연구를 하였고, 실견이 가능한 유물은 직접 조사하여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였고, 이를 통해 조선시대 출토복식 가운데 ‘접음단치마’에 살펴보고자 한다.

접음단치마의 출토건수와 소재, 접음단치마의 형태와 구성 그리고 염습의(斂襲衣)에서 용도를 통해 조선시대 접음단치마의 특징과 접음단치마가 16~17세기에 착용되었던 이유를 추정해 보려고 한다.

연구의 한계점은 접음단치마의 용도와 명칭 등에 관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문헌에 대한 연구가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보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접음단치마’에 대한 명칭은 다양하다. 최초로 ‘접음단치마’에 주목한 연구자는 유영순(1992)으로 소의신씨(昭儀申氏)의 접음단치마에 대해 언급하며 “치마단에서 16cm 위치의 덧주름을 박음질한 것은 처음 보이는 양식이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이은주(1996)는 예안 이씨의 복식 해설에서 “치마하단 16.5cm 위치에 8cm 가량의 넓이로 접어서 곱게 흠질로

1 허정애, 2013, 조선시대 묘에서 출토된 치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대학, 서울, 원 pp.4~5.

2 유영순, 1992, 朝鮮朝 치마에 對한 構造的 研究 -1400年代~1900年代 實物 中心으로, 상지전문대학 논문집 제22권 : 자연과학편, pp.29~64.

3 박성실, 1996, 조선조 치마 재고 : 16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복식 30.

4 김남정, 2000, 조선시대 치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서울.

5 임경화, 2002, 치마의 장식요소와 표현성에 관한 연구 : 조선시대부터 2001년까지,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대학원, 서울.

꺾맨 횡단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고 하였다. 고부자(1997)는 천안 풍세면 출토 고여우(高汝雨, 몰년 1604년 이후)의 배위 단양우씨 치마에 관하여, “아랫단 부근에 7cm의 간격만큼 접어서 2층 모양을 이룬 것이 있다.”고 하였으며, 2009년에는 순흥안씨 묘에서 출토된 치마에 관하여 “중간단 접힘치마는 접이며 종아리 부근을 골로 접어(9.5cm) 중간단층(이층)을 만들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김동욱·장인우(1998)는 임경백 부부합장묘 출토복식 가운데 치마 1점에 관하여 “밑단은 접어 두단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여 접음단치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후 처음으로 ‘접음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연구자는 이은주로 그는 2000년에 일선문씨 묘 출토복식 가운데 치마를 언급하면서 “하단부위를 접어서 곱게 홉질하여 접음장식을 만들었다.”고 하였고, 2001년에는 장기정씨 묘 출토복식 가운데 치마에서 “접음단 장식이 있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 이후, ‘접음단’이라는 용어는 서정원(2003)이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인 파평윤씨 묘 출토 치마에서 “접음단 장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다. 정미경(2005)은 길박물관 소장 평산신씨 묘 추토복식에서 “접음단숨치마”를 언급하였고, 박승원(2006)은 청양 안심리 무연고 묘 출토복식 가운데 치마의 형태를 서술할 때에 “접음단을 주어”라고 하여 접음단치마를 묘사하고 있다. 이명은은 2011년 이후 보고서에 ‘접음단치마’ ‘접음단형 치마’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송미경(2005)은 경기도박물관 소장 연안김씨 묘 출토 치마에 대해 “치마단이 접혀 있어”라고 하며 ‘이중단 접음치마’라고 하였다. 송미경·박진영(2006)은 경기도박물관 소장 진주류씨 부부합장묘 출토 치마에 대해 ‘아랫단을 접어 올린 이중치마의 모습이다.’고 서술하였다. 정미숙·허정애(2016)은 경기도박물관 소장 성주도씨 묘 출토 치마 가운데 “접음단치마”라는 용어로 설명하였다. 백영미(2007)는 대전시립박물관 소장의 충주박씨 묘와 순흥안씨 묘에서 출토된 치마 묘사에서 접음단치마를 “의복명은 ‘스란치마’이고, 치마의 유형은 ‘란치마’”라고 하였다. 이후 권영숙·백영미 외(2015)는 “란치마”, 백영미·하신혜(2016)은 “아랫단 접음단형은 아랫단에 스란 부위에서 한 번 접어 횡란을 만들어 길이를 짧게 만든 치마이다.”라고 하여, ‘아랫단 접음단형치마’라고 하였다.

이상에서 접음단치마에 관한 연구자들의 명칭에 관하여 정리하여 보면, 1992년 유영순이 명종(明宗)의 후궁인 소의 신씨(昭儀 申氏) 묘에서 출토된 치마에서 처음으로 접음단치마에 주목하였다. 그 후 여러연구자들이 다양한 용어로 접음단치마를 묘사하였고, 2001년 이은주가 “접음단 장식”을 언급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접음단치마’라는 용어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백영미·권영숙 등의 연구자는 ‘란치마’ ‘아랫단 접음단형치마’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외 고부자는 ‘중간단접힘치마’와 같이 표현한다.

접음단치마는 치마 도련에서부터 일정한 높이에서 접어 횡란을 만들어 치마를 2벌 꺾임은 것처럼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 연구자들의 다양한 접음단치마에

대한 표현을 제목에서는 ‘접음단치마’라고 통일하였으나, 본문의 내용과 직물의 명칭과 무늬 등은 보고서의 명칭에 따랐다.

Ⅱ.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접음단치마

조선시대 출토복식 가운데 접음단치마의 수습현황 <표 1>은 다음과 같다. 조선시대 여자 치마가 수습된 묘 가운데 접음단치마가 수습된 경우는 29건이다. 이 29건 묘에서 여자 치마는 총121점이 수습되었고, 접음단치마는 48점이 수습되었다. <표 1>에 의하면, 접음단치마는 나신걸(1461~1524)의 부인인 신창맹씨의 묘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예안이씨(1584~1655년) 묘에서 마지막으로 수습되었다. 이는 16세기 초~17세기 중반까지 접음단치마가 착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접음단 치마가 수습된 지역을 살펴보면 총29건 가운데 경기도 11건, 충청도 10건, 경상도 4건, 전라도 4건으로 전국에 고르게 걸쳐 분포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접음단치마 착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접음단치마의 수습 현황

번호	묘주	연대	출토지	수습된 치마 점수	접음단 치마 점수	소장처
1	신창맹씨 (나문걸의 부인)	16세기 초기	대전광역시	4	3	대전시립박물관
2	전주이씨 덕흥군 이준숙(1480~1538)의 고모 추정	16세기 초기	경기도 가평군	2	1	개인소장
3	파평윤씨	1566년 몰년추정	경기도 파주군	8	3	고려대학교박물관
4	소의신씨 (명종의 후궁)	1533~1565	경기도 양평군	6	1	영남대학교박물관
5	별내무연고	16세기 초기	경기도 남양주시	9	1	국립민속박물관
6	청양무연고	16세기 중기	충남 청양군	4	1	공주대학교박물관
7	연안김씨	16세기 중기	경기도 양평군	7	1	경기도박물관
8	천안유량동	16세기 중기	충남 천안시	3	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9	진주류씨의 부인 박씨	16세기 중기	경기도 안성시	2	1	경기도박물관
10	일선문씨	16세기 중기	경북 안동시	5	1	안동대학교박물관
11	구성이씨	16세기 중기	경기도 오산시	5	3	수원박물관

번호	묘주	연대	출토지	수습된 치마 점수	접음단 치마 점수	소장처
12	용인이씨 (나문걸의 며느리)	16세기 중후기	대전광역시	10	3	대전시립박물관
13	여흥이씨	16세기 중후기	경기도 오산시	5	3	수원박물관
14	충주박씨 (송희최의 부인)	16세기 중후기	대전광역시	6	3	대전시립박물관
15	안동김씨 (이현충의 부인)	16세기 후기	경기도 포천군	3	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6	평산신씨	16세기 후기	경북 문경시	7	1	문경시립 길박물관
17	광주양산동 무연고	16세기 중후기 ~17세기 초기	광주광역시	2	1	미상
18	이기남	1533~1605	전남 장성군	1	1	고려대학교박물관
19	순흥안씨	1551~1609	경기도 광주시	5	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	장기정씨	1565~1614	경북 포항시	7	3	안동대학교박물관
21	남양주호평무연고	17세기 초기	경기도 남양주시	4	3	경기도박물관
22	고부이씨	17세기 초기	전북 부안군	2	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3	여흥민씨	17세기 초기	충남 연기군	2	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4	성주도씨	17세기 초중기	충북 괴산군	1	1	경기도박물관
25	단양우씨	17세기 초기	충남 천안시	4	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6	광산김씨 이기남(1533~1605)의 부인	16세기 후기	전남 장성군	1	1	고려대학교박물관
27	전주이씨	16세기 후기	충북 청원군	3	1	충북대학교박물관
28	임계백	1598~1639	충북 청원군	1	1	충북대학교박물관
29	예산이씨	1584~1655	경북 안동군	1	1	안동대학교박물관
합계				121	48	

1. 신창맹씨(新昌孟氏) 묘 출토 접음단치마⁶

2011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 현장에서 안정나씨 종중묘를 이장하면서 나신걸(羅臣傑, 1461~1524)의 부인 신창맹씨(생몰년 미상)의 묘에

⁶ 백영미·하신혜, 2016, 안정나씨 일가 묘 출토 하의류에 관한 고찰, 대전 금고동 출토 안정나씨 일가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대전시립박물관, pp.157~164.

서 복식이 출토되었다. 신창맹씨는 남편의 생몰년으로 미루어 16세기 전기에 활동했던 것으로 짐작한다.

습의는 수습하지 못하였고, 치마는 4점이 있다. 치마 3점(No.28, No.32+33, No.38)은 소렴에 사용되었고, 1점(No.23)은 대렴에 사용되었다.

치마 4점 가운데 3점(No.23, No.33+34, No.38)이 접음단치마이다. 보고서에는 “아랫단 접음단형은 아랫단에 스란부위엿 한 번 접어 횡란을 만들어 길이를 짧게 만든 치마이다”라고 하였다.

(1) No.23 누비접음단치마

대렴용이며, 겹감은 없고 안감인 무명만 남아있다. 치마길이는 95.5cm, 치마너비는 466cm이다. 누비간격은 9cm로 넓다. 치마 말기는 너비 4cm, 둘레 95cm이다. 치마 주름의 크기는 1.5~2cm이다. 아랫단에서부터 36cm 올라 온 부분에 시침바느질한 흔적이 있으며 그 아래도 16~17cm 부근에서도 시침바느질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접음단치마로 추정한다.

(2) No.33+34 솜치마

소렴용이며, 겹감과 안감 모두 무명으로 만든 솜치마이다. 치마길이는 91cm, 치마너비는 1폭 너비 36cm를 13폭 이어 약 444cm 정도이다. 치마 말기는 풀려있어 직사각형이다. 접음단의 위치는 도련에서 18cm 올라 온 곳에서 12cm 흔적으로 보아 접음단의 너비는 6cm이다.

(3) No.38 솜치마

소렴용이며, 겹감과 안감 모두 무명으로 만든 솜치마이다. 치마길이는 93cm, 치마너비는 420cm이다. 치마 말기는 너비 3cm, 허리둘레 86cm이다. 주름너비는 1.5cm이다. 접음단의 위치는 도련에서 15cm 올라 온 곳에서 16cm 접힘 흔적으로 접음단의 너비는 8cm이다.

2. 전주이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

1995년 3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산63번지 능내산에서 전주이씨 묘역 이장 중 묘주 미상의 여성묘에서 출토복식이 수습되었다. 묘주는 덕흥군(德興君) 이존숙(李存肅,

1480~1538)의 고모인 이금명(李金命)으로 추정하여 16세기 초반 이전에 생존했던 사람으로 추정하고 있다. 개인소장품으로 치마 2점이 있다. 치마는 솜치마 1점, 겹으로 된 이중거들치마 1점(그림 1)이다.

“이중거들치마는 겹치마로 겹감과 안감 모두 견직물이다. 14폭 치마로 위와 아래에 이중으로 거들이 잡혀있어서 ‘이중거들치마’로 명명하였고, 학계에 처음 보고되는 형태이다.” 치마길이는 치마접음단을 포함하면 105cm이다. 치마 접음단은 치마 도련에서 높이 39.5cm 되는 곳에서 접음단 분량을 13cm를 반을 접어 6.5cm 너비 접음단을 완성하였다. 이 치마는 전단후장형이라고 명명하는 16세기 여자치마에서 볼 수 있는 예복용 치마의 형태에 무릎 있는 곳에 접음단이 있는 보기 드문 형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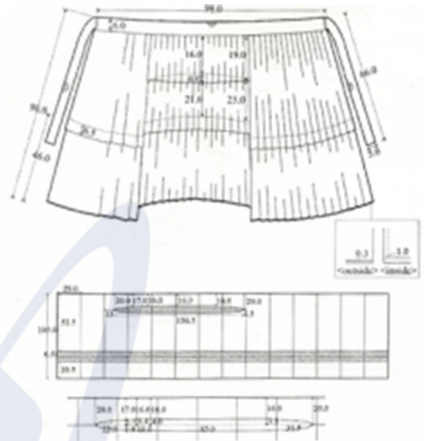


그림 1. 전주이씨 묘 출토 이중거들치마
『한국의류학회지』 41권5호

3. 파평윤씨(?~1566) 묘 출토 접음단치마⁸

2002년 9월 6일 경기도 교하면 당하리에서 파평윤씨 종중 선산의 무연고 묘지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출토된 파평윤씨 묘 출토 복식은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품이다. 속곳 허리띠 끝에서 ‘병인윤시월’이라는 한글 묵서에 의하여 조선 명종(明宗) 21년(1566) 음력 윤시월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치마는 모두 8점이 수습되었다. 홑치마 3점, 겹치마 3점, 솜치마 1점, 누비치마 1점이다. 겹치마 3점은 모두 접음단치마 각 1점씩 습용, 소렴용, 대렴용으로 사용되었다.

겹치마는 3점(No.56, No.85, No.36)으로 모두 접음단치마이다. “세 치마 모두 치마 단에서 16~17.5cm 정도 올라가 실자국이 2줄 혹은 3줄이 남아 있다. 이 선을 중심으로 접어 보면 실자국들이 한 선으로 만나게 되는 점으로 미루어 이들이 접음단 장식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접음단으로 추정되는 분량을 치마 길이에서 빼보면 79.5~84.5cm 가량

⁸ 서정원, 2003, 파평윤씨 묘사 미라 출토복식에 관한 고찰-구성법을 중심으로, 坡平尹氏 母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 고려대학교 박물관, pp.83~111, pp.279~277.

되어 착용하기에 유용한 길이가 됨을 알 수 있다.”

(1) No.56 겹치마

습에 사용된 겹치마로 접음단치마이다. 파평윤씨는 습용치마는 No.56 1벌이다. 겹감과 안감은 주(紬)를 사용했고, 치마길이는 102cm이나 접음단을 제외하면 84.5cm이다. 치마도련에서 16.5cm 올라온 곳에 너비 17~17.5cm의 2줄 바느질 흔적이 있어 접음단장식으로 추정한다.

(2) No.85 겹치마

소림에 사용된 겹치마로 접음단치마이다. 겹감은 세주(細紬) 안감은 주(紬)로 만들었다. 치마길이는 101.5cm이나 접음단을 제외하면 85cm이다. 치마허리는 풀어져 있어 치마말기와 허리끈은 없다. 치마도련에서 16.5cm 올라온 곳에 너비 17~17.5cm의 2줄 바느질 흔적이 있어 접음단장식으로 추정한다.

(3) No.36 겹치마

대림에 사용된 겹치마로 접음단치마이다. 겹감은 운보문단 안감은 주(紬)로 만들었다. 치마길이는 105cm이나 접음단을 제외하면 80cm이다. 치마허리는 풀어져 있어 치마말기와 허리끈은 없다. 치마도련에서 18cm 올라온 곳에 너비 10cm, 그 위로 15.5cm의 3줄의 바느질 흔적이 있어 접음단장식으로 추정한다.

4. 소의신씨(昭儀申氏) 묘 출토 접음단치마⁹

소의신씨(昭儀申氏, 1533~1565)는 평산신씨(平山申氏) 신언숙(申彦淑)의 장녀로, 명종(明宗, 재위 1545~1567)의 후궁이다. 17세에 왕궁에 뽑혀 숙의(淑儀)로 입궁하였고, 1564년에 소의(昭儀)로 승격하였다. 소의는 내명부 정2품이다. 자녀는 없다.¹⁰ 소의신씨(昭儀申氏, 1533~1565)의 묘에서 치마 6점이 수습되었다. 가운데 겹치마 1점이 접음단치마이다.

접음단치마는 겹감과 안감 모두 주(紬)로 만들고 허리말기와 허리끈이 모두 있는 완형의

⁹ 유영순, 1992, 앞의 논문, pp.29~64.

¹⁰ 국립중앙박물관, 2011, 삶과 죽음의 이야기 : 조선 묘지명,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p.138.

치마이다. 겹감은 옷감 12폭을 이어 만든 치마로 치마 너비는 384cm이다. 치마길이 91cm이다. 허리말기의 너비 8cm, 허리둘레는 82cm이다. 치마끈은 너비 6cm, 길이 59cm이다. 주름너비는 2.7cm이다. 치마 접음단은 높이 21cm에서 10cm의 너비를 반으로 접어 5cm이다. 0.1cm의 눈썽단이 있다. “치마단에서 16cm 위치의 덧주름을 박음질한 것은 처음 보이는 양식이다”고 연구자는 밝혔다.

5. 남양주시 별내동 4-1지점 묘6 무연고 여자 묘 출토 접음단치마¹¹

2008년 11월 10일 남양주시 별내동 택지 개발지구에서 무연고 여성의 분묘(16세기 초반기 추정)가 발견되었다. 묘주가 정3품의 숙부인 또는 숙인으로 추정되는 정도일 뿐 인적사항은 불분명하다. 출토된 유물을 통해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초반까지 활동한 여성의 옷으로 추정된다. 현재 출토유물은 국립민속박물관소장이다.



그림 2. 남양주시 별내동 무연고 묘 출토 치마,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제공

치마는 9점이 수습되었다. 의례용치마 2점, 사자 흥배무늬 스란치마 1점, 접음단치마 1점, 평치마 5점이 있다. 접음단치마는 대렴에 사용한 1점이 있다.

No.29 겹치마(그림 2)는 대렴에 사용되었고, 겹감과 안감 모두 주(紬)로 만들고 허리말기와 허리끈이 모두 있는 완형의 치마이다. 겹감은 옷감 1폭 너비 37.5cm 13폭으로 치마 너비는 알 수 없다. 치마길이 101cm이다. 허리말기의 너비는 알 수 없고, 허리둘레는 121cm이며, 치마끈은 너비 6cm, 길이 59cm이다. 치마 접음단의 너비는 9cm로 18cm를 반으로 접었다. 도련에서 접힌 높이 20cm이다.

6. 청양 안심리 무연고 묘 출토 접음단치마¹²

2004년 8월 30일 충남 청양군 목면 안심리에서 수습된 무연고 여성 묘 출토복식이다.

11 이명은, 2011, 염습의를 통해 본 별내유적 회묘 출토 복식연구,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 자료집, (재)한백문화재연구원, pp.111-169.

12 박승원, 2006, 안심리 출토복식의 고찰, 청양 안심리 복식·지류유물, 공주, 공주대학교 박물관, pp.119-135.



그림 3. 청양 안심리 무연고 묘 출토 치마(No.3)
『청양안심리 복식·지류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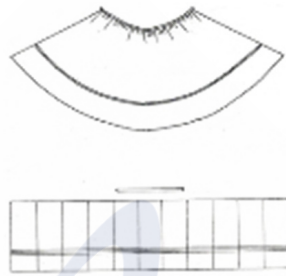


그림 4. 청양 안심리 무연고 묘 출토 치마(No.3)
실측도 『청양안심리 복식·지류 유물』

이 묘에서는 복식 유물 뿐만 아니라, 다량의 지류가 수습되었으며 만장(輓章)의 내용으로 묘주는 40대 여자이며, 묘의 조성시기는 최소한 1468년 이후에서 1547년을 넘지 않아 16세기 중반에 조성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치마는 4점으로 No.03 무명숨치마 1점, No.04 모시흠치마 1점, No.05, No.06 무명흠치마 2점이다. 접음단치마는 숨에 사용한 숨치마 1점(No.03)이 있다.

No.03 숨치마(그림 3, 4)는 숨에 사용하였고, 바지 위에 입었으며 No.03, No.04, No.05 치마 3벌을 입었다. 겹과 안을 무명을 사용하고 숨을 둔 접음단치마이다. 치마길이는 86.5cm이고 치마너비는 1폭의 너비 35cm를 11폭 이어 372cm이다. 치마말기는 있지만 허리끈은 없다. 치마말기의 너비는 3.5cm, 길이는 86.5cm이다. 주름 갯수는 39개이고, 주름의 크기는 1.7~2.5cm이다. 주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잡았다. 치마도련에서 22.5cm 올라온 부분에 2.5cm 너비로 가늘게 접고 겹에서 1cm 간격으로 홈질하였다. 다른 출토복식에서 보이는 접음단치마와 달리 접음단의 너비가 좁아 장식성이 강조된 느낌을 준다.

7. 연안김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¹³

2000년 3월 14일 경기도 양평군에서 출토되었고, 경기도박물관 소장품이다. 피장자는 남양홍씨 예사공파 홍몽남(洪夢男, 1534~1574)의 배위인 숙부인(증) 연안김씨(延安金氏)이다. 홍몽남의 사망한 해인 1574년보다 이른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13 송미경, 2005,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에 관한 연구,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 양평출토 홍몽남 배위, 경기도박물관, pp.245-252.

치마는 7점으로 전단후장형 2점, 접음단형 1점, 장치마 1점, 솜치마 3점이다. 솜에 사용된 치마는 No. 56+36 모시홀장치마, No. 58 주(紬)겹접음단치마, No. 59 화문사(花紋紗) 홀전단후장형치마이다. 겹치마 1점이 솜에 사용되었다.

No.58 겹치마는 솜용으로 추정하며, 겹감과 안감 모두 주(紬)로 만들고, 속에는 저주지를 넣어 매우 얇은 솜치마처럼 보인다. 허리말기는 있으나 허리끈은 없다. 치마길이는 79cm로 접음단을 포함하면 94cm, 치마 너비는 405cm이다. 허리말기의 너비는 8cm, 허리둘레는 80cm이며, 치마끈은 없다. 주름의 크기는 2~3cm이다. 주름의 방향은 오른 주름이다. 치마 접음단은 치마 도련에서 높이 15cm 되는 곳에서 접음단 분량을 16cm를 받을 접어 성글게 넓게 시침하여 8cm 너비 접음단을 완성하였다. 치마도련의 가장자리를 눈썹단으로 마무리한 후 단이 밀리지 않도록 끝을 한 번 더 시침하여 주었다.

8. 충남 천안시 유량동 무연고 여성 묘 출토 접음단치마¹⁴

1996년 12월 10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유량동 60-1번지에서 발견되었다. 묘주는 무연고 여성으로, 몰년은 16세기 중반으로 추정하며, 염습의 구분은 불가능하다.

치마는 3점으로 No.10504 모시홀치마, No.10505 연화만초문단 솜치마, No.10506 명주 솜누비치마가 있다. 이 가운데 접음단 치마는 2점으로 No.10505 겹감은 연화만초문단, 안감은 명주로 만들고 솜을 둔 연화만초문단솜치마와 No.10506 겹감과 안감 모두 명주로 만들고 솜을 둔 솜누비치마가 있다.



그림 5. 천안시 유량동 출토 치마(No.10506)
『분홍단령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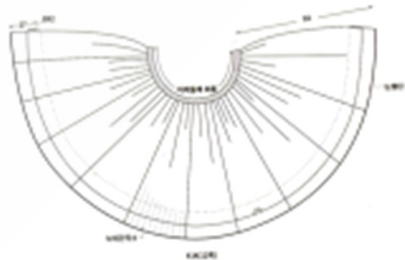


그림 6. <그림 5> 천안시 유량동 출토 치마
실측도(No.10506) 『분홍단령의 비밀』

14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5, 분홍단령의 비밀-충남 천안시 유량동 무연고 여성 묘 출토 복식, 서울, 한국 : 민속원, pp.68-73.

(1) No.10505 연화만초문단숨치마

연화만초문단숨치마로 허리말기와 허리끈이 모두 있는 완형의 치마이다. 치마길이는 좌측은 92cm, 우측은 89.5cm, 치마너비는 415cm이다. 허리말기의 너비는 4.5cm, 허리둘레는 107cm이며, 치마끈은 너비 5.5cm, 길이 106cm이다. 주름의 크기는 2~2.5cm이다. 치마길이는 치마접음단을 포함하면 108cm이다. 치마 접음단은 치마 도련에서 높이 17.7cm 되는 곳에서 접음단 분량을 16cm를 받을 접어 성글게 넓게 시침하여 8cm 너비 접음단을 완성하였다. 치마도련의 가장자리를 눈썹단으로 마무리한 후 단이 밀리지 않도록 끝을 한번 더 시침하여 주었다.

(2) No.10506 명주숨누비치마<그림 5, 6>

명주숨누비치마로 겹감과 안감 모두 명주로 만들었다. 명주 1폭은 35.5cm로 12폭을 이어 치마 너비는 414cm이다. 치마길이는 92cm이다. 유물을 보수하여 완성하여 허리둘레는 알 수 없다. 치마 접음단은 치마 도련에서 높이 17cm에서 접음단 분량을 16cm를 받으로 접어 8cm 너비의 접음단이다. 접음단은 풀린 상태로 수습되었으나 끝부분에 조금만 접혀있었다고 한다.

9. 진주류씨 배위 박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¹⁵

경기도박물관에서 2004년 4월 2일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무능리 소재 진주류씨 합장묘에서 출토복식을 수습하였다. 부부는 미라 상태였으며, 복식의 훼손이 심하여 복식은 일부만 수습하였다.

박씨의 묘에서 수습된 치마는 2점이다. No.11 운문단 솜치마와 No.15 주(紬) 솜누비치마이다. 접음단치마는 1점(No.11)이다.

No.11 운보문단 솜치마는 솜에 사용되었고, 겹감은 아청색 운보문단과 안감은 명주로 만든 솜을 매우 얇게 둔 접음단 솜치마이다. 치마허리는 있으나 치마끈은 없다. 치마길이는 81cm이며, 치마너비 416cm이다. 치마 접음단 분량을 포함한 치마길이는 107cm이다. 치마허리는 너비 6.5cm, 허리길이는 98cm이다. 주름의 크기는 2.5~3.5cm이다. 오른 주름이며 치마는 오른쪽으로 여몄다. 치마 접음단은 치마 도련에서 높이 20cm 되는 곳에서 접음단 분량을 23cm를 받을 접어 성글게 넓게 시침하여 11.5cm 너비 접음단을 완성하였다.

15 송미경·박진영, 2006, 진주류씨(晉州柳氏) 합장묘 출토복식 고찰, 진주류씨 합장묘 출토복식, 경기도박물관, pp.114~241.

치마도련의 가장자리를 눈썹단으로 마무리하였다.

10. 일선문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¹⁶

1996년 경상북도 안동시 정상동에서 고성이씨 문중 묘 이장과정에서 일선문씨와 그의 손자 이응태(李應台, 1556~1586) 묘에서 복식이 출토되었다. 일선문씨는 이명정(李命貞, 1504~1565)의 배위이다. 일선문씨의 생몰년은 16세기 중반으로 짐작할 수 있다. 안동 대학교박물관소장이다.

치마는 5점이 수습되었다. 습에는 4점(MN 48, MN49, MN50, MN51)이 사용되었고 소렴에 1점(MN33)이 사용되었다. 습에 사용된 치마를 입은 순서는 가장 안쪽에 MN51 명주 솜치마, 그 위에 MN50 누비솜접음단치마, 그 위에 MN49 모시홀치마, 그 위에 MN48 명주홀치마를 입었다. 접음단치마는 1점(MN50)이다.

“MN50 누비솜치마는 습에 사용되었고, 겹감과 안감 명주로 만든 누비솜치마로 접음단 치마이다. 치마허리와 치마끈은 없다. 치마길이는 85cm이며, 치마너비 418cm이다. 치마 허리와 길이는 알 수 없다. 주름의 크기는 2~2.5cm이고 누비간격은 9.5cm이다. 오른쪽으로 여몄다. 치마의 접음단은 치마 도련에서 높이 22cm 되는 곳에서 접음단 분량을 14cm를 반을 접어 곱게 홑질하여 7cm 너비 접음단을 완성하였다. 치마도련의 가장자리를 눈썹단으로 마무리한 후 단이 밀리지 않도록 끝을 한 번 더 시침하여 주었다. 이 치마는 습의 가운데 유일하게 9.5cm 간격의 누비옷이었다.”

11. 구성이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¹⁷

2009년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산61번지 일원에서 출토되었고, 현재 수원박물관으로 이전되어 전시되고 있다. 장저고리와 철릭 등의 복식의 형태와 유물의 종류를 미루어 짐작할 때,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파평윤씨(1566년)의 복식과 가장 유사하여 구성이씨의 몰년도 16세기 중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16 이은주, 2000, 일선문씨와 이응태 묘 출토 복식 고찰, 안동 정상동 일선 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보고서, 안동시, 안동 대학교박물관, pp.171-290.

17 권영숙 외, 2015, 여흥이씨·구성이씨 묘 출토 바지 및 치마 고찰, 경기도 오산 여흥이씨·구성이씨 墓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수원박물관, pp.134-153.

구성이씨 묘 출토치마는 5점이며, 습의 2점(No.6, No.7), 소렴의(No.17) 1점, 대렴의(No.27) 1점, 그리고 산의(散衣) 1점(No.31)이다. 5점 가운데 3점(No.6, No.27, No.31)은 겹치마이고, 2점(No.8, No.17)은 홀치마이다. 접음단치마는 습의에 1점, 대렴의에 1점, 산의에 1점이 사용되어 모두 3점이다.

(1) No.6 운보문단겹치마

습의로 사용한 접음단치마이다. 바지위에 No.6 운보문단겹치마를 입고, 그 위에 No.7 전단후장형 운문사홀치마를 입었다. 겹감은 운보문단, 안감은 성근명주로 만들었다. 치마길이는 98.3cm이고 도련에서 17.5cm에 시침이 있다. 치마너비는 1폭 60cm를 14폭 이어 840cm이다. 치마 말기너비는 7cm, 허리둘레는 90.3cm이다. 허리끈은 좌측은 너비 6cm, 길이는 72cm이고 우측은 끊어져 없다. 주름너비는 2.5~4cm이다. 치마 여밈의 방향은 오른 쪽이다.

(2) No.27 명주겹치마

대렴의(大簾衣)로 사용한 겹치마이다. 겹감은 명주, 안감은 성근명주로 만들었다. 치마 길이는 95cm로 17cm 올라온 곳에 17cm 부분과 26.5cm 부분에 시침질 흔적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접음단치마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솜이 아주 얇게 들어있다. 치마너비는 1폭 34cm를 12폭 이어 408cm이다. 허리가 풀어져 있어 측정할 수 없다.

(3) No.31 명주겹치마

산의(散衣)로 사용된 치마로 12폭의 치마를 5조각으로 찢어져 사용하였다. 겹감은 명주이고 안감은 성근명주이다. 치마 말기를 풀어 직사각형이다. 치마 길이는 103cm이고, 치마 도련에서부터 16cm, 31cm 되는 곳에 시침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접음단치마 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치마의 너비는 1폭의 너비가 39cm되는 12폭을 이어 466.5cm이다.

12. 용인이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¹⁸

2011년 5월 3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금고동에서 안정나씨 종중묘를 이장하면서 나문걸

18 백영미·하신혜, 2016, 안정나씨 일가 묘 출토 하의류에 관한 고찰, 대전 금고동 출토 안정나씨 일가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대전시립박물관, pp.148~164.

(羅文傑, ?~1548)의 며느리 용인이씨(생몰년 미상)의 묘에서 복식이 출토되었다. 용인이씨는 16세기 중후반에 활동했던 것으로 짐작한다.

용인이씨묘에서 출토된 치마는 10점으로 습의 3점, 소림의 4점, 대림의 1점, 산의 2점으로 사용되었다. 흘치마 4점, 겹치마 2점, 솜치마 2점, 누비치마 2점이다. 습의로 사용된 치마는 명주겹치마(No.74) 위에 명주 흘치마 2벌(No.73, 74)을 입었다. 접음단치마는 3점으로, 소림에 사용된 No.46 명주누비치마와, 대림에 사용된 No.42 운보문단 솜치마와 산의(散衣)로 사용된 운문단 솜치마 각 1점이 있다.

(1) No.23 운문단 솜치마

산의(散衣)로 수습된 솜치마로 겉감은 기하학적인 운문단, 안감은 명주로 된 솜치마이다. 치마길이는 114cm, 치마너비는 444cm이다. 도련에서 60cm 올라온 부분에 시침질한 흔적이 있으며, 아래로 30cm 시침질한 흔적으로 보아 접음단의 너비는 15cm이다.

(2) No.42 운보문단솜치마

대림용이며, 겉감은 운보문단이고 안감은 명주를 사용한 솜치마이다. 치마 말기가 뜯어져 있고, 말기에도 누비를 했다. 치마길이는 100cm, 치마너비는 432cm이다. 주름 너비는 3~4cm이다. 도련에서 47cm 올라온 부분과 아래로 23cm 떨어진 곳에 시침한 흔적이 남아있어 11.5cm 너비의 접음단치마 인 것으로 추측한다.

(3) No.46 명주누비치마

소림용이며, 겉감은 명주로 만들고 안감은 사면교직과 명주를 섞여있다. 치마길이는 109cm, 치마너비는 494cm로 1폭의 너비 38cm를 13폭 이어 만들었다. 누비간격은 7.5cm이다. 도련에서 49cm 올라간 부분과 아래로 26cm 부분에 시침한 자국이 있어 13cm 정도의 란을 만든 접음단치마 인 것으로 추측한다.

13. 여흥이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¹⁹

2009년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산61번지 일원에서 2개 묘에서 복식이 출토되었다. 현재 수원박물관으로 이전되어 전시되고 있다. 여흥이씨묘는 ‘宜人驪興李氏之柩’라고 적힌 명

19 권영숙 외, 2015, 앞의 논문, pp.134~153.

정과 구의(樞衣)가 있어 피장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복식의 형태와 유물의 종류를 미루어 짐작할 때, 고려대학교 박물관 소장 파평윤씨(1566년)의 복식과 가장 유사하여 여흥이씨의 물년은 16세기 중후반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흥이씨 묘 출토치마는 5점이며, 습의 2점(No.8, No.9), 소렴의(No.18) 1점, 대렴의(No.24, No.25) 2점이다. 5점 가운데 3점(No.18, No.24, No.25)은 솜치마이고, 1점(No.8)은 솜누비치마이고, 1점(No.9)은 홀이다. 습의로 사용된 치마는 소색명주솜누비치마(No.8)을 입고, 그 위에 ‘명주 앞부분 덧주름형 홀치마’(No.9)를 입었다. 이 가운데 3점(No.8, No.18, No.24)이 접음단치마다.

(1) No.8 누비솜치마

습에 사용되었고, 바지 위에 입힌 옷이다. 치마말기와 허리끈 등이 완전하게 있는 완형이다. 겉감은 명주, 안감은 성근명주로 만들고 솜을 넣어 누비간격 3.5~4cm으로 누볐다. 치마길이는 98cm이나 치마 도련에서 11cm, 24cm 부분에 시침 자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접음단치마로 추정한다. 치마너비는 412cm이다. 치마 말기는 너비 5cm, 길이 84cm이고, 허리끈은 좌측은 너비 6.5cm, 길이 98cm이고 우측은 너비 6.5cm, 길이 92cm이다. 치마 주름너비는 1.5~2.9cm이다. 치마의 여밈 방향은 오른쪽이다.

(2) No.18 솜치마

소렴에 사용되었고, 치마말기와 허리끈이 완전한 완형이다. 겉감은 명주, 안감은 성근명주로 만들고 솜을 둔 솜치마이다. 치마길이는 99cm이나 치마도련에서 16cm 부분과 32cm 부분에 시침자국이 있다. 치마너비는 555cm이다. 치마말기는 너비 5.5cm, 길이 87cm이다. 치마 허리끈은 좌측은 너비 4.5cm, 길이 96cm이고 우측은 너비 6cm, 길이 78.2cm이다. 치마 주름너비는 1.6~4cm이다. 치마의 여밈방향은 오른쪽이다.

(3) No.24 솜치마

대렴에 사용되었고, 치마허리는 풀려있고, 치마 허리끈은 좌측 일부만 있다. 겉감은 만초문단, 안감은 성근명주에 솜을 둔 솜치마이다. 치마길이는 99cm이나 치마도련에서 17cm, 33.5cm에 시침흔적이 있다. 치마너비는 395cm이다. 치마말기는 풀려있어 치수는 알 수 없고, 치마 허리끈은 좌측 너비 4.5cm에 44.5cm만 남아 있다. 치마 주름너비는 2~3.8cm이다. 치마의 여밈 방향은 오른쪽이다.

14. 충주박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²⁰

2004년 5월 20일 대전광역시 중구 목달동에서 여산송씨 가문의 묘를 이장하는 과정에서 수습되었다. 충주박씨는 송희최(宋禧崔)의 배위로 무덤은 합장묘였다. 유물은 현재 대전 역사박물관 소장이다. 유물은 16세기 중후반의 특징을 보여준다.

충주박씨 묘에서는 치마가 6점(충주박씨No.15, No.16, No.17, No.18, No.19, No.20)이 수습되었다. 치마는 습의로 3점(충주박씨No.15, No.16, No.17)을 입고, 소렴용 1점(충주박씨 No.18), 대렴용 1점(충주박씨No.19), 산의 1점(충주박씨No.20)으로 사용되었다. 습의로 사용된 치마는 접음단누비치마(충주박씨 No.15)를 입고, 그 위에 홀치마(충주박씨 No.16, No.17) 2벌을 입었다. 충주박씨묘에서 출토된 접음단치마는 3점이다.

(1) 충주박씨No.15 누비솜치마

습용으로 가장 속에 입었던 솜누비 접음단치마이다. “겉감은 명주, 안감은 삼베와 교직으로 되어있다. 치마길이는 83cm이고, 치마너비는 390cm이다. 치마말기는 너비 5.5cm, 길이 82cm이다. 치마끈은 좌측이 너비 6cm, 길이 73cm, 우측이 너비 4cm, 길이 82cm이다. 치마 주름너비는 2~2.5cm이다. 누비간격은 4~4.5cm이다. 아랫단에서 높이는 17cm에서 14cm 만큼 접음단 처리를 하였다.”

(2) 충주박씨No.18 솜치마

소렴의로 사용된 솜치마이다. 겉감은 모란문단이고 안감은 명주로 가운데 부분은 삼베로 대어져 있다. 치마길이는 85cm이고 치마너비는 434cm이다. 허리는 풀어져있어 치수는 알 수 없다. 치마 주름너비는 2.5~4cm이다. “아랫단에서 27cm 부분과 15cm 되는 부분에 면사로 된 시침자국이 있고, 다른 솜치마에 비해 14~17cm 정도 길므로 이를 미루어 보아 란치마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3) 충주박씨No.20 솜치마

“산의(散衣)로 사용된 솜치마이다. 겉감은 무명, 안감은 삼베로 만들었다. 치마길이는 80cm이고, 치마너비는 340cm이다. 허리는 풀려 있어 알 수 없으며, 치마 주름너비도 알 수 없다. 아랫단 20cm 되는 곳에서 7.5cm 넓이로 턱을 잡아 늘어 뜨렸고, 이를 1.5~2cm

20 백영미, 2007, 여산송씨 배위 충주박씨, 순흥안씨 묘 출토 치마에 관한 고찰,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대전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pp.151-160.

간격으로 시쳐 고정시켰다.”

15. 안동김씨(1505~?) 묘 출토 접음단치마²¹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품으로, 2009년 10월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에서 이장하면서 부부합장묘에서 유물을 수습하였다. 안동김씨(1505~?)는 이헌충(李憲忠, 1505~1603)의 부인이다. 이헌충은 조선 정종(定宗)의 7남의 5대손이다. 부인 안동김씨는 물넛은 알 수 없다. 치마는 3점이 수습되었다. 치마의 용도는 알 수 없다. 1점은 접음단치마, 1점은 거들단과 접음단이 동시에 있는 치마, 1점은 일반치마이다.

(1) No.11494 겹치마(그림 7)

겉감과 안감 모두 명주로 만든 겹치마이다. “치마길이는 98cm이나 상부중심을 걸어주고 하부는 접어주어 만든 특별한 옷이다. 앞중심의 길이는 85cm이다. 허리말기는 없으며, 허리둘레는 105cm이다. 주름너비는 겹주름은 2~3cm, 안주름은 4~5cm이다. 치마너비는 484cm이다. 거들부분은 주름 시침선에서 18cm 내려와 너비 4.5cm를 접었다. 거들부분은 길이는 152cm이다. 접음단은 도련에서 23.5cm 높이에서 11cm를 반으로 접어 접음단의 너비는 5.5cm이다. 거들단치마와 접음단이 동시에 있는 치마이다.”



그림 7. 안동김씨 묘 출토 치마(No.11494)
『전주이씨 수도군파 5세 이헌충과 부인 안동김씨 묘 출토복식』

(2) No.11495 겹치마

겉감은 세주(細紬), 안감은 거친 주(紬)로 만든 겹치마이다. 연화만초문단숨치마로 허리말기는 있으나 치마끈은 끊어진 상태이다. 겉감은 옷감 1폭 너비 30.5cm 15폭을 이어 치마 너비는 450cm이다. 치마길이는 85cm이다. 허리말기의 너비는 4.5cm, 허리둘레는 77cm이며, 치마끈은 없다. 주름의 크기는 겹주름은 2.8~4cm, 안주름은 3cm이다. 주름의 방향은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 치마 접음단은 치마 도련에서 높이 23cm 되는 곳에서 접음

21 이명은, 2019, 경기도 포천 소재 이헌충 공과 배위 안동김씨 묘 출토복식, 전주이씨 수도군파5세 이헌충과 부인 안동김씨 묘 출토복식, 단국대학교출판부, pp.114~138.

단 분량을 19.6cm를 반을 접어 성글게 넓게 시침하여 9.8cm 너비 접음단을 완성하였다. 치마도련의 가장자리를 눈썹단으로 마무리하였다.

16. 평산신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²²

2004년 경북 문경시 산양면 연소리 소재 평산신씨 묘에서 출토복식이 수습되었다. 피장자의 연대는 16세기 후반으로 추정되었다. 피장자 평산신씨는 장수황씨 황지(黃贄)의 부인이다. 평산신씨 묘에서 치마는 총 7점이 수습되었다. 습의로 홀금선단치마 1점과 모시홀치마 2점이 사용되었다. 염의로 누비치마 1점과 솜치마 3점이 사용되었다. 접음단치마는 염의(斂衣)로 사용된 No.1436 솜치마이다.

No.1436 솜치마는 겹감과 안감 모두 주(紬)를 사용했고, 솜을 두둑히 넣은 솜치마이다. 치마길이는 107cm이나 치마단을 접으면 80cm가 된다. 밑단에서 20cm 올라온 지점에서 26cm를 반으로 접어 접음단 너비는 13cm이다. 1~1.5cm 간격으로 홈질한 시침실이 남아있다. 치마의 너비는 375cm로 1폭의 너비 27~33cm 폭을 13폭 이었다. 허리너비 5cm, 허리둘레는 84cm이다. 치마허리에도 누볐다. 치마 주름은 26개이고 주름의 크기는 3~3.5cm이다.

17. 광주 양산동 무연고 묘 출토 접음단치마²³

2005년 4월 광주광역시 북구청에서 실시한 양산택지개발공사 과정 중 광주광역시 북구 본촌동 산 107-13번지에서 발견된 무연고 여성 묘에서 출토복식이 수습되었다. 전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였다. 출토유물로 볼 때 16세기 중후반~17세기 전반으로 추정한다.

치마 2점은 습(襲)에 사용되었다. No. 16 모시홀치마를 입고, 그 위에 No.15 면포 홀접음단치마를 입고 있었다. 1점(No.15)이 접음단치마이다.

No.15 면포홀치마는 습에 사용된 치마로, 시신에 입혀진 상태는 시접이 보이는 부분이 겹을 향했다. 치마길이가 104cm이나 접음단을 접으면 85cm이다. 치마너비는 420cm이다. 허리말기는 부분만 남아 있어 길이는 알 수 없고, 허리말기의 너비는 5cm이다. 치마 도련에서 높이 22.5cm 되는 곳에서 너비 19cm를 반으로 접어 접음단의 너비는 9.5cm이다.

²² 정미경, 2005, 평산 신씨 묘 출토복식의 구성법에 관한 연구, 금선단 치마입고 어디 다녀 오셨을까, 문경시, pp.124~181.

²³ 광주광역시 북구청·㈜엔가드 부설 문화재연구소, 2006, 광주 양산동 회곽묘 출토유물 보존처리, p.23, pp.43~44, pp.92~93.

18. 이기남(李箕南, 1533~1605) 묘 출토 접음단치마²⁴

2006년 전라남도 장성군의 청안씨 문중에서 선대의 묘를 이장하는 도중에 이기남의 묘에서 복식유물이 수습되었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이다. 치마는 2점이 수습되었으나, 1점은 훼손이 매우 심한 상태이다. 1점(석탄공No.14)이 접음단치마이다.

석탄공No.14 누비치마는 겹감과 안감 모두 주(紬)로 만든 누비접음단치마이다. 누비간격은 4cm 이고, 치마허리와 주름은 모두 풀려있는 상태이다. 치마길이는 103cm이나 접음단을 접으면 85cm이고, 치마너비는 407.5cm이다. 접음단은 도련에서 높이 22cm에 접음단의 너비는 18cm를 반으로 접어 9cm이다.

19. 순흥안씨(順興安氏, 1551~1609) 묘 출토 접음단치마²⁵

2007년 10월 경기도 광주시 경안면 송정리 소재 해남윤씨 굴정공파 일가의 묘를 이장 중, 순흥안씨(1551~1609)는 윤선언(尹善言, 1580~1628),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 생모로 숙인(淑人)을 증직받았다.

순흥안씨 묘에서 출토된 치마는 모두 5점이다. 운보문단 홀치마 1점, 주(紬)누비치마 1점, 모란만초문단 겹치마 1점, 주 겹치마 2점이다. 습에 사용된 치마는 누비 주(紬)치마)위에 홀 보상만초 운보문단 홀치마를 입었다. 접음단 치마는 1점(No. 9512)이다.

“No. 9512 모란만초문단겹치마는 보공에 사용되었고, 허리말기와 허리끈이 모두 있는 완형의 치마이다. 안감은 주(紬)로 만들었다. 풀숨이 매우 얇게 들어있다. 치마길이는 89cm, 치마 너비는 432.5cm이다. 허리말기의 너비는 6cm, 허리둘레는 100cm이며, 치마끈은 왼쪽이 너비 5.5cm, 길이 86.5cm이다. 오른쪽 치마끈은 너비 5.5cm, 길이 63cm이다. 주름개수는 29개로 주름의 크기는 2.5~4cm이다. 주름의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향하고 있다. 치마여밈은 왼쪽으로 여며 입었던 것으로 본다. 도련단에서 20cm 위 종아리 부근에 길이 9.5cm를 골로 접어 중간단층(이층)을 만들었다. 치마도련의 가장자리는 제물단으로 시접을 겹으로 꺾었다.”

24 미간행, 고려대학교박물관, 2019, 특별전, 오백년의 기억, 삶과 죽음을 읽다. 2019.5.2.-8.23.

25 고부자, 2009, 海南尹氏 橘亭公派 廣州出土 遺物 研究, 韓國服飾 27, pp.35-80.

20. 장기정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²⁶

1999년 경북 포항시 내단리 야산에서 기자헌(奇自獻, 1562~1624)의 후배(後配) 장기정씨(1565~1614)묘에서 복식이 출토되었다. 안동대학교박물관소장이다. 치마는 모두 7점이 수습되었다. 흘치마 2점, 겹치마 1점, 솜치마 4점, 누비솜치마 1점이다. 장기정씨의 습에는 JJ25 솜화문단접음치마와 JJ27 화문단겹치마가 사용되었고, JJ26 누비솜치마, JJ24 솜접음단치마, JJ22 솜면포접음단치마, JJ21 흘치마가 대소렴용으로 사용되었고, JJ23 흘치마가 보공용으로 사용되었다. 접음단치마는 3점으로 JJ25 솜화문단치마, JJ24 솜치마, JJ22 솜치마이다.

(1) JJ22 솜치마

겉감과 안감 모두 면포를 사용한 솜치마이다. 대소렴용으로 사용되었다. 치마길이 86cm이나 접음단을 펼치면 99cm가 된다. 치마너비는 388cm이다. 치마허리는 풀린 상태로 염에 사용하였다. 접음단은 도련에서 14cm에서 13cm를 반으로 접어 6.5cm너비이다. 주름의 너비는 3.5~6.5cm이다.

(2) JJ24 솜치마

겉감과 안감 모두 명주를 사용한 솜치마이다. 대소렴용으로 사용되었다. 치마길이 88cm이나 접음단을 펼치면 102cm가 된다. 치마너비는 372cm이다. 치마허리는 풀린 상태로 염에 사용하였다. 접음단은 도련에서 16cm에서 14cm를 반으로 접어 7cm너비이다. 주름의 너비는 알 수 없다.

(3) JJ25 솜치마

겉감은 화문단, 안감은 명주를 사용한 치마로 습용이다. 치마길이는 85cm이나 접음단을 펼치면 99cm가 된다. 치마너비는 405cm이다. 치마허리는 너비 7cm, 허리둘레 101cm이며 허리끈은 없다. 접음단은 도련에서 16cm에서 14cm를 반으로 접어 7cm 너비이다. 주름너비는 4~6cm이다.

26 이은주, 2001, 長鬚 鄭氏(1565~1614) 墓의 출토 복식과 기타 유물,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안동대학교박물관, pp.50~70.

21. 남양주호평 무연고 묘 출토 접음단치마²⁷

2001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지구 12호분 남녀합장묘에서 여자 관에서 복식이 출토되었다. 경기도박물관 소장품이다. 물년은 1620년대 전후로 추정한다.

치마는 4점 가운데, 1점만 완전한 형태이며, 나머지는 훼손이 심하다. 치마 3점이 접음단치마로 확인되었다.

(1) 겹치마

습에 사용된 것으로 추측하는 사계화와 봉황이 있는 화문단 겹치마이다. 치마길이 96cm, 치마너비 435cm이다. 허리와 허리끈이 있는 완형의 치마이다. 치마 접음단은 도련에서 14cm 되는 곳에서 13cm를 접어 접음단의 너비는 6.5cm이다.

(2) 용도는 알 수 없고, 모란문단 겹치마이다. 치마길이는 93cm, 치마너비는 알 수 없다. 허리너비는 5cm이다. 치마 접음단은 도련에서 15cm 되는 곳에서 14cm를 접어 접음단의 너비는 7cm이다.

22. 고부이씨(古阜李氏) 묘 출토 접음단치마²⁸

2004년 3월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파평윤씨(坡平尹氏) 문중 선산에서 출토된 재령공파(載寧公派) 어모장군(禦侮將軍) 윤좌형(尹佐衡)과 부인인 고부이씨의 묘에서 복식이 출토되었다. 윤좌형은 병자호란 때에도 활동했으며, 고부이씨의 유물은 17세기 초반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라니가 출토되어 당시의 상례풍습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품이다.

치마는 2점이 수습되었다. 1점은 완형의 솜치마(No.10308)로 습용으로 수의(壽衣)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치마 1점(No.10318)은 4조각으로 분리된 채 대렴에 사용되었다. 고부이씨는 습에 치마 1점(No.10308)만 사용하였으며, 접음단치마이다.

솜치마(No.10308)는 치마의 겉과 안감을 면포로 만들고 두터운 솜을 둔 접음단치마로, 습에 사용되었다. 치마길이는 81.5cm이며 치마너비는 340cm이다. 치마말기는 너비는

27 송미경, 2001, 남양주 호평 3지구 12호분 출토복식, 南陽州 好坪·坪內 宅地開發地區內 文化遺蹟 試·發掘調查報告書(Ⅰ)-朝鮮時代 墳墓群,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公社, pp.240-247.

28 이명은, 2011, 전북 부안 고부이씨(古阜李氏) 묘(墓) 출토 유물에 관한 연구, 韓國服飾, 제29호, pp.68-166.

4cm, 길이는 87cm이다. 치마끈은 잘려나가고 없다. 주름크기는 주름너비 2cm이다. 주름은 왼쪽에서 시작되고, 치마여밈은 오른쪽이다. 치마도련에서 높이 18.5cm 높이에서 17cm를 접어 접음단 너비는 8.5cm이다. 접음단을 펼치면 치마길이는 98.5cm이다.

23. 여흥민씨 묘 출토 접음단 치마²⁹

2003년 3월 31일 충청남도 연기군 전동면 심중리에서 청주한씨 송재(松齋) 문정공파(文貞公派) 선산에서 이장 도중 한준민(韓俊敏, 1570~1638)의 처 여흥민씨(驪興閔氏, 17세기 전반, 11월22일 卒) 묘에서 출토되었다. 한준민 일가의 묘는 견직물은 삭아 없어지고 솜과 면직물 종류만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이다.

여흥민씨 묘에서 수습된 치마는 2점이다. No.10366 솜치마는 습에 사용되었고, No.10372 겹치마는 소렴에 사용되었다. 2점 모두 접음단치마이다.

(1) No.10366 누비솜치마

여흥민씨의 습의로 3점의 바지 위에 입고 있었던 솜누비치마이다. 겉감은 견직물이었으나 없어지고 솜과 무명 안감만 남아있다. 견실로 4.5cm 간격으로 누빈 자국이 남아 있어, 이곳은 누비솜치마임을 알 수 있다. 치마길이는 치마말기를 포함하여 접음단 상태에는 88cm이며, 접음단을 펼치면 110cm가 된다. 치마너비는 398cm이다. 치마 말기는 너비 4.2cm, 허리둘레는 89cm이다. 치마끈은 너비 4cm가 달렸던 흔적만 있다. 치마의 주름은 왼쪽을 향한 주름이다. 접음단은 도련에서 높이 20cm 되는 곳에 22cm를 반으로 접어 11cm가 되도록 겹쳐 접어 넓게 시침하듯이 고정하였다.

(2) No.10372 겹치마

여흥민씨의 소렴에 사용한 겹치마이다. 겉감과 안감은 무명으로 만들었다. 이 치마는 치마허리가 없어 주름이 모두 퍼진 상태이고, 수습당시 접음단 부분이 퍼져 있었으나 접힌 자국이 뚜렷하여 접음선을 따라 복구하였다. 치마길이는 접음단을 접은 상태는 81cm, 펼친 상태는 98cm이다. 치마너비는 420cm이다. 허리선 왼쪽 끝부분에 주름 너비 2.5cm 주름이 4개 남아 있다. 접음단은 도련에서 18cm 되는 곳에서 15cm 너비로 접어 접음단은 7.5cm가 된다.

29 이명은, 2013, 한준민일가 묘 유물 출토, 영릉 참봉 한준민 일가 묘 출토 유물,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편, p.10, pp.74-76.

24. 성주도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³⁰

2014년 6월5일 충북 괴산군 소수면 입암리에 청주양씨 교리공 문중의 선산의 묘역을 정리하던 중 양환(楊瓚)의 부인 성주도씨(17세기 전반~중반)묘에서 복식이 출토되었다. 경기도박물관 소장이다. 치마는 1점(No.11504)이 수습되었고, 습용이다. 이 치마는 앞중심으로 여민 것이 특징이다.

No.11504 면포접치마는 습용으로 사용되었고, 바지 위에 치마 1벌만 입었다. 치마하단에 접음단장식이 있는 치마이나 수습당시에는 접음단이 펼쳐져 있었다. 치마길이는 좌우가 달라서 우측은 79cm이나 접음단을 펼치면 95cm이고, 좌측은 75cm로 접음단을 펼치면 91cm이다. 치마너비는 353cm이다. 치마허리는 너비 5cm, 허리둘레는 102cm이다. 허리 끈은 잘라져 일부만 남아 있다. 치마접음단은 도련에서 15.5cm 올라간 곳에 16cm를 반으로 접어 너비 8cm의 접음단 장식을 하였다.

25. 단양우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³¹

1995년 3월 12일 충남 천안시 풍세면에서 제주고씨 문충공(文忠公)과 참판공(參判公) 고여우(高汝雨, ~1604년 이후)와 배위 단양우씨(丹陽禹氏), 그의 아들 고경행(高擎行)의 묘에서 복식이 출토되었다.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품이다. 단양우씨 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치마는 4점이다. 치마 4점은 No. 11 무명겹접음단치마, No. 12 수의로 사용된 명주솜누비치마, No.13 무명겹치마와 정보가 없는 치마 1점이다. 1점(No.8379)이 접음단치마이다.

접음단치마(No.8379)는 용도는 알 수 없고, 색깔은 무명, 안감은 삼베로 만든 겹치마이다. 허리말기는 있으나 허리끈은 없다. 치마너비는 372cm이다. 치마길이는 78cm로 접음단을 포함하면 92cm이다. 허리말기의 너비는 2.6cm이고, 허리둘레는 92cm이며, 치마끈은 없다. 주름의 크기는 2~4.8cm이다. “아랫단 부근에 7cm의 간격만큼 접어서 2층 모양을 이룬 것이 있다. 치마도련의 가장자리를 눈썹단으로 마무리한 후 단이 밀리지 않도록 끝을 한 번 더 시침하여 주었다.”

30 정미숙·허정애, 2016, 청주양씨 일가 묘 출토 복식 고찰, 청주양씨 기증 유물전, pp.231-254.

31 고부자, 1997, 천안 풍세면 출토 제주고씨 유물에 대한 연구, 韓國服飾 15호, pp.65-119.

26. 광산김씨(光山金氏) 묘 출토 접음단치마³²

2006년 전라남도 장성군의 청안이씨 문중에서 선대의 묘를 이장하는 도중에 석탄(石灘) 이기남(李箕南, 1533~1605)의 부인인 광산김씨 묘에서 복식이 출토되었다. 광산김씨 묘에서는 접음단치마 1점(광산김씨No.1)이 수습되었다.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이다.

광산김씨No.1 겹치마는 치마길이 83cm, 치마 너비는 419.5cm이다. 접음단을 펼치면 101cm이다. 겹감은 주(紬)와 공단을 이어서 사용했다. 주는 20cm 너비 1폭과 37cm 1폭 그리고 36.5cm 1폭을 잇고, 공단은 25.5cm 너비 2폭과 너비 53cm를 5폭을 이어서 모두 10폭으로 419.5cm 치마를 만들었다. 안감은 주와 면포를 섞어 사용했다. 치마허리말기도 소실되고, 주름이 퍼진 상태이나 주름의 흔적과 옷감으로 보아 오른쪽 여밈으로 추정된다. 도련에서 18cm 올라온 곳에서 접음단은 9cm 너비이다.

27. 전주이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³³

1987년 충북 청원군 낭성면 관정리에서 고령신씨묘 이장을 하면서 발굴되었다. 전주이씨는 신득치(申得治, 1592~?)의 부인으로 생몰년을 알 수 없으나, 20세 전후인 임진란 이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치마는 3점이 있다. 모두 무명치마로 무명 홀치마 1점과 무명 겹치마 1점, 무명 솜치마 1점이다. 그 가운데 무명겹치마가 접음단치마이다. 치마의 용도는 알 수 없다.

무명겹치마는 “치마길이 88cm, 치마너비는 알 수 없지만 8폭의 치마라고 한다. 특징은 치마의 아랫단에서 14cm 위치에 14cm 너비를 7cm 단으로 접어 고정시켰다”라는 것으로 보아 접음단치마이다.

28. 임계백(1598~1639) 부부합장묘 출토 접음단치마³⁴

1998년 7월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에서 분묘 이장 중 임계백 부부합장묘 복식이 출토되었다. 충북대학교박물관 소장이다. 임계백과 합장된 부인은 양천허씨이다. 임계백 묘에서

³² 이명은, 2019, 고려대학교박물관 특별전 ‘오백년의 기억, 삶과 죽음을 입다’ 전시해설.

³³ 김동욱·장인우, 1998, 壬亂 前後 全州李氏墓 出土遺衣, 出土遺衣 및 近代服飾論巧, 忠北大學校博物館, pp.9~24.

³⁴ 장인우, 1998, 임계백·임계백 묘 출토복식, 年報 7, 충북대학교박물관, pp.73~132.

12점이 수습되어 도포1점, 창의1점, 저고리 4점, 치마 1점, 바지3점, 버선 1점, 이불 1점, 그 외 식물 다수가 있다고 한다. 임계백 부부합장묘 출토복식의 보고서를 보면 남녀복식의 구분은 확실하지 않다. 임계백부부합장묘의 출토복식은 임계백 묘의 복식이라고 보아도 될 것 같다. 이 치마 1점을 임계백 부인 양천허씨 것으로 보고한 보고서도 있지만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다. 임계백 묘의 수례지의(綵禮之衣)라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갈색문양단겹치마 1점이 접음단 치마이다.

장인우는 ‘갈색 문양단겹치마’라는 단락에서 “본 유의의 특징은 갈색의 문양단을 사용하였으며, 밑단은 접어 두단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구성의 치마가 예안이씨(禮安李氏) 의례용 치마에서도 볼 수 있으며, 이 역시 그 추정연대가 16세기말 17세기인 점은 본 출토 치마와도 유사 시기로서 당시 일시적으로 유행한 치마형태가 아닌가 한다. 출토 문양단 겹치마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구성유형은 2겹이다. 재질은 문양단의 명주이다. 치마폭은 7폭이다.”라고 하였다. 치마의 치수는 알 수 없다. 사진으로 접음단치마인 것은 확인할 수 있다.

29. 예안이씨 묘 출토 접음단치마³⁵

1974년 안동댐 수몰지역 묘 이장 중 발굴되었다. 홍하량(洪河量, 1588~1632)의 배위인 예안이씨(禮安李氏, 1584~1655)의 치마이다. 안동대학교박물관 소장품이다. 연화보문단 겹치마로 치마길이는 85cm, 치마너비는 1폭이 59cm인 옷감 8폭을 연결하여 470cm이다. 치마 하단 16.5cm 위치에 8cm 가량의 넓이로 접어서 곱게 흠질로 꿰맨 횡단이 달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름은 33개이며, 주름너비는 2.1~2.9cm이다. 치마 말기의 너비는 6cm, 허리둘레는 89cm이며, 치마끈은 너비 2.6cm, 길이 81cm이다. 치마여밈은 오른여밈이다.

Ⅲ. 조선시대 묘 출토 접음단치마의 분석

1. 접음단치마의 염습(殮襲) 용도

〈표 1〉에서 보듯이 조선시대 출토복식 가운데 접음단치마가 수습된 묘는 29건으로 총

35 安東大學校博物館, 1996, 安東地域 傳統服飾, 경상북도, 한국 : 안동대학교박물관, p.4.

표 2.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접음단치마의 용도

번호	묘주	연대	접음단 치마 점수	용도					
				습	소렴	대렴	산의	보공	용도모름
1	신창맹씨 (나문걸의 부인)	16세기 초기	3	수습못함	2	1			
2	전주이씨 덕흥군 이존숙(1480~ 1538)의 고모 추정	16세기 초기	1						1
3	파평윤씨	1566년 몰년추정	3	1	1	1			
4	소의신씨 (명종 후궁)	1533~1565	1						1
5	별내무연고	16세기 초기	1			1			
6	청양무연고	16세기 중기	1	1					
7	연안김씨	16세기 중기	1	1					
8	천안유량동	16세기 중기	2						2
9	진주류씨의 부인 박씨	16세기 중기	1	1					
10	일선문씨	16세기 중기	1	1					
11	구성이씨	16세기 중기	3	1		1	1		
12	용인이씨 (나문걸의 며느리)	16세기 중후기	3		1	1	1		
13	여흥이씨	16세기 중후기	3	1	1	1			
14	충주박씨 (송희최의 부인)	16세기 중후기	3	1	1		1		
15	안동김씨 (이현충의 부인)	16세기 후기	2						2
16	평산신씨	16세기 후기	1		1				
17	광주양산동 무연고	16세기 중후기 ~17세기 초기	1	1					
18	이기남	1533~1605	1						1
19	순흥안씨	1551~1609	1					1	
20	장기정씨	1565~1614	3	1	2				
21	남양주호평무연고	17세기 초기	3	1(추정)					2
22	고부이씨	17세기 초기	1	1					
23	여흥민씨	17세기 초기	2	1	1				
24	청주도씨	17세기 초중기	1	1					
25	단양우씨	17세기 초기	1						1
26	광산김씨 이기남(1533~1605)의 부인	16세기 후기	1						1
27	전주이씨	16세기 후기	1						1
28	임계백	1598~1639	1						1
29	예산이씨	1584~1655	1						1
합계			48	14	7 3	6	3	1	14

48점이 수습되었다. 이 48점의 접음단치마를 용도별로 분석하면 <표 2>와 같다. 습(襲)에는 14건 14점으로 29%가 사용되었고, 소렴(小殮)은 6건 7점으로 15%, 대렴(大斂)은 6건 6점으로 13%, 보고서에 소렴과 대렴의 구별이 명확하지 않은 소대렴용으로 분류된 것이 2건 3점으로 6%, 산의(散衣)로 분류된 것이 3건 3점으로 6%, 보공용이 1건 1점으로 2%이며, 용도를 모르는 것으로 보고된 것이 11건 14점으로 29%이다.

습에 접음단치마가 사용된 묘는 파평윤씨 묘, 청양무연고 묘, 진주류씨 부인 박씨 묘, 일선문씨 묘, 구성이씨 묘, 여흥이씨 묘, 충주박씨 묘, 광주양산동무연고 묘, 장기정씨묘, 남양주호평 무연고 묘, 고부이씨 묘, 여흥민씨 묘, 청주도씨 묘의 경우이다.

소렴에 접음단치마가 사용된 경우는 신창맹씨 묘, 파평윤씨 묘, 용인이씨 묘, 여흥이씨 묘, 충주박씨 묘, 여흥민씨 묘이다.

대렴에 접음단치마가 사용된 경우는 신창맹씨, 파평윤씨 묘, 별내 무연고 묘, 구성이씨 묘, 용인이씨 묘, 여흥이씨 묘이다.

소·대렴의 용도가 불확실한 것은 평산신씨 묘, 장기정씨 묘이다. 산의(散衣)에 접음단치마를 사용한 경우는 구성이씨 묘, 용인이씨 묘, 충주박씨 묘이고, 순흥안씨 묘에서는 보공으로 사용하였다.

접음단치마를 습에 사용된 경우에 함께 입은 치마를 살펴보면 파평윤씨는 습용으로는 주(紬)로 만든 겹접음단치마 1점만 입었다. 충북 청양 안심리 무연고 여인은 바지 위에 솜접음단치마를 입고, 그 위에 모시홀치마, 그리고 무명홀치마 순서로 치마를 3벌을 입었다. 연안김씨는 모시 장치마에 주(紬)로 만든 겹접음단치마, 그 위에 홀으로 된 화문사 전단후장형치마를 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진주류씨 부인 박씨는 운문보문단 솜치마를 입었다. 일선문씨는 바지 위에 명주솜치마에 누비접음단치마를 입고 그 위에 모시홀치마와 명주홀치마를 입었다. 구성이씨는 바지 위에 운보문단겹접음단치마를 입고, 그 위에 운문사 전단후장형치마를 입었다. 여흥이씨는 바지 위에 솜누비접음단 치마를 입고, 그 위에 명주 홀 전단후장형치마를 입었다. 충주박씨는 바지 위에 명주솜누비접음단치마를 입고, 그 위에 모시홀치마를 입은 위에 명주홀치마를 입었다. 9)광주 양산동 출토 무연고 여인의 경우에는 바지 위에 모시홀치마를 입고, 그 위에 면포 홀접음단치마를 입었다. 장기정씨는 바지 위에 화문단솜접음단치마에 화문단 겹치마를 입었다. 남양주 호평 출토 무연고 여인은 습에 화문단 접음단 치마를 입은 것으로 추정한다. 고부이씨는 바지 위에 무명 솜접음단치마 1벌만 입었다. 여흥민씨는 바지 위에 솜누비접음단치마 1벌만 입었다. 청주도씨는 바지 위에 면포 겹접음단치마 1벌만 입었다.

습에 사용된 14건의 접음단치마는 홀 1점, 겹 4점, 솜3점, 솜누비 6점으로 솜이나 누비와 같은 부피가 있는 옷이 64.3%이다. 또한 습용으로 사용된 접음단치마 14점 가운데 8점

은 접음단을 풀어 사용하였다. 접음단이 고정되어 있는 치마는 5점이고, 1점은 접음단의 고정 여부를 알 수 없다.

2. 조선시대 출토 접음단치마의 구성

〈표 3〉은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접음단치마의 구성을 나타내었다. 접음단치마 48점 가운데 홑치마는 1건 1점(2%)이 수습되었고, 겹치마는 16건 22점으로 47%를 차지하고, 솜치마는 10건 16점으로 34%이고, 누비치마는 8건 8점으로 17%이다. 홑치마는 1건 1점으로 2%이고, 솜치마와 누비치마를 합하면 51%이다. 홑치마도 면포로 만든 치마이다. 이는 접음단치마가 예복으로 사용되었다기보다는 실용적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홑접음단치마가 수습된 묘는 광주 양산동 무연고 묘 1건이다. 겹접음단치마는 파평윤씨 묘, 소의신씨묘, 남양주 별내 무연고 묘, 연안김씨 묘, 구성이씨 묘, 안동김씨묘, 전주이씨묘, 순흥안씨 묘, 남양주 호평 무연고 묘, 여흥민씨 묘, 청주도씨 묘, 단양우씨 묘, 광산김씨묘, 전주이씨 묘, 양천허씨 묘, 예안이씨 묘에서 수습되었다. 솜접음단치마가 수습된 것은 신창맹씨 묘, 충남 청양 무연고묘, 유량동 무연고 묘, 진주류씨 부인 박씨 묘, 용인이씨묘, 여흥이씨묘, 충주박씨묘, 평산신씨묘, 장기정씨묘, 고부이씨 묘이다. 누비접음단치마가 수습된 것은 신창맹씨, 충남 천안시 유량동 무연고 묘, 일선문씨 묘, 용인이씨 묘, 여흥이씨묘, 충주박씨 묘, 이기남 묘, 여흥민씨 묘이다.

표 3.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접음단치마의 구성

번호	묘주	연대	접음단 치마 점수	구성			
				홑	겹	솜	누비
1	신창맹씨 (나문걸의 부인)	16세기 초기	3			2	1
2	덕흥군 이존숙(1480~ 1538)의 고모 추정	16세기 초기	1		1		
3	파평윤씨	1566년 몰년추정	3		3		
4	소의 신씨 (명종 후궁)	1533~1565	1		1		
5	남양주 별내 무연고	16세기 초기	1		1		
6	청양무연고	16세기 중기	1			1	
7	연안김씨	16세기 중기	1		1		
8	천안 유량동 무연고	16세기 중기	2			1	1

번호	묘주	연대	접음단 치마 점수	구성			
				홀	겹	숨	누비
9	진주류씨의 부인 박씨	16세기 중기	1			1	
10	일선문씨	16세기 중기	1				1
11	구성이씨	16세기 중기	3		3		
12	용인이씨 (나문걸의 며느리)	16세기 중후기	3			2	1
13	여흥이씨	16세기 중후기	3			2	1
14	충주박씨 (송희최의 부인)	16세기 중후기	3			2	1
15	안동김씨 (이현충의 부인)	16세기 후기	2		2		
16	평산신씨	16세기 후기	1			1	
17	광주 양산동 무연고	16세기 후기 ~17세기 초기	1	1			
18	이기남	1533~1605	1				1
19	순흥안씨	1551~1609	1		1		
20	장기정씨	1565~1614	3			3	
21	남양주 호평 무연고	17세기 초기	3		3		
22	고부이씨	17세기 초기	1			1	
23	여흥민씨	17세기 초기	2				2
24	청주도씨	17세기 초중기	1		1		
25	단양우씨	17세기 초기	1		1		
26	광산김씨 이기남(1533~1605)의 부인	16세기 후기	1		1		
27	전주이씨	16세기 후기	1		1		
28	임계백	1598~1639	1		1		
29	예산이씨	1584~1655	1		1		
합계			48	1	22	16	8

3. 조선시대 출토 접음단치마의 소재

〈표 4〉는 접음단치마에 사용된 직물을 분석하였다. 직물의 명칭은 보고서에 따랐으며 면은 면포, 무명등을 포함한다. 견은 보고서에 주, 단, 룡 등 직물의 조직을 명시하지 않고 견 직물 또는 견이라고 한 것을 말한다. 접음단치마 총 48점 가운데, 주(紬)는 19점으로 42%, 단(段)은 14점으로 31%, 면(綿)은 11점으로 24%, 견(絹)은 4점으로 3%이다. 16세기 후기~17세기 초기로 갈수록 면의 사용빈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임진란을 겪은 후 어려워진 경제생활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표 4.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접음단치마의 소재 분류

번호	묘주	연대	접음단 치마 점수	직물			
				면	주	단	견
1	신창맹씨 (나문걸의 부인)	16세기 초기	3	2			1
2	덕흥군 이존숙(1480~ 1538)의 고모 추정	16세기 초기	1		1		
3	파평윤씨	1566년 몰년추정	3		2	1	
4	소의신씨 (명종 후궁)	1533~1565	1		1		
5	별내무연고	16세기 초기	1		1		
6	청양무연고	16세기 중기	1	1			
7	연안김씨	16세기 중기	1		1		
8	천안 유량동 무연고	16세기 중기	2		1	1	
9	진주류씨의 부인박씨	16세기 중기	1			1	
10	일선문씨	16세기 중기	1		1		
11	구성이씨	16세기 중기	3		2	1	
12	용인이씨 (나문걸의 며느리)	16세기 중후기	3		1	2	
13	여흥이씨	16세기 중후기	3		2	1	
14	충주박씨 (송희좌의 부인)	16세기 중후기	3	1	1	1	
15	안동김씨 (이현충의 부인)	16세기 후기	2		2		
16	평산신씨	16세기 후기	1		1		
17	광주 양산동 무연고	16세기 중후기 ~17세기 초기	1	1			
18	이기남	1533~1605	1		1		
19	순흥안씨	1551~1609	1			1	
20	장기정씨	1565~1614	3	1	1	1	
21	남양주호평무연고	17세기 초기	3			3	
22	고부이씨	17세기 초기	1	1			
23	여흥민씨	17세기 초기	2	1			1
24	청주도씨	17세기 초중기	1	1			
25	단양우씨	17세기 초기	1	1			
26	광산김씨 이기남(1533~1605)의 부인	16세기 후기	1		1 (주+단)		
27	전주이씨	16세기 후기	1	1			
28	임계백	1598~1639	1			1	
29	예안이씨	1584~1655	1			1	
합계			48	11	19	14	4

4. 조선시대 출토 접음단치마의 길이

조선시대 출토 접음단치마의 길이는 다양하다. 접음단을 포함하여 치마의 총길이는 89~14cm이고, 접음단을 접었을 때, 치마의 길이는 75~92cm이다. 접음단의 위치는 도련에서부터 11~39.5cm이다. 접음단의 높이는 청양 안심리 무연고 묘에서 출토된 치마 1점은 2.5cm로 예외이고, 나머지는 9.5~30cm이다. 이 접음단을 굵로 접으면 접음단 너비는 5~15cm이다. 이를 <표 5>로 정리하였다.

표 5. 조선시대 출토복식 중 접음단치마의 치수 및 용도

번호	묘주	연대	접음단 치마 접수	유물 번호	치수(cm)					접음단 상태	접음단 치마 용도
					치마 총길이	치마 길이	접음단 위치*	접음단 높이	접음단 너비		
1	신창맹씨 (나문걸의 부인)	16세기 초기	3	23	95.5	78.5	36	16-17	8-8.5	폴림	대렴
				33+34	91	79	18	12	6		소렴
				38	93	77	15	16	8		소렴
2	덕흥군 이존숙(1480~1538)의 고모 추정	16세기 초기	1	이중거들 치마	105	92	39.5	13	6.5-7	고정	미상
3	파평윤씨	1566년 몰년추정	3	56	102	84.5	16.5	17~17.5	8.5	폴림	습
				85	101.5	85	16.5	17~17.5	8.5		소렴
				36	105	80	18	10~15.5	5~8		대렴
4	소의신씨 (명종 후궁)	1533~1565	1	명주 접치마	101	91	16	10	5	고정	미상
5	남양주 별내 무연고	16세기 초기	1	29	101	83	20	18	9	고정	대렴
6	청양무연고	16세기 중기	1	3	89	86.5	22.5	2.5	1.8	고정	습
7	연안김씨	16세기 중기	1	58	94	79	15	16	8	폴림	습
8	천안 유량동 무연고	16세기 중기	1	10506	105(우) 108(좌)	89.5(우) 92(좌)	17.9	16	8	고정	미상
9	진주류씨의 부인 박씨	16세기 중기	1	11	107	81	20	23	11.5	폴림	습
10	일선문씨	16세기 중기	1	MN50	99	85	22	14	7	고정	습
11	구성이씨	16세기 중기	3	6	98.3	-	17.5	-	-	폴림	습
				27	95	85.5	17	9.5	5		대렴
				31	103	86	16	17	8.5		산의
12	용인이씨 (나문걸의 며느리)	16세기 중후기	3	23	114	84	30	30	15	폴림	산의
				42	102	79	24	23	11.5		대렴
				46	109	83	23	26	13		소렴
13	여흥이씨	16세기 중후기	3	8	98	85	11	13	6.5	폴림	습
				18	99	83	16	16	8		소렴
				24	99	82.5	17	16.5	8.3		대렴
14	충주박씨 (송희최의 부인)	16세기 중후기	3	15	111	83	17	14	7	고정	습
				18	97	85	27	15	7.5	폴림	소렴
				20	95	80	20	15	7.5	고정	산의

번호	묘주	연대	접음단 치마 점수	유물 번호	치수(cm)					접음단 상태	접음단 치마 용도
					치마 총길이	치마 길이	접음단 위치 ⁺	접음단 높이 ⁻	접음단 너비		
15	안동김씨 (이현충의 부인)	16세기 후기	2	11494 이중거들 치마	98	85	23	10	5	고정	미상
				11495	110	90	23	19.6	9.8		미상
16	평산신씨	16 후기	1	1436	107	80	20	26	13	폴립	염의
17	광주 양산동 무연고	16세기 후기 ~17세기 초기	1	15	104	85	22.5	19	9.5	폴립	습
18	이기남	1533~1605	1	석탄공14	103	85	22	18	9	폴립	미상
19	순흥안씨	1551~1609	1	9512	108	89	20	19	9.5	폴립	보공
20	장기정씨	1565~1614	3	JJ22	99	86	14	13	6.5	폴립	대소렴 용
				JJ24	102	88	16	14	7		습
				JJ25	99	85	16	14	7		
21	남양주 호평 무연고	17세기 초기	3	화문 접치마	96	83	14	13	6.5	고정	습 (추정)
				모란문 단치마	93	79	15	14	7	폴립	미상
				문단	-	-	-	-	-	폴립	미상
22	고부이씨	17세기 초기	1	10308	98.5	81.3	18.5	17	8.5	고정	습
23	여흥민씨	17세기 초기	2	10366	110	88	20	22	11	폴립	습
				10372	98	81	18	15	7.5		소렴
24	청주도씨	17세기 초중기	1	11504	91(좌) 95(우)	75(좌) 79(우)	15.5	16	8	폴립	습
25	단양우씨	17세기 초기	1	8379	92	78	14	14	7	고정	미상
26	광산김씨 이기남(1533~1605)의 부인	16세기 후기	1	광산김씨 1	101	83	18	18	9	폴립	미상
27	전주이씨	16세기 후기	1	무명 접치마	102	88	14	14	7	고정	미상
28	임계백	1598~1639	1	갈색문양 단치마	-	-	-	-	-	고정	미상
29	예산이씨	1584~1655	1	연화보문 단접치마	101	85	16.5	16	8	고정	미상
합계			48	-	-	-	-	-	-	-	-

+ : 접음단의 위치는 치마 도련에서부터 접음단을 위한 시침이 시작된 곳을 말한다.

- : 접음단의 높이는 치마 접음단의 위치, 즉 시침이 시작된 곳에서부터 끝난 높이를 말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48점의 접음단치마의 형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일반적인 접음단치마로 치마길이는 77~90cm로 치마도련에서 11~23.5cm 가량 높이에 너비 7~15cm의 주름단으로 마치 치마를 2벌 꺾입은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 ②청양 안심리 무연고 묘에서 수습된 접음단 치마(〈그림 3〉 참조)는 도련에서 높이 22.5cm에 너비 2.5cm를 바느질하여, 매우 독특한 접음단치마를 연출하였다. ③“아랫부분은 접음단을, 윗부분 앞중심



그림 8. 신말주 계획도

은 다트처럼 접음 이중거들치마형태”³⁶(〈그림 1〉 참조)가 있다. 이중거들치마는 2점으로 덕흥군 이존숙(1480~1538)의 고모의 묘로 추정되는 곳과 이현충(1505~1603)의 부인 안동 김씨(1505~?) 묘에서 수습되었다. 2점 모두 왕실과 관련 있는 왕실종친의 묘라고 알려져 있다. 29건 48점 가운데 2건 2점이라 보편적이지 않은 형태이다.

이러한 접음단치마는 대부분 겹치마나 솜치마나 누비치마로, 착용하면 아래로 뻗치는 효과를 줄 것이다. 조선시대 전기의 치마 착장 모습은 신말주(申末舟, 1429~1503)의 계획도(契會圖)에서 찾아볼 수 있다. 신말주의 계획도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치마(그림 8)는 A-line이다.

15세기 말의 명나라 궁중생활을 그린 현종원소행락도(憲宗元宵行樂圖)에서도 여인의 모습(그림 9)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치마 모양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려대학교 소장 1605년 선묘조제재경수연도(宣廟朝諸宰慶壽宴圖)에서는 치마(그림 10)는 긴 H-line 형태를 보인다. 이는 1668년 이경석(李景奭) 사계장연회도(賜机杖宴會圖)의 여인의 치마(그림 11)도 비슷한 실루엣이다. 이처럼 A-line의 실루엣에서 H-line으로 변화하면서 접음단치마도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다.

백영미는 충주박씨묘에서 출토된 접음단치마의 용도에 관하여 “이 중 솜 3점은 모두 의례 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접음단 처리된 란치마이다”³⁷라고 하여 접음단치마의 용도를 예복으로 보았다. 그러나 접음단치마는 예복으로 입었다기 보다 평상복 혹은 속옷으로 입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속옷이란 현대의 속치마역할이 아니라, 덧치마 즉 장치마 또는 홀치마를 입을 때 받침옷으로서 치마를 말한다. 앞에서 살펴본 습용으로 접음단치마를 입었을 때, 바지 위에 접음단치마 1벌만 입는 경우도 있었지만, 치마를 여러 벌 입을 때는 접음

³⁶ 최연우·박윤미, 2017, 앞의 논문.

³⁷ 백영미, 2007, 앞의 논문, p.154.



그림 9. 명 헌종(1447~1487)
元宵行樂圖의 여자 치마 착장모습
『中國歷代服飾藝術』



그림 10. 선묘조제재경수연도
(1605년)의 여인의 치마 입음새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그림 11. 이경석사계장연회도
(1668년)²⁾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단치마 위에 겹치마 또는 전단후장형치마를 덧입었다. 연안김씨, 일선문씨, 여흥이씨, 장기정씨, 충주박씨의 습용 경우가 그러하다. 예복의 용도로 접음단치마를 입었다면 홑옷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나, 출토복식에서 홑접음단치마는 광주 양산동 무연고 묘에서 1건 1점이 수습되었고, 소재도 면포로 만들었다. 유영순은 “궁중에서 겹치마는 비빈에 한하고 소의는 남색으로 한 겹치마이다. 형태상으로 보아 덧주름은 ①현재 치마는 담황색으로 색구별이 불확실하나 남색겹치마였다면 슬란을 부착하기 위한 받침대 역할이었을 것이고, ②백색이었다면 치마 하단부를 부풀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궁에서만 착용되었던 대습치마의 전신형태가 아닐까? 대습치마는 흰모시인데 반해 명주라는 차이가 있으나 명주에 풀을 뽀뽀하게한 쟁치마를 궁에서 입기를 즐겨했으므로 내의로 입었을 가능성도 있다.”³⁸고 하였다.

이러한 접음단 치마의 명칭은 무엇이라고 하였을까? 아쉽게도 조선시대 초기의 기록에는 답을 찾을 수 없다.

V. 맺음말

첫째, 조선시대 출토복식 가운데 접음단치마는 생몰년이 16세기 전기로 추정되는 나신걸(1461~1524)의 부인인 신창맹씨 묘에서부터, 생몰년이 17세기 중기인 예안이씨(1584~1655)의 묘에서까지 약 120~130년 동안 지속적으로 출토되었다. 다양한 신분의 묘에서

38 유영순, 1992, 앞의 논문, p.41.

접음단치마가 수습되었다. 특히 명종의 후궁인 소의신씨(昭儀申氏, 1533~1565)의 경우에는, 소의신씨의 몰년이 명종의 재위(1545~1567) 재위기간으로 궁중 내명부(內命婦)에서도 착용하였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접음단치마가 수습된 묘는 총29건으로, 경기도 11건, 충청도 10건, 경상도 4건, 전라도 4건으로 전국에 고르게 걸쳐 분포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접음단치마 착용은 지역에 상관없이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접음단치마가 출토된 것은 29건 묘에서 48점이 보고되고 있다. 이 29건의 묘에서 수습된 여러 가지 치마의 점수는 121점으로 접음단치마가 차지하는 비중은 39.6%로 다양한 치마형태를 볼 때 비중이 높은 편이다.

넷째, 접음단치마의 구성면에서는 48점 가운데 홀치마가 1점, 겹치마가 21점, 솜치마가 16점, 누비솜치마가 8점이다. 겹치마나 솜치마, 누비치마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접음단치마의 형태가 치마 2벌을 껴입은 것과 같은 풍성하고 뽀치는 효과를 주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다.

다섯째, 접음단치마의 염습의(斂襲衣)의 용도이다. 접음단치마가 수습된 29건의 경우에 14건 14점이 습의(襲衣)로 사용되었다. 습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대부분 바지를 입은 다음에 접음단치마를 입었다. 수습과정에서 접음단치마의 용도를 밝히지 못한 경우가 10건이고, 습의 자체를 수습하지 않은 경우가 1건이며, 수습된 접음단치마가 습의로 사용하지 않고 소림과 대림, 산의(散衣)로 사용한 경우는 3건이었다. 습에 사용된 14건의 접음단치마는 홀 1점, 겹 4점, 솜3점, 솜누비 6점으로 솜이나 누비와 같은 부피가 있는 옷이 64.3%이다. 접음단치마의 대부분이 부피가 있는 옷인 까닭에 17세기 초까지 접음단치마를 습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접음단치마 48점에 사용된 직물은 면포[무명]이 11점, 주(紬)가 17점, 화문단류가 14점, 기타 견직물로 표현되었지만 주(紬)로 추정되는 직물이 4점이다. 직물의 사용은 접음단치마가 수습되는 시기가 임진란을 거치는 16세기 후기~17세기 중기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광주 양산동 무연고 묘 출토 복식 이후 시기에는 견직물보다 면포 치마가 다수를 차지한다.

일곱째, 접음단치마의 길이는 다양하다. 접음단을 포함한 치마의 총길이는 89~14cm이고, 접음단을 접었을 때의 치마길이는 75~92cm이다. 접음단의 위치는 도련에서부터 11~39.5cm이다. 접음단의 높이는 청양 안심리 무연고 묘에서 출토된 치마 1점은 2.5cm로 예외이고, 나머지는 9.5~30cm이다. 이 접음단을 골로 접으면 접음단 너비는 5~15cm이다.

접음단치마에 사용된 직물과 접음단치마의 구성에서 솜이나 솜누비치마가 다수를 차지하

는 경향을 볼 때, 접음단치마는 예복이 아닌, 평상용 혹은 속옷의 용도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 추측한다. 접음단치마는 실루엣의 변화와 옷이 얇아지는 추세에 따라, 솜치마를 2벌 껴 입은 듯한 뽀치는 형태가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접음단치마는 17세기 중반 이후 사라지는 여자 옷의 한 종류로 기록될 것이다.



참고문헌

- 경기도박물관, 2005, 연안김씨 묘 출토복식-양평출토 홍몽남 배위, 경기 : 경기도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2006, 진주류씨합장묘 복식, 경기 : 경기도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2011, 이승에서의 마지막 치장治粧, 경기 : 경기도박물관.
- 경기도박물관, 2015, 청주양씨 기증 유물전, 경기 : 경기도박물관.
- 京畿文化財團 附設 畿甸文化財研究院·韓國土地公社, 2001, 南陽州 好坪·坪內 宅地開發地區
內 文化遺蹟 試·發掘調查報告書(I)-朝鮮時代 墳墓群, 경기 : 경기도박물관.
-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1, 조선시대 기록화의 세계, 서울 : 고려대학교 박물관.
- 고려대학교 박물관, 2003, 坡平尹氏 母子 미라 종합 연구 논문집, 서울 : 고려대학교 박물관.
- 공주대학교박물관, 2006, 청양 안심리 복식·지류유물, 충남 : 공주대학교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2011, 삶과 죽음의 이야기 조선 묘지명, 서울 : 국립중앙박물관.
- 광주광역시 북구청·(재)엔가드 부설 문화재연구소, 2006, 광주 양산동 회곽묘 출토유물 보존처리, 광
주 : 광주광역시 북구청·(재)엔가드 부설 문화재연구소.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1997, 韓國服飾 제15호.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9, 韓國服飾 제27호.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09, 海南尹氏 橘亭公派 廣州出土 遺物, 경기 : 단국대학교출판부.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1, 韓國服飾, 제29호.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3, 영릉 참봉 한준민 일가 묘 출토 유물, 경기 : 단국대학교출판부.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7, 분흥단령의 비밀-충남 천안시 유량동 무연고 여성 묘 출토 복
식, 서울 : 민속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019, 전주이씨 수도군파 5세 이현충과 부인 안동김씨 묘 출토복식.
경기 : 단국대학교출판부.
- 대전광역시·부산대학교 한국전통복식연구소, 2007, 대전 목달동 출토 조선초·중기 여산송씨 출토복식.
대전 : 대전광역시.
- 대전시립박물관·한국전통복식연구소, 2016, 대전 금고동 출토 안정나씨 일가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대전 : 대전시립박물관.
- 대전시립박물관, 2016, 2016 대전 안정나씨(安定羅氏) 묘 출토복식 특별전 그리움을 깊고 연정을
짓다. 대전 : 대전시립박물관.
- 문경시, 2005, 금선단 치마입고 어디 다녀 오셨을까. 경북 : 문경시.
- 상지전문대학, 1992, 上智專門大學論文集 第22輯 자연과학편.

- 수원박물관, 2015, 경기도 오산 여흥이씨 구성이씨 墓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기 : 수원박물관.
- 안동대학교박물관, 1996, 안동지역 전통복식. 경북 : 안동대학교박물관.
-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안동 정상동 일선문씨와 이응태묘 발굴조사 조사보고서. 경북 : 안동대학교 박물관.
- 안동대학교박물관, 2000, 포항 내단리 장기 정씨 묘 출토복식 조사보고서. 경북 : 안동대학교박물관.
- (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1, 남양주 별내 조선시대 회묘 발굴성과 학술대회 자료집.
- 한국의류학회, 2017, 한국의류학회지, 41권5호.
- 한국토지주택공사·(재)한백문화재연구원, 2012, 남양주 별내 유적Ⅳ 남양주 별내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 서울 : 한국토지주택공사·(재)한백문화재연구원.
- 허정애, 2013, 조선시대 모에서 출토된 치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한국.
- 충북대학교박물관, 1988, 出土遺衣 및 近代服飾論巧. 충북 : 충북대학교박물관.
- 충북대학교박물관, 1998, 年報7. 충북 : 충북대학교박물관.
- 黃能馥·陳娟娟, 1999, 中國歷代服飾藝術, 中國旅遊出版社 : 北京. 中國.

The Folded skirt on the excavated costume in the Joseon Dynasty

Song Mi-Kyung

Seoul Women's University, Dept. of Fashion Design & Marketing

■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folded skirt,' which is a type of female skirt, among the costumes of the Joseon Dynasty. A folded skirt is a skirt that looks like a pair layered style of skirts with a height of 15- 20cm and a width of 5-15c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asons why the folded skirt is concentrated at a specific time, by analyzing the appearance time, appearance area, frequency, composition, usage as well as the used cloth of the skirt among excavated and identified skirts to be Joseon dynasty clothes respectively. Through this study, it will be expected to restore some of the life history of the Joseon Dynas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folded skirt was unearthed from the tomb of *Sinchang Mang's* family, the wife of *Nasingul*(1461-1524), to the tomb of *Yaeon Lee's* family(1584-1655) revealed that was worn throughout the country as a kind of common skirt during 16C. to 17C.

Secondly, total 121 pieces of skirt was unearthed from the 29 tombs. Among them, the folded skirt occupies 39.6% with 48 pieces.

Third, 'folded skirt' is used for shrouding of a corpse. Fourteen skirts from 14 tombs, were used as shrouds. The folded skirt used for shroud used to be composed with 1 piece of single ply, 4 piece of double ply, 3 padded piece, 6 piece of cotton quilting. 64.3% of pile of clothes such as padded or quilted was used for shroud, which can be interpreted that "the folded skirt' was widely accepted for making shroud.

Fourth, as 50% of the folded skirts are made of cotton and quilted form, the use of the folded skirt can be guessed not as a robe but as a flat robe or as an underwear that bulky skirts are used to inflate. This is due to the change of the silhouette of the female costume from the 17C. onward. The trend change showed that the skirt and jeogori are getting longer and the clothes become thinner, the folding skirt gradually

disappears after the middle of 17C. Fifth, analysis of fabric used in the 48 folded skirt, showed, 11 pieces are made of cotton, 17 pieces with Silk Tabby, 14 pieces with Satin Damask, and 4 pieces with silk. Consequence of Japanese invasion to Korea during 16~17C. cotton material become more used for making folded skirt which is possibly due to the difficult life after war time.

Keywords : Joseon Dynasty, Excavated Costume, Women's Costume, Folding Skirt, Cleaning and shrouding of a corpse, 16th-17th century.

간행규정

2017.04.30. 부분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복식』에 투고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간행횟수) 『한국복식』은 매년 5월과 12월 말일에 총 2회 간행한다. (2017.04.30. 개정)

제3조(논문투고)

- ①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고 심사가 완료된 원고만 게재한다.
- ② 공동 필자일 경우, 제1필자와 구분해서 표기해야 한다.

제4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

- ① 『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편집인은 본박물관장이 겸임하고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그 자격은 전문연구자로 한다. (2017.4.30. 개정)
-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017. 4. 30일 개정)
- ④ 편집위원회는 편집인이 소집하며 재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편집위원회는 연 2 회 이상 개최하며 투고 논문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과 기타 편집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5조(논문심사)

심사에 통과된 논문에 한해 발행인은 『한국복식』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심사
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규정을 따른다.

제6조(지적소유권)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박물관에 귀속된다. 단, 필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7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4. 30}

본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편집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고 약함)의 학술지인 『한국복식』의 편집과 투고 논문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투고 논문은 다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① 분야, 분량, 형식 등의 적합성 여부 검토.
- ② 내용의 학문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 평가.

제3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①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
- ② 심사를 맡을 심사위원의 선정.
- ③ 심사를 거친 논문에 대한 최종 판정.

제4조 편집위원회를 통과한 논문은 심사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심사를 받는다.

- ① 심사위원진은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자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 ② 심사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③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절차

- ① 심사위원은 논문의 학문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소정양식에 기재한다.
- ② ‘게재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③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2) 평가기준

- ① 논문의 독창성
- ② 학문적 기여도

- ③ 논문체계와 서술의 논리성
- ④ 자료의 신뢰성 및 정확성
- ⑤ ‘원고작성지침’의 준수 여부

제6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 ① $A \cdot A \cdot A / A \cdot A \cdot B$: 게재
- ② $A \cdot A \cdot C / A \cdot B \cdot B / A \cdot B \cdot C / B \cdot B \cdot B / B \cdot B \cdot C$: 수정 후 게재
- ③ $A \cdot A \cdot D / A \cdot B \cdot D / A \cdot C \cdot C / A \cdot C \cdot D / A \cdot D \cdot D /$
 $B \cdot B \cdot D / B \cdot C \cdot C / B \cdot C \cdot D / C \cdot C \cdot C / C \cdot C \cdot D$: 수정 후 재심사
- ④ $B \cdot D \cdot D / C \cdot D \cdot D / D \cdot D \cdot D$: 게재불가

제7조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에게 논문 게재의 可 · 否를 통보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논문 투고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9조 본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투고규정

2019.04. 개정

1. 투고대상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에는 연구 논문, 자료 및 연구동향 소개 등이 포함 된다. 박물관 소장 자료에 대한 연구결과도 게재될 수 있다.

2. 투고 요령

- ① 투고논문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정한 원칙대로 작성된 원고를 다음 주소로 발송한다(접수 : ckafka@dankook.ac.kr).
- ② 논문을 투고할 때는 통용 가능한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줄 간격 160, 글자크기 11, 신명조, 편집용지는 한글 2007 이상 기본꼴). 이때 논문의 저자명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③ 논문의 분량은 표와 그림을 포함하여 A4용지 20면 이내로 작성한다. 그 밖의 자료 및 연구동향, 박물관 소장자료에 대한 연구 등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A4용지 20매를 초과할 수 없다. 단 내용의 특성을 반영해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019.04. 개정)
- ④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고, 논문의 제목과 투고자 인적사항(이름, 소속, 직위)은 국·영문으로 병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주저자는 맨 앞에 넣고, 교신저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 ⑤ 각주·참고문헌·기타 자료 인용 등 작성은 『한국복식』 참고문헌 작성 규정을 참조한다.(2019.04. 개정)

4. 원고의 작성 및 채택

- ① 논문의 형식은 표지, 국문초록, 중심어,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key words의 순서로 하되 불필요한 항은 수정 및 생략할 수 있다. 표와 그림은 본문에 삽입하여 기술한다. (2019.04. 개정)
- ② 초록은 논문의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결과를 포함하여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간결하게 기술하며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2019.04. 개정)
- ③ 문화재명, 인명, 지명 등은 한글과 영어 모두 공인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명칭을 사용한다. (2019.04. 개정)

- ④ 모든 표와 그림, 참고문헌은 본문 중에 반드시 언급 및 인용되어야 한다. (2019.04. 개정)
- ⑤ 모든 표와 그림은 본문에 위치하는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이며 (예 : 표 1, 그림 1), 본문 중에 언급할 때에는 문장 뒤에 표기한다. (2019.04. 개정)
- ⑥ 모든 표의 제목은 상단에 배치하고,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배치한다. 사진은 그림으로 포함한다. (2019.04. 개정)
- ⑦ 매호 간행 2개월 전에 도착한 원고에 한하여 소정의 심사 절차(편집규정 참조)를 거친 뒤 게재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한다.

5. 기타

- ①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복식』 해당호 3부와 해당논문의 전자파일을 필자에게 제공한다. (2019.04. 개정)
- ②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므로 타 인쇄물에 사용할 경우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본 학회에 보고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③ 문의 및 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한국복식』 편집위원회
전화 : (031) 8005-2393 전자우편 : ckafka@dankook.ac.kr

부칙 {2019. 4. 3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고문헌 작성 규정

2019.04. 개정

본문에서 인용한 출처를 표시할 때는 ‘각주(脚註)’ 인용 방식을 사용하고, 본문에서 인용된 출처의 전체 목록을 맨 마지막에 참고문헌으로 표시한다.

1. 각주의 작성

- ① 동양 지역 간행본의 경우, 간행연도는 서기로 환산하고 특정연대는 괄호로 처리한다.
- ② 바로 앞에서 인용한 논문 등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보기 : 국문의 경우 : 홍길동, 앞의 논문(책), p. 203.
 영문의 경우 : R. Tylor, op. cit., p. 205.
- ③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순서로 기재한다.
 저서의 경우 : 저자명, 간행연도, 저서명, 출판사명, 인용면수.
 논문의 경우 : 저자명, 게재연도, 논문제목, 게재지명과 권호수, 인용면수.
- ④ 저자가 3인 이내인 경우는 전부 기록하되, 저자명 사이에 중간점(·)을 넣어 모두 명시한다. 저자가 4인 이상인 경우는 ‘저자명 외’ 또는 ‘et al.’로 표기한다.
 외국인 저자의 이름은 성(family name), 이름(first name)의 약자로 표기한다.
- ⑤ 초록(학술대회 프로시딩 등) -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학술대회명, 도시명, 일자, 인용면수.
- ⑥ 학위논문 - 저자명, 출판년도, 제목, 학위명, 학교명, 도시명, 인용면수.
- ⑦ 단행본 - 저자명, 출판년도, 서명, 출판사명, 출판도시명, 권(2권 이상일 경우), 인용면수.
- ⑧ 연구보고서 - 기관명, 출판년도, 서명, 권(2권 이상일 경우), 인용면수.
- ⑨ 편저나 번역서 - 저자명, 출판년도, 서명.(번역자), 출판사명, 출판도시명, 인용면수.
- ⑩ 저자가 단체나 조직인 경우 - 단체이름, 연도, 서명, 출판도시, 출판국가 : 출판사.
 (기관명이 약자로 사용될 경우에는 첫 번째 인용에서는 기관명을 적은 후 약자를 괄호() 안에 기재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약자만 기재한다.)
- ⑪ 고서와 같이 출판지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 [고서의 원문으로 작성] 연도.
- ⑫ 인터넷 자료는 URL전체를 기재한다.

2. 참고문헌 정리양식

- ① 저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로 정리한다.
- ② 동일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가 오래된 것부터 최근 것의 순서대로 나열한다.
- ③ 동일 저자, 동일 연도 문헌이 두 개 이상일 때는 제목의 첫 단어의 가나다 순서 또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고, 연도 뒤에 ㄱ, ㄴ, ㄷ… 또는 a, b, c…를 붙여 구분한다.
- ④ 인용되는 그림과 표의 출처도 참고문헌 표기하는 규정을 적용하여 References에 포함시킨다.

3.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30]

본 규정은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윤리 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한국복식』 연구윤리 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복식』 간행규정 및 편집규정에 따른 연구윤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논문의 신규성 및 작성원칙

제3조(논문의 신규성) 투고되는 논문은 다른 학술지와 저서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단, 기존의 논문을 확대발전시킨 것은 그 사실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4조(인용방법) ① 논문과 저서 등을 인용할 때에는 “원고 작성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인용하여야 한다.

② 전자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학술적인 권위가 인정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전자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자료명칭 등을 병기하고, 가급적 URL과 접속일자를 표기해야 한다.

제5조(제재) ① 투고논문이 제3조, 제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는 개별적 심사 없이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 등을 7일 내에 통고하여야 한다.

③ 투고자는 통지를 받은 후 15일 내에 서면으로 편집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이의가 없으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으로 본다.

④ 이의를 받은 편집위원회는 1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게재 논문의 사후 심사

제6조(사후심사) 『한국복식』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사후 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사후심사의 요건) 편집위원회의 자체 판단 또는 접수된 사후심사요청서를 검토 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① 대상 논문이 그 논문이 수록된 본 『한국복식』 발행일자 이전의 간행물에 게재된 경우
- ② 타인의 저작권에 귀속될 만한 내용을 현저한 정도로 표절 또는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제8조(사후심사요청서의 접수) ①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사후 시마를 요청하는 사후심사요청서를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접수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사후심사요청서는 밀봉하고 겹봉에 ‘사후심사요청’임을 명기하되, 발신자의 신원을 겹봉에 노출시키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심사요청서의 개봉) 사후심사요청서는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장이 위촉 한 편집위원이 개봉한다.

제10조(사후심사요청서의 요건) 사후심사요청서는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의심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 4 장 사후 심사의 절차와 방법

제11조(사후심사를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에 관한 사실 여부를 심의하고 사후심사자의 선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질의서의 우송)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 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된 논문에 대해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 편집위원장 명의로 해당 논문의 필자에게 질의서를 우송한다.

제13조(답변서의 제출) 위 제12조의 질의서에 대해 해당 논문 필자는 질의서 수령 후 30일 이내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가 질의서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 5 장 사후심사 결과의 조치

제14조(사후심사 확정을 위한 편집위원회 소집) 편집위원장은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사후심사 결과를 확정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5조(사후심사 결과의 통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에서 확정된 사후심사 결과를 7일 이내에 사후심사를 요청한 이 및 관련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조치) 편집위원회에서 표절 또는 중복게재로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집행할 수 있다.

- ① 연구원 홈페이지 및 차호 『한국복식』에 그 사실 관계 및 조치 사항들을 기록한다. 『한국복식』 전자판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다.
- ② 해당 논문 필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 6 장 제보자의 보호

제17조(제보자의 보호) 표절 및 중복게재에 관한 이의 및 논의를 제기하거나 사후심사를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원을 절대 밝히지 않고 익명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제보자 보호 규정의 위배에 대한 조치) 위 제17조의 규정을 위배한 자는 향후 5년간 본지에 원고 등을 투고할 수 없다.

제 7 장 이의 절차

제19조(이의당사자) ①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에 대해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는 투고자 및 게재자와 신청자는 한국복식한국학연구원 원장에게 각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이 경우 신청자는 그 사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원장은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단 판정을 내린 편집위원 등은 위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21조(절차) ① 편집위원장은 판정과 관련된 자료를 원장에게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절차는 제4장과 제5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확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장 보칙

제23조(규정의 개정) ①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 3인 이상이 규정의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재적 편집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하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4조(보칙) 이 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복식』 논문 투고 신청서

투고권호	제	집	접수번호		접수일	
제 목	국 문					
	영 문					
Keywords (5개 이내)	국 문					
	영 문					
제1저자 (주저자)	이름(한글)			이름(영어)		
	소 속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공동저자1	이름(한글)			이름(영어)		
	소 속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주 소					
공동저자2 성명, 소속 전화번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지에 게재될 경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이 가지게 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대표저자 : _____ (인 또는 서명)						

* 굵은선 안은 작성하지 마시오.

* 보내실곳 : (16890)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Tel : 031)8005-2389, Fax : 031)8021-7157, E-mail : ckafka@dankook.ac.kr

투고관련 사항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16890

주 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전화번호 : 031-8002-2393

F a x : 031-8021-7157

E - mail : ckafka@dankook.ac.kr (채정민)

韓國服飾

第41號

찍은 날 2019年 05月 24日 印刷

펴낸 날 2019年 05月 31日 發行

發 行 단국대학교 石廬善紀念博物館

TEL : (031) 8005-2389, 2390

FAX : (031) 8021-7157

印 刷 호진커뮤니케이션즈

TEL : 02-723-7741~2

FAX : 02-723-7743